한국전력공사 공인협의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 심야전력 기기제조 삼치전문점
그랑쏠레이
▶용도:목욕탕,숙박업소,식당,병원,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TEL. 051)743-3376

현대불교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2 호

'98 자영강좌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정화회의는 청사서 퇴거" 판결

서울지법, 가처분신청 총무원 승소
총무원 "14일까지 청사 비워달라"
정화회의 "종교자율성 부정 유감"

판결주문

1. 피신청인(정화회의측)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총무원청사)에서 퇴거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총무원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신영철)는 11일 오후2시 조계종 총무원이 정화개혁회의(의장 벽암)와 월탄, 정우, 성문스님을 상대로 지난달 14일 제소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의 청사 퇴거, 총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송비용은 정화회의가 일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11일 오후 정화회의측에 "14일 오전 9시까지 청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사를 반환 받기 위해 가능한 법적절차를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종교의 자율성과 자체 정화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혀 항소의 의지를 보였다. 정화회의는 또 "대중공의제도를 통하여 종정예하 및 원로회의의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무행정을 관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총무원측의 법집행과 정화회의측의 불복 방침에 따른 대응으로 조계종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11일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퇴거 판결이 결정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청사는 또 한번의 분규로 피멍든 속살을 드러낸 채 말 없이 서 있다.

해결 실마리…앙금 해소 숙제로 남아

가처분 판결이후

11일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총무원측 승소 판결은 조계종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법적 논쟁을 포함한 갈등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총무원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를 가능한한 빨리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달여간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 종단 안정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14일 오전 9시까지 청사를 비워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에 집달관을 신청 퇴거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력을 동원해 퇴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총무원은 정화회의로부터 청사를 반환 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정화회의측은 11일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재판 직후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정화회의는 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본안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해 항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송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어서 총무원측의 판결에 따른 청사 반환 작업이 시간적으로 우선될 가능성이 많다.

불자들은 조계종 분규가 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경우, 징계등을 통한 새로운 갈등 보다는 그간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결문 전문 3 · 4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11월 11일 승려대회는 적법성을 갖지 못했으므로 정화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종정교시와 11월 14일 구룡사원로회의 의결도 부정했다. 또 "월주스님이 총무원장후보를 사퇴하여 더이상 분쟁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어려운 국가현실에서 상당수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종단의 권위 실추는 더욱 중대하고 회복하기 힘든 것"이라며 "민주적 합화적 방법으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해 종단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종회의장직 방해말라" 법등스님 법원서 승소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는 11일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이 정화개혁회의를 상대로 신청한 '종회의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원로회의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정화회의)은 신청인(법등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로회의의장(벽암스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 "신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화회의측이 총무원을 상대로 낸 '인감 인장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총무원집행부 스님들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연태 기자

전국사찰 백일기도 입재
"참회로 종단사태 극복하자"

조계종 사태와 관련 승단의 자정과 화합을 염원하는 참회기도를 봉행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는 동안거 결제일인 3일부터 '조계종 정상화를 위한 참회 백일기도 법회'에 입재했다. 특히 낙산사 지혜스님은 종단 안정을 염원하는 10만배 정진을 서원하고 3일부터 매일 참회정진을 하고 있다. 지혜스님은 10만배 정진에 들어가며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런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산사의 참회 백일기도는 해당 교구인 제3교구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서울 도선사(주지 동광)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하는 참회정진 법회를 종단사태에 대한 참회 정진법회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제주 법화사는 지난달 중순 종단사태와 관련, 6백여 어린이 법회 회원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참회문을 발송해 불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속초 보광사(주지 석문)도 3일부터 불교 대화합을 위한 승풍진작 발원 백일 기도에 들어갔다. 보광사 신도회는 기도에 들어가며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를 통한 대화합에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도회는 또 "스님들은 물리적 충돌을 즉각 중지하고 수행정진에 함께 달라"고 덧붙였다.

임연태 기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농협 해남지부에 근무하는 문충식(45)씨. 그는 이지역 미술가들 에게 '보살'로 통한다. 문씨가 이같이 불리는 까닭은 만나는 향토작가들에게 "꼭 한 번 좋은 일을 하세요"라고 입버릇 처럼 말하기 때문.

이 한마디는 문씨가 10여년동안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다. 최근 해남 대흥사 유물관에서 열렸던 '선화전'도 따지고 보면 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청소년교화연합회 해남지부(지부장 영주스님)가 마련한 이 선화전은 향토작가와 소장가들이 대가없이 한 점씩 내놓은 선화들로 준비된 것. 전시회 이름도 '지역 청소년 장학금 조성 선화전'이다. 3일동안 계속된 선화전에서 모금한 장학금은 2천여만원. 중·고교생 1백여명이 수혜할 수 있는 큰 돈이다.

문씨의 "꼭 한 번 좋은 일을 하세요"라는 말이 향토작가들이 사찰과 신행단체의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조성 등에 자신의 작품을 쾌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끄는 것이다.



대학시절부터 '미술애호가'였던 문씨는 웬만한 향토작가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중앙 화단에 잘 알려진 가산 곽창옥, 죽곡 박인학씨 등도 있다. 그동안 문씨의 도움으로 전시회를 연 곳은 고창 선운사 등 10여곳. 매년 한 번씩 치른 것이다.

대흥사 선화전에 출품된 작품 70여점중 40여점이 이같은 노력으로 전시될 수 있었으며 1백만원을 호가하는 가산 곽창옥선생의 선화 2점도 있다.

"제가 해온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신의 힘으로 제작한 그림을 아무런 대가없이 쾌척한 향토 예술가들의 선행이 더욱 빛나야죠."

문충식는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의 품격과 가격을 가늠할 줄도 알구요. 하지만 집에는 좋은 그림이 없어요. 매년 한 번씩 여는 전시회에 내놓기 때문이죠. 남아 있는 그림 대부분은 좋은 일에 내놓기에 미안한 작품(?) 뿐이죠. 하지만 제가슴 속에는 10여년동안 제 손을 거친 숱한 작품들과 도움을 받는 이웃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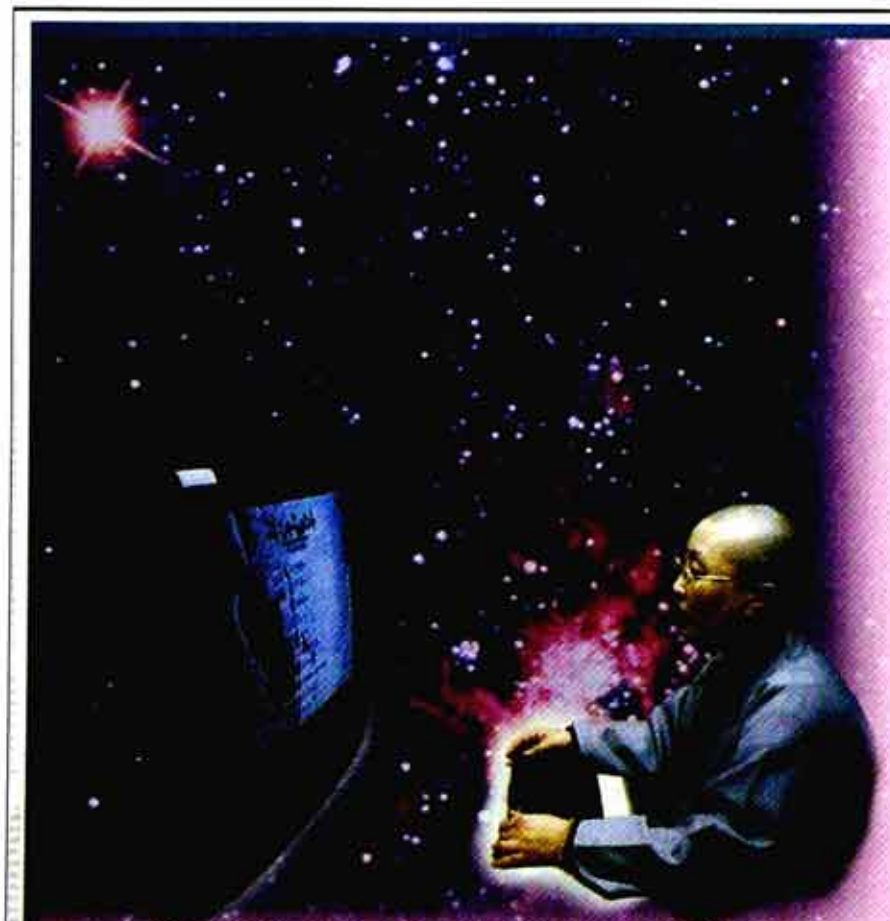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와 홈TV인터넷이 함께하는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 INTERNET으로 만드는 사찰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회의 대화가능
- 뉴스,홈쇼핑,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웍 형성



TV INTERNET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C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단말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HOME 홈TV인터넷(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 문의전화 : 02-295-6660

사 설

분규, 해 넘기지 않길

조계종 분규가 일어난지 한달이 넘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종단이 두 조각난 채 해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의 물리적 충돌로 불교의 위상을 최악으로 실추시킨 양측은 오히려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

총무원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세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고, 정화회의측은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서로 동상이몽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불자들의 불만은 인내의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종단이 몇몇 소수의 정치승들에 의해 농단되는 것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탄식에서부터, 원로스님과 양심적 중진스님들이 사태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걱정이 태산이다. 보다못해 정부까지 나서서 사태의 화합적 해결을 종용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어떻게 자기가 잘났다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는 빈정거림마저 들려오는 것이 작금의 세평이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속사회를 지도해야할 승단이 자기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화합의 압력'을 받는 꼴이 된 것이니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화합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측은 눈도 귀도 없다는 듯 여전히 싸움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제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또 한쪽은 종법을 개정해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싸움이 세속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국내의 신문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마라톤 중계하듯 보도하고, CNN, NHK와 같은 외국의 방송사들도 한국불교교의 추태를 세계만방에 전하고 있다. 불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터에 가장 추악한 싸움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게 되었으니 이는 민망함을 넘어 부처님도 돌아앉을 일이다.

당사자들은 스님을 위장해 불교를 망치려고 하는 '가사입은 외도'들이 아니라면 현 단계에서 무조건 분규를 마감하는 것이 옳다.

마침 법원은 총무원이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지난 11일 이의 있다고 판시하고 정화회의측에 대해 청사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송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더욱 장기화 된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추태를 계속할 것인가.

대중들이 외면하고 불교가 망하면 그까짓 총무원 청사를 백번 장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청사를 반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 제도와 종법에 문제가 있다면 종단을 정상화시켜 놓고 개선해도 늦지 않다. 언젠가 처럽 담장을 뚫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 생각만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라고 가르쳐온 사람은 바로 스님들이었다. 부모 자식을 죽인 원수지간도 아닌데 도반들끼리 만나 웃으며 화해의 악수만 하면 될 일이다. 이것만이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보여줄 태도다.

벌써 12월도 중순이다. 이제는 지나간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할 시간이다. 스님들은 제발 이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으로 수행자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범불교 대표자회의 발족

종무정상화 지원…분규 뿌리뽑기운동도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단체대표자회의(임시의장 박광서)가 10일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구성됐다. 이 회의는 6일 범불교도대회에서 사부대중 참여연대회의 구성 결의에 따라 발족됐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조계종포교사단, 대불련총동문회, 능인선원신도회 등 23개 단체 대표자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범불교단체대표자회의는 △종무정상화 지원△대국민 홍보사업 강화 △제2차 범불교대회 준비 등 조직사업 구체화 △종단개혁사업 진행 등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범불교단체대표자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청사를 반환하고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정화개혁회의가 자진해산할 때까지 매일 12시 30분 조계사에서 참회정진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 종무행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면서 "종단분규의 근원적 종식을 위해 중장기적인 개혁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불교단체대표자회는 행사 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방문, 정화개혁회의 호법부 정인스님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종단화합 승가회의 발족

'종도 납득할 제3의 길' 모색키로

조계종 사태 해결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종단화합승가회의가 발족된다.

종단화합승가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법장)는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종단사태를 내부적 법난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선거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향후 활동과 관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종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등 5개항을 전제했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공식발족에 앞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종정월하스님, 원로의원스님, 정화회의, 총무원, 종회,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태해결의 묘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원로, 중진, 교구본사주지, 각급 신행단체장 등을 인적 구성원으로 조직을 갖추어 조만간 공식 발족될 계획이다. 10일 기자회견에는 상임조정위원장 진관스님과 사무처장 도관스님이 참가했다.

진관스님은 "사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태해결방안 찾자"

재가연대 대중토론회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는 1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98년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대중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산해야 할 분규의 역사'를 주제발제한 이경순씨(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모임)는 "4년전 개혁의 의미와 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위해 전 종도의 힘을 결집할 때"라고 말했다. 윤남진씨(94년 범종추 제2기 간사)는 '98년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주제발제에서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이루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범불교연대회의의 구성과 활동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자 기자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

1천5백여명 동참…정부 책임자 해임 촉구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6일 오후2시 광화문 네거리 동화빌딩 앞 광장에서 봉행됐다.

총무원, 중앙종회, 불교바로세우기 범재가연대 등으로 구성된 범불교도대회봉행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대회장 탄성스님과 공동봉행위원장 법등 지선 도법스님, 중앙종회의원등 2백여 스님과 불교바로세우기 범재가불자연대 공동대표 박광서 임동주씨 등 봉행위원과 신도등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11월 30일 종헌종법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결의 사항 적극 봉행 △폭력행위를 방치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촉구 △조속한 시일내에 정화개혁회의의 해산과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청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차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참가자들은 △종단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한다 등의 대회 봉행 3가지 원칙도 채택했다.

대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경과보고, 대회사, 규탄연설,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이어 참여 스님들이 종단사태에 대한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표현하는 연비의식을 봉행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사흥서원으로 대회를 마감한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 제일은행 본점 앞 광장까지 '석가모니불' 정근과 '폭력방조 공권력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회와 관련 또다시 정화회의측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봉행위측의 비폭력원칙에 따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회장소인 광화문 일대와 조계사 인근에는 경찰병력 6천여명이 배치됐다.

임연태 기자



◇6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법당을 향해 삼귀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

조계사와 무관한 법회 장소제공 않기로

'제2정화불사 성취기원 및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대회'가 6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정화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을 비롯 70여명의 정화회의의원, 조계사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1일 새벽 발생한 방화사건의 경과보고, 조계사 신도대표의 '2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글' 낭독,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의 법어 등의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계사 신도들은 대회에서 △우리의 성소와 성전은 우리가 지킨다 △조계사와 관계없는 모든 집회의 조계사내 개최 거부 △대웅전 방화, 덕왕전 파괴를 막지 못한 죄업을 참회키 위해 정진하기로 하는 한편 △고급승용차 타는 스님을 수행자로 여기지 않기 △성소 유린자들은 승단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웅전을 돌며 관음정근을 했으며, 조계사측은 공권력규탄 범불교도 대회측의 조계사 진입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조계사 장애인불자회'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장애인 1백여명이 일주문과 해탈문, 주차장 퇴출로를 막아 시선을 끌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6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열린 대웅전 방화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성소 파괴와 대웅전 방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삼귀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천태종 홈페이지 개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종단 홍보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천태종은 지난 7월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해 최근 1차 작업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천태종 홈페이지는 천태종 총괄소개, 총본사 구인사, 상월원각 대조사, 각종행사와 불사안내, 불자들의 신앙생활, 방명록,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태종은 그래픽 중심으로 꾸며진 현재의 홈페이지 한계에서 벗어나 많은 정보를 알리는 텍스트 자료를 보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소는 http://www. chentae. or.kr 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스님 목사 신부 등 종교유적 합동순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는 14~17일 '98 종교문화유적지 대화 순례'를 실시한다.

경주 불국사, 서울 명동성당, 경기도 제암리교회, 전남 영산성지, 안동 도산서원, 경주 용담정 등 각 종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종교문화 유적지 및 성지를 직접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서 불교, 천주교 등 6대 종단은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순례에는 각 종단 예비·중견성직자, 각 대학 종교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 조계종 분규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제언

오늘 우리 교단의 참담한 상황을 초래한 죄인의 입장에서 먼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또 선량한 불자님들과 국민에게 교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서를 빕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법난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다투어 나섰지만, 이웃을 감싸고 교단을 바로 세우는 일, 즉 정의와 명분을 세우거나 구하는데는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보다 이권이 우선되는 교단의 잘못된 풍토가 날로 악화되면서 급기야는 상대의 잘못을 고친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만연되었습니다. 전자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은 일대로 그르치게 되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는 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져 편가르기를 하거나 반목하는 일이 관행처럼 거듭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면서 이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불신을 받는 안타까운 풍토가 조성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정화'라든가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그 뜻마저 오염되거나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단이나 법난의 당사자들을 모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이번의 법난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여 스스로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보다는 교단과 나라를 먼저 염려하는 상식적인 사고를 회복하여 하루 빨리 혼미에 빠진 교단을 구하고 실망과 충격에 휩싸인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아니 법난 당사자들 스스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죄과를 씻는 일에 겸허히 나서야 합니다.

법난과정에서 극도의 반목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교단의 대란을 수습하겠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단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놓고서도 여전히 이해를 따지거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화염병과 각목을 휘두른다면, 우리 교단은 불자는 물론이요 국민으로 부터도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소임을 맡고자 하는 이는 그 결정권을 교단 구성원들의 신성한 선택에 넘기고 더 이상의 속기에 찌든 아집을 부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단의 현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일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만, 우리 교단이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에 교단이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3자간 합의안 재수용

첫째,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주선으로 마련되었던 수습안을 정화개혁회의와 중앙종회 양측이 다시 수용하여 법난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수습안을 받아들이는데 손익을 따지지 말고, 교단을 혼란케한 잘못을 뉘우치는 입장에서 공심을 가지고 교단의 위상 재정립을 제일 과제로 삼아 총무원장 선거를 조속히 치르자는 것입니다.

향후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출

둘째,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폐단을 막기 위하여 총무원장을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선출,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증정예하가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과열로 인한 소요를 막고 교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단내 재정흐름 통제 및 재정의 공개적 운영

셋째, 각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각종 법인체나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단체 중 살림살이가 공개되지 않거나 재정의 흐름이 통제되지 않는 곳은 조계종뿐이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여 교단의재정을 통제하고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근원인 '어두운 돈'을 본래의 '청정하고 밝은 돈'으로 환원시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교단도 제몫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의 공개와 투명한 운용으로 교단이 맑아질 때 우리 교단은 국민정서를 순화시키고, 국민의 귀의처가 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안중 첫 번째 안은 곧 이행할 수 잇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시일을 갖고 기본틀을 가다듬어야 할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단사태의 시비 당사자들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원만한 합의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원로회의의 인준과 종정예하의 윤허를 얻어 시행한다면, 교단내에 다시는 이번 법난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법난으로 부처님은 물론이요 온 불자와 국민, 국가와 전 인류에게 지은 막대한 죄업을 씻고, 우처함으로 인해 얼어지는 극한 허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하여 교단안정의 초석을 든든히 하는데 모든 종도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또 교단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겠다는 저의 사심없는 제안에 대해 진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1998년) 12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설 조 화 남

■조계종 사태 한달…여기저기 '비틀'

종무행정 이원화 사찰 참배객 급감

11일로 한달을 맞은 조계종 사태. 곳곳에서 종무행정과 각종 사업의 차질, 법회 참여율 저하 등 파장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조계사 맞은 편 천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총무원이 9일부터 일반 종무행정 업무 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정화회의도 10일부터 승적증명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민원업무 창구가 2원화 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 포교당 신도들의 법회 참여율이 많게는 50%까지 격감하는 등 불자들의 자괴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종무행정 마비 총무원이 정상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종무행정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예년의 30% 정도로 줄어 종무행정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 분담금 납부율도 바닥을 맴도는 상황이며 신년 사업설계와 세부지침 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해 조계종 운영의 상당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업무 차질이 가장 심한 곳은 포교원. 11월 22일 제4회 포교사 고시는 시행했으나 28일로 예정됐던 직장직능 신행단체장 연수교육은 치르지 못했다. 11월 24일로 예정됐던 '국방장관 초청 군종장교 파견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매년 실시 해 온 포교대상 시상관련 업무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왜곡 폄하 사례 발표회'와 포교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교위축 각 교구본사를 비롯한 각사찰과 도심포교당은 종단 사태로 인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경제한파와 계절적 영향에다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 탐방객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산되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30%가량 탐방객이 줄어들 것이란게 관람료 사찰들의 예상이다. 신도들의 법회 참석율도 11월 11일과 30일 승려대회 직후에는 50%까지 줄어든 사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도심포교당의 경우 초심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도심포교당을 운영하는 한 스님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새불자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도심포교당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선 군법당도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국방부 호국 원광사, 부산 금련사의 경우 법회 참가 사병과 일반인 불자들이 절반 가량 줄었다는 것.

불사차질 국제구제금융 체제에서 가뜩이나 불사에 차질을 빚어 온 사찰들은 이번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 격감과 관심부족으로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육군항공사령부 비승사와 남양주 철마사의 경우 법당 신축공사 지원금과 화주 동참이 끊겨 불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서판매 감소 서울과 부산 대전 등지의 대규모 불서 전문 서점들에 의하면 독자들의 발길이 지난 한달 동안 눈에 띄게 줄어 들었으며 매출도 30%이상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부끄럽고 아픈 사태를 보고 절망 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를 거듭나게 하기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며 100일 참회기도 또는 10만배 정진을 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목어 스님들의 本地風光

불교의 수행은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초기불교에서는 四雙八輩(四向四果)라 하여 4단계 8과정을 수행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불자는 수행의 4단계인 수다원(須陀洹), 사다함(斯陀含), 아나함(阿那含), 아라한(阿羅漢)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수다원이란 예류(預流)의 음역으로 진리의 길을 발견하여 성스러운 수행자의 무리에 합류함을 뜻한다. 머리를 깎고 승가에 들어가는 첫 출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향(向)은 과(果)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예류향(수다원향)에서 사성제를 명료하게 보는 지혜의 눈을 얻으면 예류과(수다원과)에 이르게 된다.

사다함(일래·一來)은 수행의 경지가 깊어 천계에 태어났다가 한번 더 사람으로 환생하여 번뇌와 삼독을 끊고 해탈할 수 있는 경지다.

아나함(불환·不還)은 욕계에 다시 오지않는 자리이다. 더러움에 물드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속에 몸담고 있어도 오욕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아라한(응공·應供)은 더이상 배울것이 없는 수행의 완성 즉 부처님의 경지이다. 무학과(無學果)라고도 하며 다시는 생사에 유전하지 않는 자리이다.

대승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초기불교의 수행계위에서 따온 수행단계로 '보살 10地'를 제시하고 있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쌓아 부처의 자리에 이르는 10단계의 계위를 말한다.

불교계의 원로 중진스님들을 '큰스님'이라고 부른다. 평소에는 큰스님들의 수행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조계종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더 얼키고 설켜 복잡해지자 불자들은 큰스님들의 법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십년 수행하신 법력으로 그런일도 해결 못하나." "원로스님들 다 뭘 하시나." "큰스님 이미지에 흠집날까 걱정입니다." "이번에 수행밑천 다 들어난 셈입니다. 본지풍광(本地風光)을 그대로 보여준것 아닙니까."

수행급수가 낮은 스님을 예경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님들은 이기회에 자신의 수행계위를 한번쯤 점검해봐야 할 것같다. 이번 조계종 사태에 연관된 스님들은 어느향 어느과에 속할까.

정화회의 총무원 청사 퇴거단행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판결요지

가. 원칙적으로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은 통상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그러한 분쟁의 해결은 종교단체 내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나, 이 사건 분쟁은 조계종 종단의 종헌과 그 하위 규범, 관례 등의 해석에 기하여 그 객관적 해결이 가능하고, 그 분쟁의 양상이 단순한 이념 내지 교리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자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의 필요도 절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충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고래로, 전체 대중이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 내는 불교 고유의 의견수렴방식이 있었고, 조계종 종단 내에서도 위와 같은 유래에 기한 '전국승려대회'의 존재가 초종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다만, 조계종 종단 내에서도 종헌을 최상위법으로한 여러 내부 규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의 개최 내지 그 결의에 대한 초종헌적인 효력 부여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송월주의 총무원장 재출마로 촉발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들로서는 조계종 종단 내에서 종헌 및 선거관련 규정들에 근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가사 송월주가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초종헌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는 그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또한, 조계종 종단에서는 종정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 종헌상 종정에게 총무원장을 해임하거나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관례상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분쟁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윤월하 종정의 교시에 불구하고,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조계종 종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인 정화개혁회의가 조계종의 총무원 청사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송월주도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사실상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조계종 종단의 모든 승려들과 함께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계종 종단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신청인 종단을 대표하던 신청의 송월주는 신청인 종단의 최고지도자인 종정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같은 달 14.자로 개최된 신청인 원로회의가 위 전국승려대회의 해임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송월주 또는 위 송월주에 의하여 임명된 총무원장 권한대행 홍익진은 신청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승현섭 및 홍익진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11. 11.자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는 신청인 종단내에서 전통적으로 초종헌(超宗憲)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온 '전국승려대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에서 위 승현섭을 해임하고, 그에 기하여 원로회의에서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종단의 총무부장이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인데, 위 송월주는 1998. 11. 20.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 홍익진이 신청인 종단의 총무부장으로 재직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종단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그 종지(宗旨)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나. 신청인 종단에는, 종헌상 종단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며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종정 외에 상급 의결기관으로서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원로 비구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와 입법기구이자 의결기구로서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종회가 있으며, 중앙종무 행정기관으로 총무원이 있는데, 총무원의 대표인 총무원장이 신청인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총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어,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게 되는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총무원장의 해임을 위하여는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 후 원로회의의 인준을 얻어야 하고, 한편,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의 제청이 있으면 종정이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라. 1994. 11. 20.경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여 1998. 11. 20.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신청의 송월주는 차기 총무원장 출마를 준비중이었는데, 피신청인 유찬수, 이태운, 이정근 등 신청인 종단 소속 일부 승려들의 위 송월주가 이미 1980.경 신청인 종단 총무원장을 1회 역임한 바 있으므로, 1차에 한하여 총무원장 중임을 허용하는 신청인 종단 종헌에 의하여 위 송월주는 더 이상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마. 그 후 위 송월주는 1980.경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약 6개월만에 타의에 의하여 총무원장직을 사임한 것을 들어 총무원장을 1회 역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무원장 출마를 강행하려 하였고, 1998. 9. 29. 신청인 종단 일부 승려들은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신청인 종단이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신청인 종단의 종정인 신청의 윤월하는 1998. 10. 26. 및 같은 해 11. 6.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는 총무원장 2차 중임을 금한 종헌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임을 밝히면서, 신청인 종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종단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의 교시를 내렸다.

바. 그 후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심하여 지던 중, 피신청인 유찬수, 이태운, 이정근을 포함한 신청인 종단 일부 승려들은 위 종정의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1. 조계사에서 제2정화불사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은 ①위 송월주를 총무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②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일시 유보하며, ③종단의 위기를 수습하고, 신청인 종단의 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한시적 종단 최고기구인 정화개혁회의를 출범시키는 내용 등으로 결의를 한 후 총무원 청사로 사용중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2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무원장 선거는 무산되었다.

사. 그 후 피신청인 유찬수, 이태운, 이정근 등 위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들은 위 결의사항에 따라,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인 의장으로 산청의 채우섭을 선출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 청사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한편, 신청인 종단의 원로회원 일부가 1998. 11. 14.자로 원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종회를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신청인 종단의 종정은 같은 날 신청인 종회의 중앙종회를 해산하였다.

아. 그 후 기존의 총무원측에서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신청인 종단의 종무행정을 총리하는 총무원 청사로서, 피신청인들의 점유로 인하여 사실상 신청인 종단의 종단행정이 마비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차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로의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입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싱당 부분이 손상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한편, 위 송월주의 임기가 같은 달 20.자로 만료됨에도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 종단의 중앙종회는 1998. 11. 16.자로 총무원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임기 만료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거나 후임자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등의 순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위 송월주는 같은 달 19.자로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종단의 총무부장인 홍익진(법명: 도법)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통상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의 원칙상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종교단체 내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과 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질이 일반 시민 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쟁은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기인한 후 현재 기존의 총무원측 혹은 피신청인들측 중 어느 쪽에서 신청인 종단의 대표권을 가지는가에 그 분쟁의 핵심이 귀결되는 것으로서, 신청인 종단의 종헌과 그 하위 규범, 관례 등의 해석에 기하여 그 객관적 해결이 가능하고, 그 분쟁의 양상이 단순한 이념 내지 교리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자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의 필요도 절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은 충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면서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종단의 최고권위자인 종정의 교시에 따라 1998. 11. 11.지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위 전국 승려대회에서 위 송월주 해임 및 신청인 종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출범을 결의하여, 그에 기하여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면서,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사용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위 송월주를 해임하고, 신청인 종단의 모든 권한을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에 부여한 위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에서의 결의가 적법하거나 신청인 종단의 법리상, 관례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의 점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석가모니 부처 재세시부터 대소사의 사안에 대하여 전체 대중이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 내는 '산중공사', '대중공사'로 불리는 불교 고유의 의견수렴방식이 있었고, 신청인 종단 내에서도 위와 같은 유래에 기한 '전국승려대회'의 존재가 초종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다만, 신청인 종단 내에서도 종헌을 최상위법으로 한 여러 내부 규율이 정하여져 있어 다양한 내부 관계를 비교적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내부 규율 등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전국승려대회'의 개최 내지 그 결의에 대한 초종헌적인 효력 부여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종헌에 위배된 것인지의 점을 둘러싸고, 신청인 종단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위 송월주가 그 출마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신청인 종단의 일부 승려들이 이에 반대하여 그 출마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등 위 총무원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고, 만일 위 총무원장 선거가 강행되었더라면 신청인 종단 내부에서 더욱 큰 갈등이 초래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되기는 하나, 위 총무원장 선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종단의 종헌에서 2회 중임 금지를 규정하여 두고 있고, 그 하위 규율로서 1994. 10. 13.자로 제정, 공포된 신청인 종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된 후보의 자격심사를 하도록 하여(동 시행규칙 제13조), 그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고(동 시행규칙 제14호), 당선무효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동 시행규칙 제39조), 피신청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기하여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종헌에 위배되는 것임을 선거절차 전후를 통하여 주장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송월주가 위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되고, 신청인 종단 내부에서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재차 출마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도저히 그에 승복할 수 없다면, 위 송월주의 당선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2차 중임을 금지한 신청인 종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일반 시민 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을 것이므로, 사법기관에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 그렇다면, 위 송월주가 다시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종단 내부의 위와 같은 분쟁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초종헌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1998. 11. 1.자 위 전국승려대회는 그 소집 절차, 과정을 초월한 승려 및 신도들의 참여 가능성, 실제 참여한 승려 및 신도들의 숫자, 그 결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 효력요건을 갖추지

4면 '가처분'으로 계속 ☞

폭력집단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지난 11월 11일 폭력사기집단 정화개혁회의 측 승려 100여 명에 의해 강제점거상태에 놓인 총무원 청사 회복과 중단된 종무행정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 스님)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지법 민사 51부(재판관 신영철)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다 음 -

1.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에서 즉시 퇴거하라.
2. 정화개혁회의는 원고 총무원의 정상업무 일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소송비는 피고(정화개혁회의)가 일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전 종정 월하스님의 권위를 앞세워 폭력적인 방법으로 종권야욕을 채우려던 일부 폭력승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방해왔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사부대중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폭력행위로 종권을 찬탈하려는 기도에 대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며, 아무런 명분없이 청사를 점거하고 있던 정화개혁회의측이 즉각적으로 청사를 반환하고 종도 앞에 참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당국 또한 엄정하고 조속한 법 집행을 수행할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이 정상화되기 위한 후속작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매듭짓고 종헌종법에 따라 선출될 차기 총무원 집행부에 안정된 종단을 인계인수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불기 2542년 1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 법

교차로 출가



종립학교 학생·학부모 수계

녹원 동국대이사장은 1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대부중,고와 명성여중, 여고등 종립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합동수계대법회를 가졌다.



실직자 기금마련 법회서 법문

철웅 파계사 성전암 조실은 15일 부산 대승프라임 빌딩 9층에서 열린 성불사 초청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법회에서 법문했다.



평택 북부 경로의원 개원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은 7일 평택시 북부경로의원을 개원, 본격적인 노인 무료진료에 나섰다. 스님은 이날 노인들에게 떡과 선물을 증정했다.



합창제 수익금 실직가정에

성광 화계사 주지는 10일 노원구민회관에서 화계사 합창단 창단 8주년 기념 이웃돕기 불교합창제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실직자 및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성금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IMF 극복 법회서 강연

성각 망운암 주지는 14일 부산 불교방송 주최로 열린 IMF 극복 특별법회에서 탤런트 전원주씨와 함께 강연했다.



구산대선사 15주기 추모재

현지 송광사 주지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대웅보전에서 구산대선사 제1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소년소녀가장의 밤' 행사

종수 카루나모임 명예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소년소녀가장의 밤을 11일 오후 5시 경주 콩코드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졌다.



삼화불교대 신행실수 교육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9일부터 2박3일간 발우공양예법, 한국불교정신, 유아포교방법론, 철야정진 등 신행실수 교육을 실시한다.(02)511-2026



생활보호대상자에 송년선물

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4일 태평양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송년선물을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덕수 부산삼광사 주지는 1일 지관전에서 불교방송 및 대한불자가수회와 공동으로 생방송 '나누는 기쁨, 이웃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가졌다.

길상사 개원 1돌…새체제 갖춰
주지 지관·선원장 지묵스님

주말수련회 상설·매월 포살법회



◇ 길상사 개원 한돌을 맞아 새로 부임한 주지 지관스님(사진 왼쪽)과 선원장 지묵스님.

"명실상부한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회주스님의 뜻에 따라 목탁소리 끊이지 않는 도심속 전통수행사찰로서의 내면 갖추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일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겸한 취임식을 가진 길상사(회주 법정) 신임 주지 지관스님의 말이다.

이날 길상사 선원장에 취임한 지묵스님은 "내년 1월 중순부터 1박2일 일정의 주말 수련회를 상설화하고, 수련회를 회향할 때마다 수계식을 통해 참불자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길상사의 모든 법회의식을 한글로 진행해 불자들이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덕주 김영한보살로부터 무주상 보시를 받아 창건된 길상사는 그동안 도량정비와 신행단체 구성 등 바쁜 1년을 보냈다. 이제 회주스님의 당초 뜻에 따라 맑고향기롭게 지원사찰로써의 여법한 길상사 운영을 위해 소법당 옆에 있던 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의 사무실을 길상사 사무실내로 이전하고, 〈맑고향기롭게〉 회지에 길상사의 전반적인 운영소식도 담는다.

지관스님은 "회주스님께서 봄가을 2차례 보살계수계법회와 매짝수달 세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직접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서 "매월 자자포살법회도 열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불자들 스스로 참회하며 최소한의 계율과 도덕을 지켜나가는 맑고향기로운 불자들의 도량을 일궈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산악인 박영석씨
마나슬루봉 등정



동국대 정각원에서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릴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인 동국대 산악부원 박영석씨가 6일 히말라야 마나슬루봉(8,511m) 등정에 성공했다. 히말라야 8천미터급 고봉 14좌 등정에 도전하고 있는 박씨는 이번 등반을 합쳐 모두 10개봉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시민선방 운영·화장문화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 초대 후원회장 김성호씨



"내년부터 후원회 정관 제정과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회원들의 신행활동도 본격적으로 궤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서울 뉴월드호텔에서 열린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서 94년 창립이후 회장없이 활동해 온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김성호 회장(59·불교미술전시관 관장)은 부회장단 및 각 시·도별 지역장을 선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서울 강남에 들어서는 선사상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민선방을 상설할 계획, 또 김회장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화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

☞3면 '가처분'서 계속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전국승려대회가 위 송월주의 해임과 초종헌적 권한을 가지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성립에 관하여 한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종단의 종헌은 '종단 비상시'에 한하여 원로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분쟁을 둘러싼 사태가 '종단 비상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신청인 종단의 중앙종회를 해산한 원로회의의 결의와 종정의 지시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한편, 피신청인들은 위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는 신청인 종단의 최고 권위자인 종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청인 종단에서는 종정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 종단의 종헌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 종정의 권한에 종정 해임이나, 전국승려대회의 소집권과 같은 구체적 권한은 포함되지 않고, 신청인 종단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종정의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에 기한 이 사건 분쟁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종정의 지시에 불구하고, 위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원로회의의 결의 역시 위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 원로회의의 결의를 이유로 초종헌적 권한을 가지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출범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신청인 종단의 총무집행권을 가지던 기존의 총무원측을 배제한 채 피신청인들이 총무원 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위 흥익진이 대표하는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점유, 사용은 폭력적인 방법에 기한 것이었고, 피신청인들의 위 건물 점거로 인하여 종무행정을 마비당한 신청인 종단측에서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차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많은 폭력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 및 재산적 손실과 신청인 종단의 업무마비로 인한 손실도 중대한 것이지만, 어려운 국가적 현실하에서 종교에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상당수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신청인 종단의 권위 실추는 더욱 중대하고 회복하기 힘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위 송월주도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사실상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신청인 종단 승려 모두는 이제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지주로서, 또한 안식처로서의 신청인 종단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성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20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교차로 재가

예술의 전당서 '고은 시의 밤'



고은 시인은 북한기행을 하며 쓴 시 낭송과 국악 가요공연이 함께 하는 '고은 시의 밤-산하여, 하나의 산하여' 행사를 16, 1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갖는다.

98 영화배우 송년의 밤 가져



한갑진 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은 16일 하이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의 출판 기념회 및 98 영화배우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관련기사 8면〉

방송개혁위원에 위촉



성낙승 불교방송사장은 8일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개혁위원회는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경주관광진흥협의회장에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인 관광업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인세지불방법' 주제 출판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인세 지불방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5회 출판포럼을 개최한다.

98 최우수 예술인에 선정





소설가 이길융씨(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사진 왼쪽)와 연출가 이윤택씨가 한국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하는 98최우수예술인에 선정, 12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국제포교사회 송년법회



양장운 조계종국제포교사회장은 16일 오후 7시 연등불교국제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불심홍법원 차기 이사장에



하도명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은 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유임됐다.

통일교육 공로 통일장관 표창



이하전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은 중고등학생과 군장병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21일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본란은 98년 11월 분열된 조계종의 모습으로 인해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정법 수호의 발판으로 삼고자 현대불교 신문에서 마련한 의견 광고지면입니다.

▶불교발전을 위한 의견 광고접수

TEL 02)737-8881
732-1522
FAX 02)737-0697

聖스러운 곳에서
혐오스러운 싸움판.
-정법사 밀본-

지금 시국이 어느땐데
쌈박질이냐.
법당에서 기도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정빈거사-

스님들 싸움에 스님들
끼리 해결하지 신도들을
부추겨서 동원하지 말라
-김진여행-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폭력적 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려고 하는 모습은 마구니의 모습이다.
-정암사 무여-

왜 이러십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태을암 흥법-

존경하는 원로 대덕스님
정법구현과 종단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십시오.
-송림사 상덕-

시내에 나가기가
두렵다.
사람들 눈길이 따가워서
-삼오스님-

그만들 싸움하고
도나 닦아라.
-절에 앉 다니는 사람-

"願" 수행풍토
화합도량
-서광사 응관-

출가 본분사를
망각해서는 않됩니다.
-길상사 종인-

종단 돌아가는 게 답답한 정도가 아니다.
속이 터진다.
-보원스님-

聖스러운 곳에서
협오스러운 싸움판.
조계종 분규의 당사자는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작금의 사태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문관 결제를 하십시오.
-청정암 성운-

말세에 양의 바탕이 법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없이 밤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첨을 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니 조계종이여 어디로 가려는가?
-정혜사 성지-

위로 도를 구현 아래로 중생을 제도합시다
-해련사 지욱-

언론을 통해 조계종 분규사태 관련보도를 접하는 불자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종권 지향세력은 아는가
-관음사 반여거사-

참다운 개혁은 양쪽다 이땅에서 사라져 주는 것
-반야사 수인-

세속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이전투구
-봉국사 도신-

드디어 조계종에도
총무원장 세습제
도입되다.
-석지봉-

부처님, 부처님 계신다면 지가 옳다고 하는 머리만 중인 가짜들은 당장 지옥문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지일합장-

道는
어디에 . . .
-원봉 거사-

본사 주지 모임의 결의에 지지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수습하여 주십시오.
-혜인정사 서봉-

불·법 이보전에 봉수 정례하옵고 속히 삼보를 회복하게 하소서.
-해국사 김정우-

사년 노력한게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부산 포교당스님-

잿밥에 눈멀어 돌아올 과보를 잊고 있는가?
어찌 감당하려는가
-현오거사-

우리 모임에선

KBS불자회장 박영석씨



KBS불자회 신임 회장에 박영석 부장(전 산정보실 · 사진)이 최근 법회에서 선출됐다. 박회장은 KBS MBC SBS BBS btn 입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회장도 겸임하게 된다.

박영석회장은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 증진에 초점을 두겠다"며 "공식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회원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천불동 99년 시샵선거

천리안불교동호회 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심준엽)는 '99년도 동호회를 운영할 시샵 선거를 치른다. 1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방(BUD.55)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에는 이경재씨(대구구도회 회원, 95년 천리안불동 운영위원)가 단독출마하여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금강산악회 창립 5돌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김대원)는 6일 포천 폭포가든에서 최혜명법사와 2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5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서울구치소 백양사 참배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임장수)는 11월22일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장성 백양사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사찰순례에서 회원들은 토론회를 갖고 "경제가 어렵고 종단이 어려울때 일수록 불성을 다지는 불자로 거듭나자" 의견을 모으고 정진의 시간을 가졌다.

직장직능단체 송년법회 잇달아

경제난 딛고 새도약 모색

올 30% 해체 시련…포교방법등 논의

'좋은 마무리는 좋은 시작을 기약해준다.'

경제난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직장 · 직능단체들이 활기찬 도약을 기약하는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올 한해 직장직능단체는 30%가 해체되고, 227곳중 82개 단체가 법회등 기본적인 신행활동의 중단을 겪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올해 직장 · 직능단체들의 송년법회나 모임은 더욱 건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서울구치소 임장수회장은 "송년모임을 IMF식으로 간단하게 23일 개최할 계획이다"며 회원들과 재소자 교화 포교방안 등을 수립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의 여파가 거셌던 금융단불자연합회 하용이 회장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자회 명맥을 이어가며 어려움을 넘겼다"며 '새해에는 합병되는 은행불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16일 운영위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25일 타워호텔에서 총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명칭 변경과 사단법인화로 자립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는 20일 롯데호텔 36층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에는 그동안 후원해준 한의원, 제약회사와 포교원, 대불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보은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불자약사보리회는 내년에도 매달 둘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행사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충북예비역불자회 17일, 청주불교실업인회 18일, 금융결제원불자회 23일, 전국교정인불자연합 서울 · 경기지부 송년모임은 26일 음식점 만포에서 열린다. 또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김대원)는 20일 남해 보리암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찰 순례법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불자회와 자유민주연합불자회는 11일 길상사와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각각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불회 봉선사서 첫 수련회

50여명 참석…수계식도

청와대불자회(회장 김태동 정책기획수석비서관)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에서 회원들의 신심함양과 정법구현을 위한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창립된 2기 청와대불자회가 처음 갖는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50여명의 회원들은 수계식에서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을 계사로 오계를 받았다.

월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들은 번뇌와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극복하여 마음을 개오해야 한다"며 "마음자리를 밝혀서 생활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원들은 화암스님(봉선사 교무국장)에게 사찰예절과 참선강의를 듣고 발우공양 의식, 찬불가등 습의와 아침 · 저녁으로 108배 정진하며 신심을 다졌다.

김태동회장은 "이번 수련법회를 통해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체득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강의와 참선을 통한 정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불자회는 1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98년 송년법회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김원우 기자



◇2기 청와대불자회는 첫 수련회 및 수계법회를 남양주 봉선사에서 개최했다.



만봉스님 불화전 성황

수익금 수재민 월동비 전달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월동비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가 주관한 '만봉스님 불화전시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됐다〈사진〉.

'98 은관문화훈장 수상기념 전시회도 겸한 이번 행사에는 인간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만봉스님의 불화 '영산회상도' '관음도' '오백나한도' '극락도' '십육나한병풍' '18나한 가리기' 등 77점이 전시됐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수해기금과 봉원사 명부전 건립 등 발전기금으로 쓰여진다. 문의 (02)232-6948, 732-6458

이에앞서 만봉스님 불화전시회 개막 행사가 9일 오전 11시 동덕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혜륜스님(前 봉원사주지) 손현수회장(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탐방 법륜회

장애인불자 신행 '도우미'

93년 창립…차량지원봉사 매월 무료 운전교육실시 무의탁노인 효도관광도



◇법륜회는 매년 장애인을 회원택시에 태워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차량으로 성지순례와 운전교육, 무의탁노인돕기, 효도관광 실시하는 법륜회는 장애인들에게 불법의 문에 닿게 해주는 생명줄이 되고 있다.

서울 광림사 연화복지원 장애인들에게 차량 자원봉사를 하며 신심을 기르고 있는 법륜회(회장 윤승봉)는 서울 송파구 광림사 장애인복지원 행사에 도움주던 6명의 운전불자들이 모여 93년 창립했다. 현재 정회원 13명과 부회원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륜회는 10월 22일 양평 용문사에서 성지순례행사를 가졌다. 15명의 청각, 중증지체장애인을 회원택시 10여대에 태워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며 매년 1회 정기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또 광림사 청각장애인들에게 무료운전교육도 실시중이다. 한달에 2개조로 나눠 회원들이 돌아가며 쉬는 날을 이용해 운전교육 자원봉사를 펼친다.

업무중에도 장애인들의 연락이 오면 즉각 달려가는 긴급 이동자원봉사활동 체제를 갖춘 법륜회는 차량도 달리는 법당으로 꾸며 교계신문과 잡지등 포교지를 비치 필요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포교를 위해 김철수총무등 2명은 올해 동산불교대학에 입학 공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음의 집을 방문하여 무의탁노인돕기와 효도관광을 통해 효정신을 실천한다.

회원들도 복지와 불교포교기금마련을 위해 월 1만원의 정기회비 납부와 염주주머니 보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륜회의 염주주머니 모으기운동은 손님이 팁으로 주는 돈과 거스름돈을 모아 청정보시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에서 하루 1천원씩 자동적으로 넣고 일일찻집도 개최한다. 후원문의 (0344)967-2628, 011-760-3776.

윤승봉회장은 "99년도에는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보자는 생각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대한불교 환경보호련 창립

사단법인 대한불교환경보호연합회는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견지동 서흥빌딩 11층 사무실에서 창립 · 개원식을 개최했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창립된 환경보호련은 이사장에 김보화, 회장에 남학현씨, 원장에 일공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同회는 △전국 문화재사찰에서 격월 환경캠페인 △입야 12만평에 납골당 · 화장장 건립 △유 · 무료 양로원 및 유아원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BBS 예술단 창단음악회

대구불교방송예술단 창단법회 및 기념음악회가 9일 오후2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구불교방송 개국 2주년 특별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예술단 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음악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전암조실 철웅스님, 은해사주지 법타스님, 대구사원련회장 원명스님,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 경남 연등회 무료급식 보고회

새정치국민회의 부산, 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9일 코모도호텔에서 IMF 실직노숙자 무료급식 경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하종 현대외식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등회는 후원금과 연등회 부담금 총 3천7백여만원이 무료급식비용으로 지출됐고 범어사 삼광사 한마음선원 등 9개 사찰과 3곳의 신행단체에서 후원단체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신수회 군포교기금마련 '하루찻집'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수상자들의 모임인 신수회(회장 이영자)는 군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찻집'을 5일 한마음불교사랑방에서 열었다. 5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1일 찻집'은 국악공연과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이 불자들에게 그림을 보시하기도 했다. 신수회는 수익금 1백64만7천원 전액을 본사에 군포교를 위한 신문법보시 기금으로 기탁했다.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포교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

■언 제 : 불기 2543(1999)년 1월 1일(금)
오후 1시~ 3일(일) 12시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법주사 입구)

■동 참 금 : 5만원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 자료집, 기념품 지급)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신청방법 : 미리 접수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미리 접수하시면 · 접수시 훨씬 편리합니다. · 강의 「찬불가」 내용 수록 테이프 증정

■신청기간 : 12월 7일~23일까지

■보내실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대불어(조중환)

■접수담당 : 정 희 순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문 의 : 본회사무국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각 지역 문의처

서 울 (02)433-1506~7 선재마을 지선 사무국장
부 산 (051)853-5486~7 부산지구(보현선원) 이유경
광 주 (06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대전·충남 (042)633-1141 법등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경 남 (0551)282-7201 경남지구 사무국 박영희
대 구 (016)505-3143 김형중
제 주 (064)702-1345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 이사)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이 땅 곳곳에서 미래의 불국토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으시는 지도자님들의 묵묵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3년을 한결같이 어린이지도자의 연수회를 마련해 온 우리 회에서는 드높은 세계로 노력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지도자를 위한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삶을 일깨우고, 함께 하는 도반으로서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1월 푸르른 날

주 요 연 수 내 용	강 사	비 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 21세기 새 시대를 여는 불교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주인 - 지도자들을 위한 부처님 말씀	장 휘 옥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너도 나도 하나되어!	윤 재 섭	한국여가협회대구연구소장 안동과학대 가정복지학과 전임교수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혜담스님	각화사 주지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	김 정 민	국악인, 영화「휘모리」주연 국악예고, 국회, 각 대학강연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	심산스님 덕진스님	본회 이사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지욱스님	불국사 강주
부처님 당신을 찬탄합니다.	정 유 탁	풍경소리
신나는 모닥불 놀이	박 철 수	도레미이벤트 대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 포교	철오스님	본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 재 정관 ■부총재 혜총 ■회 장 철오 ■상임부회장 운성
■이 사 영조 덕진 설봉 해관 원정 심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 일동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다가 '거지'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왕따'로 찍혀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겨울을 이겨낼 아무런 준비도 없는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은 유난히도 춥다는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태산이다.

해마다 한해가 저물어갈 때 쯤이면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자는 말을 듣게 된다. 어려웠던 한해인만큼 올해처럼 이런 말이 실감나게 들린 적도 없다. 불우한 이웃에 대해 늘상의 관심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다소나마 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값진 일이다.

나눔과 베품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나눔과 베품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보시"

▨설사 신에게 백천번 기도하고 모든 외도에게 공양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베푼 공덕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푼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잡아함경〉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福田)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우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우바새계경〉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 뉘우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내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별보시경〉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 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함 시하득대령경〉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같이 한다. 〈열반경〉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모이기도 전에 수재, 화재 혹은 관청이나 도둑의 약탈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백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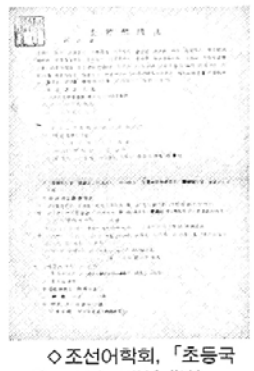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갚음을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잡아함경〉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증일아함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스님등 강연

- 1945년 12월7일(금)



◇조선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한글 敎授 指針」.

오늘 오전에는 한글 가로쓰기 연습을 했다. 각기 이름을 칠판에 나와 쓰게 하고 교정을 해주었다. 오후에는 교수법(敎授法)을 강습시켰다. 이번 강습을 마치고 난 후 다른 곳에서 한글을 강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전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만홍 스님을 연사로 이야기를 들었다. 해방의 역작용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뛰어넘자는,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한 말이였다. 저녁에는 이상순스님(서옹)이 이야기를 했다. 불교는 유심(唯心)도 아니고 유물(唯物)도 아니고, 이것을 초월한 무심(無心)이라는 요지였다.

수강생 사은회

- 1945년 12월9일(일)

오늘은 강습회를 끝마치는 날이다. 일요일이지만 강습에 대한 감상문을 짓게 했다. 오후에는 감상문을 각기 낭독하여 발표케 하였다. 또 한자(漢字) 폐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강습회를 마쳤다.

저녁 무렵,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큰 방으로 갔다. 방 가운데 큰 상이 차려져 있고 강습생들이 모여 있었다. 강습생들이 회비를 모아 '사은회(謝恩會)'를 마련했다고 한다. 두 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밤낮 어울리느라 정이 들었기 때문일까. 모두들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다. 강습생 김흥기의 멋들어진 춤과 미처 몰랐던 이만홍 스님의 소리가 흥겨웠다. 나도 어울려 '독립행진곡'을 불렀다.

강습회 졸업식

- 1945년 12월10일(월)

아침에 향적전(香積殿)에 강습생을 모아놓고 졸업식 준비를 하고서, 10시30분쯤 대웅전 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식은 '마침증서' 수여, 송만암 스님의 훈사(訓辭), 내빈 축사로 끝났다.

저녁에 이만홍 스님과 몇몇 스님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한 스님이 약소해서 부끄럽다며 봉투를 내놓았다. 사례비 1천원과 여비 2백원이 들어있었다. 뜻밖의 일이라 계속 사양을 하다가 부득이 받게 되었다.

백양사에서의 마지막 날

- 1945년 12월11일(화)

새벽 일찍 잠이 깨었다. 다시 잠이 들지 않아 불을 켜고 일기를 쓰고 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집으로 떠난다. 한글을 강습하기 위해 왔지만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배운 것이 더 많다.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을 뿐아니라 스님들과 강습생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한글보급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끝〉

[후기] 해방직후,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일제하에서 실종되었던 민족성의 복원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어 회복을 위해 전개됐던 국어강습회에 관한 보고나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일기가 당시의 모습을 알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당시의 기록을 들추어 정서(正書)하면서 뜻조차 짐작하지 못할 어휘가 많아 곤란을 겪었다. 불과 반세기인데 시대적 격차인지, 아니면 퇴고하지 않은 일기의 속성인지 모르겠다.

독자의 소리

조계종사태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전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귀의이보' 하겠다는데…

타종교인 보기 민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이라는 권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불자들의 생각과 같이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하고 마음을 달래지만, 분노심은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불자들의 심정도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내분이 처음도 아니고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어찌 스님들을 존경할 수 있으며, 우리 종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분을 일으키는 승려들이 소수라면 그래도 다행일텐데 저는 소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과 총무원장 및 원로회의 의장 등의 스님들이 이 싸움의 핵심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 종단 전체가 썩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참선에 몰두하고 계시는 다수의 스님들은 깨끗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스님들이 계실지 모르나, 참선하거나 방관만 하고 계시는 스님들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참선이며, 누구를 위한 참선입니까?

제 주위의 불자들이 앞으로는 "귀의삼보는 못하겠고, 스님에게 귀의하는 것을 뺀 '귀의이보'만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불자들은 사찰을 찾지 않을 것이며 '무사찰주의(無寺刹主義)'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여러분, 제발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마시고, 세계인들의 조소꺼리가 되지 마시며, 불교신도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병조〈경북대의대 교수, 의·치대 불교법우회장〉

분규 장기화 우려 원로스님들 중재 절실

한 일간신문은 조계종사태를 보도하며, 총무원청사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장기화 되면 교구본사를 비롯해 주요 사찰의 싸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기사를 보며 10년 전 봉은사, 그보다 오래인 신흥사 사건이 떠올랐다. 사람의 목숨까지 잃었던 끔찍한 일이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 다툼의 당사자가 아닐텐데, 다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특히 원로스님들이 모여야 한다. 한자리에 모여 몇 날이 걸리든 조계종사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처가 클수록 그 치유도 힘이 들고 후유증도 크다. 유승근〈인천시 계양동〉

스님들 대하기 불편 절에 가고싶지 않다

10여년 전 직장 선배님댁 피아노 위에 뒹구는 부처님상을 얻어다 집안에 봉안하여 귀의처로 삼고 있다. 새벽 4시에 카세트에서 도량석이 흘러나오면 부처님전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올리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깨워 아침공부를 시작하는 시각도 도량석으로 시작한다.

나는 우리 집 부처님으로 만족한다. 모든 스님들이 조계종사태를 일으킨 사람들과 같지 않겠지만, 한동안은 스님들 대하기가 편치 않을 것 같다. 대연〈daeyun1@cheju.cheju.ac.kr〉

재가불자들이 오히려 스님걱정 해야할 처지

지금 조계종을 보면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릴 때 출가해서 사회의 운영원리 같은 것을 모른다, 승브라는 떠받들어짐에 기고만장해졌다.

물론 스님들 가운데는 초발심의 정신을 굳게 붙잡고 선방 문고리를 놓지 않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두문불출 자신의 맡은 바 역할만 묵묵히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스님들을 평가해서 자질이 떨어지면 내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하지 않으면 재가불자들이 해야 한다. 이미 스님들은 재가불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오히려 재가불자가 스님들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스님들은 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깨달음을 사회화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을 위한 첫 발이라도 내딛어야 한다. 유마거사께서는 삭발염의하는 것이 출가가 아니며, 산중에 있는 것이 출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민선
〈webmaster@budnews.net〉

6일 양측 규탄대회 장애인동원에 실망

조계종사태와 관련, 6일 오후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범불교대회가 있었다. 같은 시각 조계사에서는 제2정화불사 성취기원 및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대회가 열렸다. 양측의 집회를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화 규탄대회가 개최된 조계사 각 입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눈에 띄었다. 범불교도대회 참석자들이 설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밀치고 조계사로 들어오겠냐는 속셈이 깔려 있는 듯하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할 스님들이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면 비겁한 행동이다.

이와 함께 범불교대회에서 뿌려진 무슨 계보도 같은 유인물도 실망스럽다.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싸움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서로 헐뜯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머지 않아 조계종사태는 마무리되리라 본다. 그때는 모두 함께 부처님 일을 할 도반이다. 제거해야 할 적처럼 몰아부치는 식의 양상을 그만 보여주길 바란다.
김선정〈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추한싸움 보도 줄이고 보살행 지면 늘려야

천주교는 신자배가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교인구의 18%가 천주교신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천주교신자 비율은 9%. 세계평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성공회에서는 자선남비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상을 맑히는 종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불교는 무엇하고 있나. 10년 전, 20년 전 했던 싸움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싸움은 스님들 가운데 일부가 하고 있지만, 그 파장은 불교 전체에 미친다. 아니 외국언론까지 보도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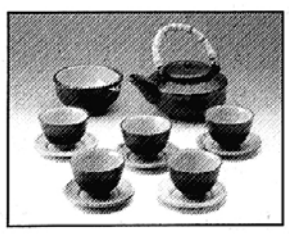
언론에 당부하고 싶다. 대다수 스님들과 불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추한 싸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많다. 어려운 중생들의 손과 발이 되고, 빛이 되는 보살들이 많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더욱 많은 지면이 쓰여져야 한다.
김미숙〈강원도 영월〉

초의선사 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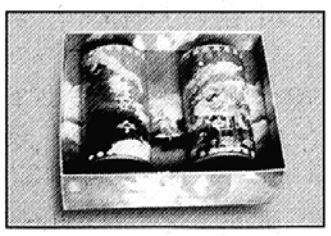
조성 불사 동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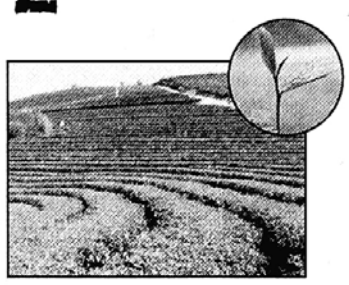
초의문화재단 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현창사업
에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



초의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동참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 2통(5~6만원 상당)]
문수차 · 보현차를
동참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艸衣禪院長 釋龍雲 合掌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 02-732-2317
팩스 : 02-732-2319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국민은행 : 006-01-0452-791
농협 : 053-01-193314
우체국 : 010579-0026125
예금주 전중석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께서는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艸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순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7,143) 유허비 건립 (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각 건립 : 20평(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緯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월동준비 서두를때"

노후전기선-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소화기-물탱크 비치등 안전점검

화재가 나기 쉬운 겨울,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사찰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은 화재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주시청 등 담당 시·군청이 최근들어 목조문화재에 대한 겨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화기의 미비 △노후 전기배선으로 인한 누전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찰의 경우 연등을 다는 전선 등을 규격선이 아닌 비닐선을 쓰는 곳이 종종 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의 보고 경주시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3백94점 가운데 불국사 등 중요한 목조건물 2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표암등 세 곳의 문화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불국사의 경우 소화기의 부족과 물탱크의 미비함이 지적돼 보완이 요구됐다.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행하는 안전점검은 연초에 총제적으로 조사한 후 동산문화재 도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총 6백37점의 문화재 가운데 목조문화재 5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기도청 문화재계 김소천씨는 "사시사철 연등을 달고 있는 사찰의 경우 연등을 달기 위해 전선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불량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어 규격선이 아닌 비닐선의 교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청은 내소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45곳과 동고사 등 도지정문화재 1백56곳 등 총 2백1곳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검사 결과 비닐코드선과 누전차단기 교체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떠올랐다. 마곡사 대웅보전, 수덕사 대웅보전 등을 조사한 공주시청, 목조문화재 11곳을 점검한 광주시청, 문화재 3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서산시청 등도 소화기 비치 상태 등 화재예방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에 대한 겨울철 안전점검은 화재예방 차원에서 관청과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수는 문화재 보유 및 관리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조창현학예사는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불국사처럼 재정이 탄탄하고 기술자들도 있어 보수의 능력이 있는 곳은 괜찮지만 재정이 미약한 곳은 언제 보수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안전점검 후 보수 처리는 국가 재정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불심시심 〈154〉

몸이 반공에 솟은 듯

御風千仞上 (어풍천인상)	천 길 위에서 바람을 타니
身在半天中 (신재반천중)	몸은 반공에 솟은 듯
鳥嶼變碁布 (조서변기포)	섬들은 바둑판으로 펼쳤고
村家蓮藕通 (촌가련예통)	촌집은 연꽃 길로 통했네
秧承宵雨嫩 (앙승소우눈)	밤비를 맞아 연해진 새싹
帆借夕陽紅 (범차석양홍)	돛은 석양빛 빌려 붉었다
未了相酬句 (미료상수구)	아직 주고 받을 시 못 마쳤는데
忽鳴上界鍾 (홀명상계종)	갑자기 산 위의 종이 울리네.

혜즙대사의 시이다. 범영봉에 올라(登泛瀛峰) 지은 시이다. 건물을 투시해 보는 그림을 조감도라 한다. 마치 새가 공중에 떠서 내려다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시는 자연의 조감도이다. 바람을 조절하여 천길 산정을 올랐다. 내 육신은 이미 새가 된 것이다. 비록 산마루의 한 점의 정상이지만, 허공에 솟은 기분이다.

내려다 보이는 저 끝없는 바다, 여기 저기 떠있는 섬들은 한 점 두 점 아무렇게나 놓인 바둑알이다. 조물주의 바둑내기인가. 다시 마을로 시선을 돌리면, 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집들이 마치 연못에 떠있는 연꽃과 같다. 초가집이 연꽃으로 통했다 했다. 이미 온 마을이 불국정토로 변한 느낌이다.

파릇파릇 자라는 새싹은 간밤의 비를 받아 더욱 부드러이 자라고 있다. 이 경지를 '비를 받아 연하다(承雨嫩)' 하였다. 한자로서의 시구는 그리 쉬운 수법이 아니다. 시인의 글자 고름의 높은 솜씨라 해야겠다. 저녁 햇빛에 반사되어 붉어진 돛을, 저 석양빛을 빌려서 붉다 하였다.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돛 자신이 능동적으로 빌려왔다. 시인의, 작시의 자신감이다. 산재된 자연을 그저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재들을 찾아나서서 내게로 유인하는 적극적 자세이다.

시인은 이러한 경관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고 떠오른 시상은 한 편의 구성물로 짜내야 한다. 그것도 수작이라는 주고 받음의 대상이 있을 때에는 더욱 흥겹다. 그러나 시의 수작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녁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순간이다. 대사에게는 수작이 끝날 날은 없다. 그 수작이 다름 아닌 자연 그 자체이기에.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96년 발견돼 2년여의 보존처리 끝에 공개된 금동사리함의 지국천왕. 선한 이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국토를 수호하는 외호신.

감은사지 사리함 동편부재
2년여 보존처리 끝에 '공개'

96년 감은사지 동탑 3층탑신 윗면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사리외함의 동편부재에 새겨진 금강저를 쥐고 악귀를 밟고 있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이 2년여의 보존처리 끝에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한 사리함에 새겨진 사천왕은 전체적으로 허리는 가늘고 몸을 비트는 등 생동감과 유연성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도금 위에 눈썹과 수염이 그려져 있다. 96년 발굴 유물 가운데 금동사리외함 동편부재 외에 금동사리기 내부장식 부재(승상, 사천왕상, 사자상, 용상, 천개장식), 금동불상, 청동방울 등의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선보였다. 금동사리함은 금도금, 주물, 돋을새김, 투조기법, 납알기법 등 금속공예 기법이 총 망라된 7세기말 통일신라 공예기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불교조각사,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나머지 유물은 앞으로 2~3년간의 보존처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받은 최진숙씨

"불교음악 발전에 도움됐으면"



올해 '반영규씨 고희기념음악회' '불광사찬불가 발표회' 등 불교계의 여러 음악회에 등참한 불자 국악인 최진숙씨(28)가 10일 문화관광부가 시상하는 '9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올해 활약이 두드러진 문화예술계 각분야의 젊은이들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8명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선정 시상하는 것. '전통예술' 분야가 올해 따로 생겨 최씨로서는 더욱 큰 영광이 됐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관소리를 해온 최진숙씨는 올해 2월 6시간짜리 완판 장막창극 춘향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KBS가 주최한 서울국악대경연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내일의 국악계를 짊어지고 갈 샛별.

"앞으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경력을 쌓고 연기력도 키워 만능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닿는대로 불교음악회에도 많이 참가하고 찬불가 CD도 내고자 합니다." 29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자선 리사이틀을 갖는 최진숙씨는 틈만 나면 절을 찾아 마음을 추스린다고.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전통등만들기 교실

한민족문화원, 15일부터

북등, 물고기등, 용등, 수박등…. 불교 상징물이나 친근한 동 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전통등은 그 자체가 독특한 불교문화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초파일부터 일반에 선보인 전통등은 올 초파일에는 제등행렬 참가는 물론 40여종의 전통등이 강남 봉은사에서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등 만드는 방법을 배워 내년 초파일에는 우리 사찰에도 장엄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전통등 만들기 교실이 15일부터 3개월 과정(매주 화 목 오후 2시 7시)으로 종로구 인사동 전통등 전승공방에 개설된다. 한민족문화원(원장 홍무흠·구 한국불교문화원)이 주최하는 전통등만들기 교실은 전통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여는 전통문화체험의 자리로 등역사의 현대적 의미, 대나무 다루기, 수박등 만들기, 창작등 만들기 등 멋스러운 전통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강습비 9만원. (02)723-0306

건칠지불 통도사에 기증



◇상기호씨가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에게 건칠지불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2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상기호씨가 수상작 건칠지불을 11월30일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제작자 상기호씨는 "건칠지불이 갖은 잡음 속에서도 당당히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며 기증의사를 밝혔다.

건칠지불은 한지 모시 삼베를 혼합해 뼈대를 만들고 생옻칠을 건조시키면서 여러차례 반복해 만드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성행하다 자취를 감춘 기법이다.

문화 단신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

제2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이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조주연씨의 한글서예 '통일기원'을 비롯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등 각 부문별 입상작 총 380여점이 전시된다.

진주사암 불교음악제

진주불교회관이 주최하고 진주시사암연합회가 후원하는 제5회 불교음악제가 16일 오후 6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에는 도신·정률 스님, 승무에 임이조씨, 호국사 연화사 월경사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0591)747-0108

찬불동요 창작집 7집

좋은 벗 풍경소리는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집 제7집을 펴냈다. '눈속의 매화(정관스님 사 최미선 곡)' '아기송아지(운문스님 사 유익상 곡)' '소꼽장난(대엽스님 사 이종만 곡)' 등 16곡이 들어있다. (02)242-2567

공예대전 발전 세미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승공예대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2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년 연속 전승공예대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전통공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윤용이교수(원광대)의 사회로 이종철(국립민속박물관장), 송방용(나전장 기능보유자), 신탁근(온양민속박물관장), 남상민(한국자수협회장), 곽대웅교수(홍익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전통공예기술 발굴한다

문화재관리국 내년 3월까지 접수

문화재관리국은 무형문화재 전통공예기술의 전승기반 마련과 전승방안 강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공예기술종목에 대한 전국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공예기술은 나전장 등 41종목으로 이번에 발굴 조사할 분야는 피모공예의 피혁장 등 명칭만 알려진 전통공예기술 31개 종목과 기타 미발굴 전통공예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공예기술 종목은 단절위기에 있으면서도 지정되지 않은 분야를 중점으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향토색이 가미된 기술이어야 하며, 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대상으로 99년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유관단체에는 별도로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이번에 발굴되는 전통공예기술종목에 대하여 해당 기능신청자들의 전승계보, 수련기간, 숙련도, 제작기법, 재료·도구의 정통성 여부 등 전수실태를 정밀 심사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8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쇗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12월 14일(토)~99년 1월 11일
◆ 개강일시 :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敎育院

길상사 겨울 선(禪) 수련회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기 간 : 1998년 12월 25일(금) ~ 28일(월)
● 일 정 : 3박 4일
●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대 상 : 일반인 및 청소년
● 인 원 : 80명 내외
● 수련비 : 5만원
● 내 용 : 禪(선) 초심자를 위한 실참실수(實參實修), 발우 공양, 108배 참회기도, 불자 기본 예법등
● 접수마감 : 수련 전 3일까지

- 제 1차 수련회: 1998년 12월 25일(금) - 28일(월): 일반인
- 제 2차 수련회: 1998년 1월 1일(금) - 24일(월): 일반인
- 제 3차 수련회: 1999년 1월 10일(일) - 13일(수): 중고생

~~~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 ~~~

- 제 4차 수련회: 1999년 1월 17일(일) - 20일(수): 일반인

♣ 이후의 수련회는 평상시와 같은 토요일 14시 30분부터 일요일 20시까지 1박 2일 일정의 주말 선 수련회이며 연중무휴입니다.
♣ 수 련 비 : 2만원
- 제 1차 수련회: 1999년 1월 23일(토) - 24일(월): 일반인
- 제 2차 수련회: 1999년 1월 30일(토) - 31일(일): 일반인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 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수련회 준비, 공양간 일, 사무실 보조, 뒷정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TEL (02)3672-5945, 6 FAX (02)3672-5947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OO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법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 비 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 락 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 통 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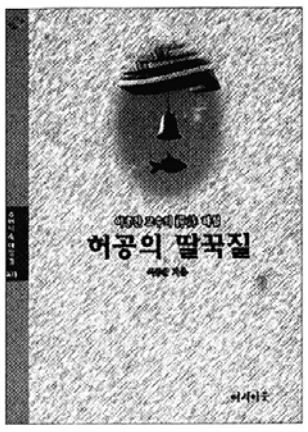
※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암사승가대학장 지 형
~~~

禪詩의 세계로 초대

이종찬교수 '허공의 딸꾹질'

선시 120편 간추려
작품배경 · 선사의 사상
서정적이고 감칠맛 해설



구도의 과정에서, 또는 깨달음의 법열을 감당하지 못해 솟구친 마음을 선사들은 시로 표현해 냈다. 그러나 선시에는 선사의 자유자재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을 관조하고, 자연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감지하려는 감성도 깃들어 있다. 선사들의 오관은 활활하고 화려한 시무리들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달마대사는 "나의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할 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자를 빌려야만 표현이 가능한 시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과 어떻게 나란히 자리할 수 있을까. 선이나 시는 모두 깨달음이라는 선행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깨닫기까지는 시에서 선의 방법을 구해오고, 깨닫고 나서는 선이 시에서 표현방법을 빌려 온다. 말을 거부해야 하는 선의 오묘한 깨달음에도 끝내 시적으로 축약된 언어가 필요하다. 이 때 깨달음의 표현에 가장 적절한 것이 시어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문학편의 첫 번째 권인 〈허공의 딸꾹질〉은 시를 통한 선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선사들의 초탈적 여유와 향기, 치열한 구도의 의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함허 휴정 정관 부휴 소요스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사 41인의 선시 1백20편이 실려 있으며, 개별 작품의 배경과 지은이의 사상, 그리고 선시에 담긴 불교적 의미가 자세하면서도 쉽게 설명돼 있다. 지은이 이종찬 교수(동국대 국문학)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칠맛 나는 해설이 선시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 책에 실린 선시는 현대불교신문 창간부터 '불심시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연재해 온 1백50여편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옛날에는 하느님과 콧구멍을 쌓더니/지금은 중과 친구되어 허공을 치다/쳐가고 쳐올 때 절로 이는 허공의 딸꾹질/'후유' 하는 소리 날 때마다 만나는 기분. 선시는 항상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적고 있다. '외다리'는 선기(禪機)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다. 〈허공의 딸꾹질〉은 읽는 사람에 따라 변화무쌍한 의미를 지니는 선시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다. 이종찬교수는 11일 동국대에서 정년퇴임 기념으로 문집과 선시 해설집 〈허공의 딸꾹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찰음식문화 과학적 분석

최진호교수 '선식의 비밀'





◇최진호교수

'석가모니 의학', 대부분의 불자들에겐 생소한 말이다. 그렇지만 〈불의경〉〈의유경〉〈요치병경〉 등 의학에 대해 설파된 수많은 경전을 보면 '불교의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최진호 교수(부경대 식품생명과학과)가 펴낸 〈선식의 비밀〉(삶과 꿈 刊)은 사찰음식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불교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지혜를 밝혀내고 있다. 주테마는 사찰음식이지만 이에 접근하기 위해 저자가 끌어들인 방대한 경전자료는 '의학'에 대한 부처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시켜주기에 충분하다.

경전 · 운헌토대
불가의 식습관
장수비결등 다뤄

저자는 사찰음식이 불교의 출발점인 생로병사라는 인간존재에 뿌리를 둔 본원적인 고뇌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내용 전반에 함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불가의 식습관을 불교사상과 접합시켜 설명하면서 불로장생의 지혜가 불교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불교의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불가에는 소식(素食·변변찮은 음식)을 소식(少食)하고 남는 음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시해야 한다는 부작여식(不作余食)의 식습관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최근 스님들의 장수비결이 소식(少食) 소염(少鹽) 소당(少糖) 등에 있음도 밝혀진 바 있다.

이 책은 각종 문헌과 경전을 토대로 이같은 승가의 식생활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찰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왜 일일일식의 원칙을 강조해 왔는지, 그리고 차(茶)가 어떻게 선승의 수행식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현대과학의 이론으로 접근했다. 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건강의 비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생명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진호 교수는 '장수과학'을 연구하는 생화학자로 "스님들의 장수비결을 밝히고 사찰음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발간의미를 밝혔다. 값 1만2천원.

한명우 기자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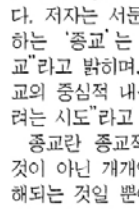
경이로운 전경



니나소바노스님이 우리 주변의 깨침의 소리를 전해주는 〈경이로운 전경(Landscapes of Wonder: Discovering Buddhist Dhamma in the World Around Us)〉을 펴냈다.

이 책에서 니나소바노스님은 낙엽, 활강하는 새, 겨울의 풍광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에서 사성제, 팔정도 윤회 등 불교 기초 교리의 뜻을 이끌어내고 있다. 니나소바노스님은 서문에서 "우리의 습관, 관념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떠나 법(法)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sdom 刊. ISBN 0861711424

삶과 자유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



용수보살의 중도(中道) 사상에서 현대의 가치관을 찾은 〈삶과 자유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용수보살선집(Buddhist Advice for Living & Liberation : Nagarjuna's Precious Garland)〉이 발간됐다.

저자 제프리 홉킨스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를 꼬집고, 이에 맞서 현대인이 지녀야할 '불교적 미덕'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Snow Lion 刊. ISBN 155939 0859

우둔함에 담겨있는 현명함



"인간의 영혼을 다룬 감명적이고 도전적인 책"이라고 워싱톤포스트지의 극찬을 받았던 〈우둔함에 담겨있는 현명함(The Light Inside the Dark:Eastern Spiritual Practice and the Western World)〉이 발간됐다.

저자 존 타란트는 "고대 선승(禪僧)들의 명쾌한 '직관'을 미국의 신세대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Harper Collins 刊. ISBN 0694520241

종교란 무엇인가

일본의 대표적 종교철학자 야키 세이이치(八木誠一 · 요코하마대) 교수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는 주로 불교와 기독교"라고 밝히며, 이 저서는 "두 종교의 중심적 내용과 사상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란 종교적 진실로 실증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 요지다. 법장관(法藏館) 刊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 림
2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3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4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5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6	통찰의 체험	골드스테인	한 길
7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9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구입문의:(02)737-0695

청매스님의 사상 '엿보기'

혜봉스님 '청매집' 번역 출간



청매스님(1548~1623)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선사이자 승병장으로서 불교역사가 가장 암울했던 조선시대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이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노장과 묵자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혜봉스님(양주 대성사)이 펴낸 〈청매집〉(토방 刊)은 2권1책으로 돼 있는 청매스님의 유고집인 〈청매집〉을 번역한 것으로, 청매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과 깨침의 경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청매집〉은 문인 유경(惟敬)이 엮은 것으로 상권에는 역대 조사의 고사에 대한 선게(禪偈) · 송고(頌古 · 선사들의 공안을 시로 평하고 제창하는 것)가 있고, 하권에는 스님이 지은 시와 경론에 대해 읊조린 소(疏) 등의 시문이 실려있다. 이 책은 상 · 하권의 내용을 하나로 묶었으며, 청매스님의 행장과 수행구조와 깨침의 경지를 분석한 글을 '해제편'에 싣고 있다. 2만원.

금강경 | 고목스님 지음

금강경서 찾은 현대인의 가치관



물질문명과 개인주의로 찌들어 가는 현대사회. 사람들은 이 병폐를 치유할 답을 원한다. 특히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그 지혜를 얻고 싶어할 것이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그동안 저작활동을 통해 불교를 알려온 고목스님의 〈금강경〉은 경전내용을 쉽게 전달하면서도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관을 찾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원문과 그에 대한 주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자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 교설의 참의미를 따라가고 있다. 잘 쓰지 않는 고어(古語)와 어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놓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다. 〈삼양, 8천5백원〉

화제의 책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 한갑진 지음

고비때마다 불교에서 얻은 용기



원효대사와 해골에 얽힌 유명한 일화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말한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다.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간의 허약함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다."

영화계의 대부로 불리는 한갑진씨(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의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는 성장기부터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그린 자전 에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배경과 영화 '팔만대장경'을 완성하기까지의 고통 등 75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필요한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책. 〈동아일보사, 7천5백원〉

화제의 책

우리 옛 건축에… | 류경수 지음

전통건축과 자연환경 심층분석



내년은 정부가 정한 건축문화의 해. '우리 건축'에 대한 재조명과 21세기의 미래상을 설계해보자는 의도에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가 류경수씨가 펴낸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은 우리 건축의 공간구성과 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전통건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사찰 건축의 경우 자연을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지어졌다는 분석사를 비롯해 불국을 형상화시킨 불국사,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밖에도 경복궁과 수원 화성, 도산서원, 충효당 등 궁궐과 성곽, 서원, 살림집 등이 선명한 화보와 함께 소개돼 있다. 〈대원사, 1만5천원〉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굴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하생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며 점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스님 '출간에 부쳐' 중에서

한·국·불·교·를·빛·낸·큰·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래 펴냄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 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영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을 탈종합니다.

우납은 화동종단의 태고종 측 종회의원으로 화동통합의 대불사에 공헌한 바 있아오며 1970년에 태고종에 종단등록된 본 정토사를 인수 유지하온바 종단의 보호 지도를 감수했아옵니다.

이번에 청담문화재단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선사에 본 정토사와 그 부속 재산 일체를 헌납키로 하였습니다.

귀종단에 불은이 가피하사 광도이륜 대자대비의 원력을 이루시옵소서

1998. 12. 9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정토사 주지 박설산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법하

"말없이, 틈없이, 끊없이 정진합시다"

선농회 안내

안거
○춘: 결제(음) 2月 1日 ~ 해제(음) 4月 1日
○하: 결제(음) 4月15日 ~ 해제(음) 7月15日
○추: 결제(음) 8月 1日 ~ 해제(음) 10月 1日
○동: 결제(음) 10月15日 ~ 해제(음) 1月15日

백일기도
○춘: 동 안거 해제일 ~ 하 안거 결제일
○하: 하 안거 결제일 ~ 하 안거 해제일
○추: 하 안거 해제일 ~ 동 안거 결제일
○동: 동 안거 결제일 ~ 동 안거 해제일

법회
육바라밀법회: 보시(月)·초 발심 / 지계(火)·화엄경 / 인욕(水)·법화경 / 정진(木)·선어록 / 선정(金)·금강경 / 반야(土)·철야정진
※(오후반 2시·저녁반 7시)
정기법회: 월요법회·매주월요일 오전 10시 / 특별법회·신상 해상 강변 야외 / 초하루법회·(음) 1日 오전 10시 / 약사재일·(음) 8日 오전 10시 / 지장재일·(음) 18日 오전 10시 / 관음재일·(음) 24日 오전 10시

• 결 제 :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대중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킵시다.
• 방 부 : 본방 대중 중심으로 하고, 출입 자재는 별도로 합니다.
• 기도시간 : 새벽 4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7시
• 운 력 :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상생활에 들어 갑니다.
• 기타사항 :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송금계좌 : 우체국 농선회 102095-0003495
문의전화 : 발명선원 922-1101·선농회 922-0921
(02) 농선암 363-9626 (FAX) 936-1914

학술단신

'종교연구' 16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학술논집 〈종교연구〉 16집을 발간했다. △한국불교의식문에 보이는 화엄신앙과 사상(해주스님 · 동국대) △의상 화엄학의 실천적 지향(정영근 · 서울산업대) 등 춘계세미나 발표논문 15편을 수록했다. (02)880-6237

전자불전협 회의 참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내년 1월18일 대만 시니카(Sinica) 아카데미 센터에서 열리는 전자불전협의회(EBTI) 제5차 회의에 참석한다.

'세계불교 경전과 한역대장경 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종림스님, 윤용석 · 김종원씨 등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기술적 해결책 △4바이트 코드시스템 △워드 교정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련불교논집' 8집 나와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묵정배)은 〈백련불교논집〉 제8집을 펴냈다. △선문답의 답화구조 - 선어록의 언어특징(박영록 · 충주산업대) △비트겐슈타인과 용수(이승종 · 연세대) 등 12편이 실려있다. (02)265-5215

월운스님 고희기념 '불교학 논총' 나왔다

33년간 대장경 한글화 업적 후학들 논문 44편으로 감사



◇월운스님

20일 출판기념법회



33년간 고려대장경 한글번역 사업에 매진하며 후학들을 양성해 온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의 고희기념논총 〈불교학논총〉이 나왔다.

이번 논총에는 〈대반야경(大般若經)〉 등 83종의 경전 번역, 중앙승가대 교수 역임, 봉선사 강원('83) 및 능엄학림('96) 개설 등 역경 · 교육 · 포교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월운스님의 업적을 기념하여 그동안 월운스님과 화연을 맺어온 소장학자 및 제자들의 논문 44편을 수록했다. 〈불교학논총〉은 △경학(經學)사상 △불경(佛經) 번역의 방법 △불교와 문학 △한역 대장경의 형성과 현황 △불경의 언해(諺解)와 국어학 △동국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강원교육과 운허(耘虛)스님 △불교의 전파와 의식 등 모두 9부로 구성됐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08', 서구에서의 불교학 연구 및 대장경 전산화 등의 연구논문은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이 돋보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속의 108과 한글'에서 김광해 교수(서울대 국어교육)는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108'이라는 수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임이 분명한 예로만 한정하여도 조선왕조실록 속에서 34회 이상 등장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108이라는 수에 부여됐던 의미는 내용상으로는 많은 것, 완전한 것, 신성한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지극한 정성을 상징하는 수"였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실록에 등장하는 108의 내용은 불사(佛事), 경로(敬老)헌사, 인선(人選) 상소(上疏) 등으로, 대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사(國事)에 있어 자신들의 극진하고 정성스런 태도를 표현함과 동시에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 보급을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심밀경의 철학적 입장과 선의 수증론(修證論)'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는 "〈해심밀경〉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입장은 돈오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점수없는 돈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돈오와 점수를 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유식은 점수로 시작하여 점수로 끝나는 점수→돈오→점수의 수증론을 세우고 있는 반면, 선의 수증론(수행에 의해 깨닫는 것)은 돈오로부터 시작하여 점수로 끝나는 수증론(頓悟漸修)을 제시함은 물론 돈오로 닦음까지 포괄한다는 수증론(頓悟頓修)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

김응철 교수(승가대 포교사회학)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전산화와 그 장래'에서 "앞으로의 불교 정보화는 불교정보의 활용단계 및 불교정보의 확대 재생산 단계로 전환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국제선불교연구소(IRIZ)의 '선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 태국 마히돌(Mahidol)대학의 '불교문헌정보 검색(BUDSIR)'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불교 정보화 과정이 자료의 전산화 및 전달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화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삶의 지혜로 연계시키느냐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의 불교학 연구현황'에서 블라디미르 티코노브 교수(용인대 러시아어)는 "러시아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서양의 주관적 유심론, 서구 재래의 신비주의의 연장으로만 파악하는 등 불교에 대한 서양적 오해를 범했다"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저술의 노역(露譯)과 함께 한국불교에 의한 교리 발전에 대한 인식, 극동문화권 속의 한국문화의 정당한 자리매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운스님 고희기념 논총 축하법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현양론' 저자는 한사람이다"



최종남씨, 독 함부르크대서 박사학위

원전(原典)의 결여로 산스크리트어 논명(論名)과 전래,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온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이하 현양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대 인도학과 최종남(40)씨는 최근 통과한 박사논문 '초기 유가행파에 있어서 삼학에 대한 연구 - 현양성교론 권7을 중심으로'에서 "〈현양론〉의 중국전래는 현장(玄奘)스님에 의해 전해졌으며, 〈현양론〉의 논명은 티벳어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양론〉의 저자가 무착(無着)과 세친(世親)이라는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상의 조직과 인용문분석을 통해 볼 때 〈현양론〉의 저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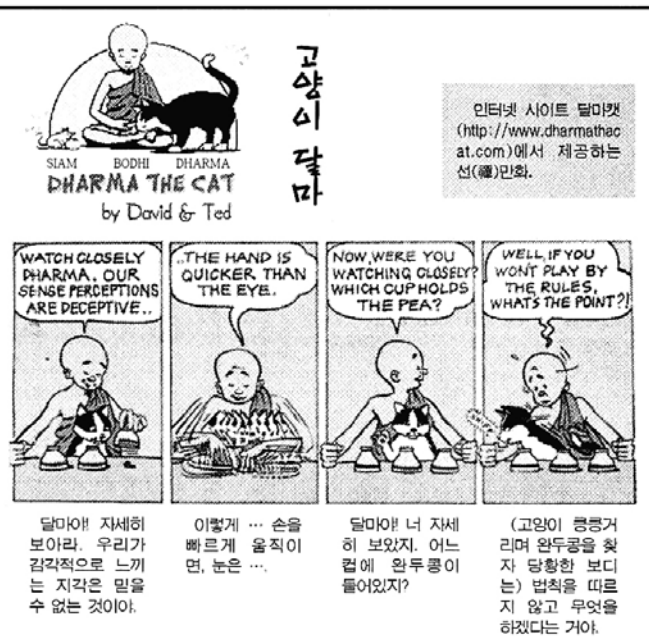
이번 연구를 위해 최씨는 산스크리트어 사본과 티벳어 번역 및 한문 번역본의 내용과 문장의 구성 등을 모두 비교했다.

최씨는 "〈현양론〉의 중국 전래에 대한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전부분이 한역된 것은 현장스님에 의한 것 뿐이라는 점에서 〈유가론〉과 같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논명은 티벳어역의 내용과 한역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티벳어역 'bstan bcos rnam par bsad pa(자세하게 설명된 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자와 관련하여 〈유가론〉과 같이 자체론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 구조적 연관성으로 인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최씨는 "이제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현양론〉의 저자는 동일인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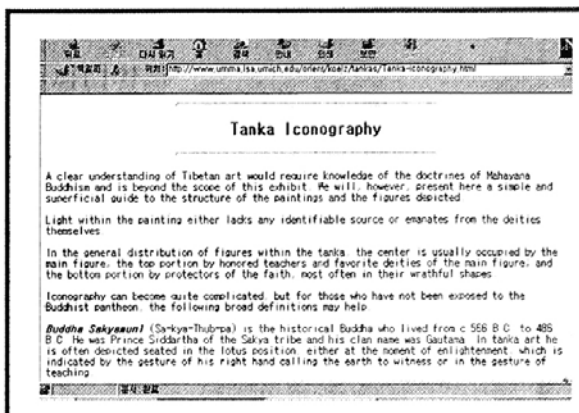
최씨는 이밖에 〈현양론〉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최씨는 "〈현양론〉의 섭사품(攝事品) 등 11품의 구조는 기존의 주장인 문(聞) · 수(修) · 사(思)의 수행법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사(九事)에 대한 비량, 정(淨)에 대한 의미 설명 등 7개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양론〉의 각 본(本)을 비교하여 산스크리트어 사본과 티벳어 번역본을 정정하는 등 불교문헌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최씨는 논문을 통해 〈현양론〉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 수록하기도 했다. 또 내용 · 용어 · 문법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문색인과 산스크리트어 색인을 만들어 첨부하여 문헌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김정은 기자



해설 본성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 기실 같고, 집착과 집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니, 이런 평등의 견지에서 본다면 따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를 아는 것을 대지(大智)라 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手印을 찾아서

'탕카도상학' 사이트 등 들어가면 수인의 종류 · 의미 자세히 열람

불 · 보살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 모양, 수인(手印)을 찾아 인터넷을 항해해 보자.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만든 수인은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아온 미국과 유럽 불교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티벳불교에서는 수인을 중시하여 대일여래의 지권인을 비롯하여 보살 · 명왕 등에 따른 다양한 손 모양이 등장한다.

수인은 탕카(Tanka) 등에 나오는 부처님의 손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처님의 경우에는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천지인 등 5가지 수인을 주로 취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여러 부처님들도 대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아미타불은 구품왕생과 연결되어 9등급의 아미타정인과 내영인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수인은 불상종류에 의한 교리적인 뜻을 가지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불상의 성격과 명칭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탕카도상학(Tanka Iconography · http://www.um-ma.lsa.umich.edu/orient/koelz/tankas/Tanka-iconography.html) 사이트에서는 수인의 종류와 그 의미 그리고 모양을 소상히 알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수인은 선정인, 시무외인 등 총 10종.

선정인(禪定印): 부처님이 선정에 든 것을 상징하는 수인. 원래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취한 수인이다. 손바닥을 편 채로 왼손을 배꼽 아래 두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개어 두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결가부좌한 불좌상에서 볼 수 있다.

시무외인(施無畏印): 부처님이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주는 수인으로 인도의 초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오른손 또는 왼손을 어깨높이까지 올리고 다섯 손가락을 세운 채로 손바닥을 올리고 밖으로 향하게 한 형태이다.

항마촉지인(降魔觸指印):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성도할 때 악귀의 유혹을 물리친 증인으로 지신(地神)을 불러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였다는 내용에서 유래되었다.

지권인(智拳印): 티벳불교의 대표적인 수인으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이 원래는 하나라는 뜻. 〈금강정경〉에 기초를 둔 것으로 양손을 가슴 앞에 올리고 집게손가락만 똑바로 세운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서 오른손 엄지가 왼손 집게손가락 끝에 서로 맞닿도록 한 모양이다.

천지인(天地印):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 걸어가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손 모양이다.

이외에도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봄직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and Mantra Video(http://www.awarinst.com/mantras2.htm)
△Tantric Arts(http://www.va.com.au/monks/tantric_arts.html)
△Hand Mudras(http://www.artsednet.getty.edu/ArtsEdNet/hm/Mar98/0334.html

일주문에서 다비까지

절에서 배우는 불교

사찰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사찰에 숨쉬는 불교의 사상과 장인혼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부처님의 숨결이, 그것을 만든 장인의 불심과 합일된 장인혼이 살아 있다. 하지만 솔향 그윽한 사찰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집 이 책은 일주문을 비롯한 산문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전각, 불 · 보살상, 탱화를 비롯한 각종 불화와 내 · 외형장엄물,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생활용구, 상징물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아 사찰의 전부와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45항목에 걸친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절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들고 찾기를 권한다. 일주문으로 들어와 절에서 접하는 갖가지 조형물, 상징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찰을 둘러보고 일주문을 나설 때는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혜자스님은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도선사에서 동진출가하여 청담큰스님을 모시고 도선사에서 많은 소임을 살았다. 동도사 승가대학에서 경학연찬,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했다. 수락산 도안사를 창건했고 도선사 부주지 등의 소임을 살면서 항학열을 불태워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7년간 해마다 노원구 할아버지 ·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경로위안잔치를 베풀어왔고 불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충주에 '자혜방생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사람노릇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산중명상집》 등이 있다.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우리출판사 간/혜자스님 편/본문 336면/ 값 12,000원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종 · 본 · 스 · 님 · 의 · 전 · 생 · 찾 · 아 · 떠 · 난 · 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보면 영혼불멸에 대한 체험적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사후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로써 죽음이란 단지 말이 죽음이지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진시황도 죽었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호걸도 모두 죽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번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무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성을 깨우쳐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느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알음알이의 본성(本性)을 깨우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자성(自性)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다. 자성을 깨우치고 선업을 닦아야 환빛 밝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본스님 엮음/본문 249면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한형조 무문관 활방 76

도솔의 수수께끼

* 도솔열 화상이 세 가지 빗장을 걸어 학자들에게 물었다. "풀을 헤치고 그윽함을 찾는 것은 다만 견성하고자 함인데, 대체 지금 당신의 본성은 어디 있소? 자성을 알면 생사를 벗는다 하는데, 눈의 광채를 땅에 떨굴 때 어떻게 허물을 벗으려오? 생사를 벗으면 가는 곳을 안다 했는데, 사대(四大)가 흩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오?"

* 나 혜개가 말한다. "이 세 물음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처하는 곳마다 도리를 얻을지니.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리라.) 거친 음식은 금방 배가 부르고, 꼭꼭 씹어서 먹으면 쉬 꺼지지 않는다."

* 승하여 가로되, "한 생각이 두루 무량겁을 관(觀)하나니, 무량겁의 일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한 생각을 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뚫어보는 사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터.

兜率三關:

兜率悅和尙, 設三關, 問學者. 掇草參玄, 只圖見性. 卽今上人性在甚處. 識得自性, 方脫生死. 眼光落時, 作麼生脫. 脫得生死, 便知去處. 四大分離, 向甚處去. 無門曰, 若能下得此三轉語, 便可以隨處作主, 遇緣卽宗. 其或未然, 序飡易飽, 細嚼難飢. 頌曰, 一念普觀無量劫, 無量劫事卽如今.



그림 · 문병성

如今 彼箇一念, 破如今 底人.

송대의 선은 임제의 종풍에서 갈라진 황룡(1002~1069)과 양기(992~1049)가 이끌었다. 오조법연(?~1104)이 양기파의 종장이라면, 지금 이 화두의 주인공인 도솔종열(兜率從悅 1044~1091)은 황룡파의 기걸이다. 아깝게도 마흔 여덟의 나이에 요절했다.

도솔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남기고 갔다.

1) 선의 궁극은 견성, 즉 자신의 본질(性)을 보는 것이다. 그럼 너의 그 본질이란 게 지금 어디 있느냐. 2)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고 나면 질긴 생사의 굴레를 벗는다. 그렇지 않고 미적대다가 정작 죽음이 닥칠 때 어떻게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려는가. 3) 생사의 굴레를 벗고 나면,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어디 풀어보자. 육신이 흩어지고 명줄이 끊길 때 그때 네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세 물음은 얽혀 있다. 1)이 실제라면, 2)는 계기이고, 3)은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1)의 관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다. 2) 두번째 관문인 불도의 '계기'는 섬뜩하다. '이 일'이 한가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급박한 실존적 관심임을 충격적으로 일깨우고 있다.

지눌은 고려말 세속화된 불교의 타락과 소외를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 "목숨이 가물거리고 사대가 흩어지려 할 때 정신은 타들어가고 소견은 혼미하여 하늘에 오를 수도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두렵고 막막한 길을 쓸쓸한 혼이 홀로 떠날지니 창고에 그득한 재화가 무슨 소용이며, 늘어선 친척과 권속들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자업자득(自業自得), 대신 고통을 짊어질 사람도 없고, 인도해줄 지팡이도 없다. 아무도 너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없다(〈結社文〉)."

이런 경고에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불교와 별 인연이 없다. 불교는 세상의 고통, 인간의 허위와 기만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가르침이다. 놀란 여린 영혼은 삶의 비밀과 자신의 본질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장애의 "풀숲을 헤쳐나가(撥草) 비밀을 열었다(參玄)." 여기서 풀숲은 길(道)을 덮고 있는 장애물들이다. 치고 또 쳐내도 앞을 막고 발을 감는 그 끈질김은 인간의 욕망과 무지와 꼭 닮았다.

그 길을 헤쳐 그윽한 비밀을 장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처하는 곳마다 도리를 얻는다니." 선은 늘 육신이 영성이 되고, 실존이 곧 본질이 되는 그 축복과 희망을 노래한다.

그러나 구경(究竟)은 멀리 있고 현실은 가깝다. 물질에 속박되고 욕망에 눈먼 우리네 범부들에게는 저녀머의 꿈일 뿐인저. 무명(無明)의 종자(種子)와 망상(妄想)의 습기(習氣)가 한데 어울려 역순(逆順)에 희로(喜怒)하고, 시비(是非)에 애락(哀樂)하는 사람들은 기댈 언덕과 다독일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음과 미륵과 지장 등의 불보살들이 있다. 그 자비와 공덕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한 생을 마감할 때 나귀의 뱃 속에 끌려들지 않고, 지옥의 끓는 가마 솥에도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전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관(觀)해 보라고 권한다.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한 것이어서 육신에는 내가 없다. 마음의 본질 또한 무상(無相)이라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자성(自性)은 태어난다고 생기는 것도,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맑고 두렷하고 고요해, 마음과 경계 사이엔 틈이 없다. 이렇게만 투철하면 사바에 매이지 않고 대자유를 얻을 것이다. 혹 부처를 만나더라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지옥을 보더라도 두려워 하지 말라. 놀라거나 흔들리지 말고 무심하라. 이것이 비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사대 흩어질때 가는곳 어디인가

육신엔 내가 없어…부처 · 지옥 만나도 무심하라

"슬픔도 기쁨도 내것 아니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6



수행의 장애 ⑦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소박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일단 바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고 그대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은 소멸하고 마니까. 모든 현상을 우리 자신인 듯이, 혹은 자기가 그 소유주인 듯이 여기지 않게 되면 마음은 균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균형이 바로 팔정도이며 해탈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정법이다.

모든 현상은 소멸
비어있는 본질 알면
마음은 자유로워 진다

최초로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에의 길은 감각에의 탐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닌 중도였다. 수행자의 마음은 균형을 잃거나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되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혐오함이 없이 사물을 대하게 해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남에게 친절하고 유익되게 행동하는 일이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행과 계행에 열심이면 유익한 결과가 따라오고 자신과 남에 대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훌륭하고 장한 일이다. 다만 놓쳐서는 안될 점이 있다. 그 일을 제대로 행하려면 남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도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한다. 자기 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연 순수한지 유념하여 주의해야만 한다. 남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남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열심히 지키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을 다 인정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는 사물을 그대로, 온전하게, 분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실 그대로를 보면 해탈을 얻는 것이다.

법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주인이 없다. 세계가 모습을 드러낼 때 법은 세계 속에서 생동하지만 진리로서 홀로 존재한다. 법은 언제나 여기에, 변함없이, 무한하게, 법을 찾는 이들을 위해 있다. 법은 마치 지하수와 같다. 누구든지 우물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찾아낸다. 하지만 샘을 파든 안파든 물은 항상 거기, 모든 존재의 밑에서 흐르고 있다.

법을 구함에 있어, 우리는 너무 먼 곳으로 찾아나서고, 지나쳐 버리고 본질을 간과해 버린다. 법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랜 항해 끝에 망원경을 통해 찾게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법은 바로 여기에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진정한 자신이다.

우리가 이 본질을 바로 볼 때,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 밝음과 어두움, 나와 남 모두 다 비어 있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본질을 알게 되면 '나'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수행은 버리기 위한 것이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포기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참성질을 알아야만 한다. 그때에 비로소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 무엇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반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열반을 실현한 사람은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은 귤의 단맛을 알되 내가 귤의 단맛을 맛보고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법의 길은 계속 향상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법은 나아감도 아니고 물러섬도 아니고 더구나 한자리에 서 있음은 더욱 아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5

불교와 수학 ⑧⓪ 인지능력과 연기

김 용 운

인간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인지과학은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 정보과학, 대뇌생리학, 컴퓨터과학 등의 연구자가 개척한 학제간의 학문(interdisciplinary)으로, 복잡성의 과학이 형성되자 종전의 과학 주류와는 달리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의 구조를 이용하면 인간 지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인공두뇌'를 최대 관심사로 삼아 온 것이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일단은 뇌에 입력하고 그곳에서 기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우수한 정보기계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인간의 인지(認知)능력은 기호, 또는 정보처리가 핵심이 되므로 그 작업을 컴퓨터에 대신 맡기는, 즉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대신해 주는 '인공두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나온다. 이에따라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것이라는 낙관론의 엇갈리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통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과대평가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장난기 많은 동네의 아동들은 길가에 빈깡통이 놓여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것을 발로 차고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빈 깡통에 돌을 담아 두고는 담 뒤에 숨어서 본다.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인 줄 알고 행인들이 그것을 한껏 걷어찼다가 발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킬킬거리는 것이었다. 무엇인가가 길가에 있을 때 발길질을 하고 싶은 것은 결코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고드름을 뜯거나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싶은 것, 벽에 낙서하고 싶어지는 일, 또 호박에 침을 주거나 수박을 부서뜨리는 장난기 많은 아이들의 행위에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와 이들 물건이 지니는 성질 사이의 깊은 관련성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은 몸 전체로써 환경과 대응하고 있으므로 머리와 대상의 관계에서만 물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카뮈의 명작 〈이방인〉의 주인공은 "태양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살인을 범한다. 종전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그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겨우 '부조리'라는 한 마디로 얼버무려 왔다. 인간은 단순히 기호 처리만으로 설명될 정도로는 간단하지 않다. 기호 처리만으로 만사가 결정된다면 행동하기 전에 깊은 생각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된다. 두 사람의 가위바위보에서 서로가 상대의 수를 생각하게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역리(逆理) 구조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몸 전체로 대상인식
환경 · 습관 영향받아 정보처리
인지능력은 '연기'의 결과

자동차,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는 머리가 아닌 몸전체로서의 행동이며, 머리에서 생각하기에 앞서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이 머리만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몸은 머리를 올려놓는 받침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머리를 포함한 몸 전체로서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몸전체로서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상을 인식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몸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매체인 것이다. 인지과학에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환경의 성격을 아포던스(affordance)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과 같은 의미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모두 연기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종전의 경제학에서 말해 온 것과 같이 이익만을 추구하는(합리적,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것)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이익타산 보다는 환경, 습관…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회학은 이것을 '몸속에 파묻혀 있는 사회'로 표현하는데 인간 존재는 '연기'로 꽉 차 있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행위는 단순한 이성이 아니며 과거의 문화적 전통, 관습…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역사를 포함한 문화 전체와의 연기의 결과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016 PCS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첨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50×22㎜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재 이외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 선불카드 2,000원 증점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3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가방엔 선재동자… 핸드폰엔 아기부처님

불교캐릭터상품 '눈에 띄네'

신세대불자 포교에 한몫
30여종 보급…아직 걸음마
교계차원 관심·투자 필요



◇불교캐릭터를 이용한 독특한 상품들이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부처님 캘린더.



◇신세대불자들 사이에서 아기부처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유행이다.



◇다양한 표정의 동자를 응용한 열쇠고리.



◇관음손이 개발한 동자저금통과 스프링인형.



◇불교나라가 선보인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스티커.

"와! 그 아기부처님 스티커 참 귀엽다. 어디서 샀니?" "응, 조계사 근처 불구용품점에 가면 구할 수 있어."

요즘 신세대 불자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에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스티커 붙이기가 유행이다. 최근 선보인 다양한 모습의 이 캐릭터 스티커는 휴대폰 악세서리 하나에도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신세대불자들에게 새로운 포교매체로 다가서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불자들도 책가방에 이 캐릭터를 이용한 버튼을 달고다니는가 하면 어린이법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연꽃 지우개와 연필, 노트 등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또 선물을 고를때에도 불교 캐릭터상품을 택하는 불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캐릭터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를 만나게 되는 날이 불교의 세계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세대들사이에서 캐릭터 상품은 이미 보편화된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상품의 결풍속에서 신세대불자포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불교캐릭터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움직임도 서서히 일고 있다.

불교문화캐릭터 개발업체 와이드스코프는 최근 부섭계만 느껴지는 사천왕상과 제석천 등을 귀엽고 세련된 불교캐릭터로 개발해 신세대 포교에 나섰다. 20대불자들로 구성된 와이드스코프는 범천, 용, 코끼리, 금강역사, 팔부중, 약사여래, 지장보살 등의 캐릭터 작업도 전개해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는 관시용품과 만화, 컴퓨터게임등도 독자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와이드스코프 아트디렉터 표성중씨는 "불교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 불교 혁신을 위해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캐릭터의 개발과 활용"이라면서 "캐릭터를 통한 불교문화의 재발견과 활발한 가치창조는 21세기 불교문화 구축 및 포교를 위한 효과적 언어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재동자, 아기부처님, 연꽃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후반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시작됐다. 처음 연꽃이나 만자, 동자 등의 단순한 모양을 활용해 만든 불교관시용품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일기 시작한 불교캐릭터 상품은 전문제작업체가 등장하면서 상품도 한층 다양화되고 시장도 점차 형성돼 갔다. 선재마을은 9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재동자 캐릭터를 개발해 선재동자집계, 라홀라 종걸이, 선재동자 알림판, 개량형 바람, 도자기, 목걸이 등 선재동자 캐릭터를 응용한 불교관시용품들을 선보였다.

96년부터 조계종봉축위원회가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포교의 기치를 앞세우며 부처님 오신날 등 장시킨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캐릭터는 포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불교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봉축위는 이 아기부처님과 천진동자 캐릭터를 응용한 어린이 셔츠, 학용품, 열쇠고리, 버튼, 차량용스티커, 컵, 부채, 시계, 풍선, 슬리퍼, 모자, 유니폼, 공책, 엽서, 공중전화 카드 등 광범위한 물품을 제작해 본격적으로 캐릭터상품 관매의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밖에 불교콘시용품관매업체인 불교나라에서는 핸드폰 등에 부착하는 미니스티커, 열쇠고리, 달력, 시계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 편의점과 관시전문점에 납품판매하고 있는 등 현재 10여개 업체에서 30여종의 상품이 제작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캐릭터 상품의 기본 소재가 연꽃, 동자, 부처님등으로 한정돼 있고, 보급망도 불구점과 사찰직영매장, 제작업체와 사찰의 직거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선재마을 유지선법사는 "불교캐릭터 상품의 대부분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하는 반짝 경기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할 유통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운데 하나"라면서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닌 21세기를 짊어질 신세대 불교포교방안으로 불교캐릭터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명 캐릭터상품의 상당수가 출판만화나 만화영화, 영화, 드라마,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기와 관을 확보해 퍼져 나간 것에 비해 불교캐릭터상품의 경우 캐릭터부터 먼저 개발해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관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캐릭터 시장의 90% 이상을 외국 캐릭터들이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캐릭터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불교캐릭터산업은 자체의 수익과는 별도로 21세기 불교포교의 새로운 혁명과도 직결되는 많은 파생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제석천.



◇서방 광목천.



◇최근 복원된 아유타야에 있는 길이 50m의 거대한 와불.



◇순례단은 붓위라팃사원의 부속고아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태국 성지순례記

생동하는 불심 경제위기 극복
곳곳에 사원·불상·탑 보존

태국 불교가 역동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눈에 '보여주는 불교'로만 비춰졌던 태국불교가 이제는 '생동하는 불교'로 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불심으로 극복해 내고 있다. 불교계가 일장서 경제 위기 극복법회를 열었는가 하면, 빈민층을 위해 각 사찰들이 무료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 환영을 받고 있다. 또 광화, 인권문제 등 사회문제에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셔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불교에 무관심했던 부유층들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태국관광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의 후원으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국내 불교계 인사 초청 '성지순례'는 태국 불교의 내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순례 첫날 도착한 불교 유적지 아유타야는 우리의 경주와 같은 곳이다. 사원만도 5백여개가 있으며 발길 닿는 곳곳마다 불상과 탑이 숨쉬고 있다. 그 거대함과 장중함이 과거 아유타야 왕조의 영화를 말해주는듯 했다.

프라시산켓, 나프라멘, 야차이몽콘 등 이곳의 대표적 사원들은 외침으로부터 불교를 지키기 위한 태국인들의 의지가 그대로 서려 있다. 상당수 유적은 외침으로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보수·복원되고 있으며, 모든 유적마다 대형 서치 라이트를 설치해 밤에 불을 밝혀 놓았는데, 어둠 속의 유적들은 도시 전체를 '부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장관을 연출해 냈다.



◇방콕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선보인 불탑모양의 성화대.

이곳 사원들은 최근 몇년새 복지 사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수행만을 강조해오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사찰이 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붓위라팃 사원은 3백여명의 고아를 수용하는 부속 고아원을 갖추고 있다. 한국말 현수막을 들고 순례단을 맞은 고아원 관계자들은 같은 불자라는 친절한 미소로 반겼으며, 순례단이 가져간 위문품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합장인사로 답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언어는 달라도 모두가 부처님 집안의 한 식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지를 방콕으로 옮기고 돌러 본 트라이밋, 아룬(새벽사원), 포우, 타마몽콘, 에머랄드 사원과 왕궁은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려는 관광객들의 움직임으로 땀에 젖어 들었다. 에머랄드 사원의 경우 보수를 위해 걷은 기부금이 남았다는 가이드의 말에서 전국민의 95%가 불자라는 태국인들의 깊은 불심을 읽을 수 있었다.

타마몽콘 사원의 주지 위리안 스님(80)은 36년간 이 사원을 지키며 부속학교와 명상센터 등을 보유한 5만여평의 대규모 사원을 일궈낸 원력을 이렇게 달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참된 수행을 하며, 불자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주었을 뿐"이라고. 이 사원은 내년초 외국인을 위한 명상센터를 개설해 태국불교를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태국불교는 변하고 있다. 한국불교도 훌륭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불교의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바란다"고 강조하는 태국관광청 한국·일본 담당국장 아말라씨(58)의 말에서 태국불자의 자신감이 넘쳐났다.

태국=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여주 도곡리 좌불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곡선미 돋보이는 고려불상

어깨까지 닿은 두 귀
몸체의 모습 사다리꼴

남한강 줄기 나즈막한 야산에 자리잡은 경기도 여주 도곡리 좌불은 나발의 머리에 육계는 작고 이마에는 백호공이 있다. 이마에서부터 시작된 우뚝한 코는 탐욕스러운 중생에 의하여 온전하지 못하다. 오랜 세월 노천에서 폭풍우와 눈보라를 맞으며 있다 보니 이끼도 끼고 먼지도 끼어 식별이 확연치않지만 살며시 든눈과 가볍게 다문 입가에는 미소가 엿보인다.

좌폭 164㎝, 좌고 190㎝, 견폭 102㎝, 두고 60㎝인 좌불은 화강암으로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늘어진 두귀는 어깨에 닿으며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각의 형태를 이루어 양감이 풍부하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의 몸에는 삼도가 없으며 옷깃이 몇치까지 나린히 흐른다. 양무릎 밖으로 흘러내린 두루마가식 붕의를 덥고 굵은선으로 나타내 굴곡의 표현이 없이 몸체의 모습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좌대는 복련의 하대와 팔각의 중대석 그리고 앙련의 상대석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석 6면에는 팔부신중을 양각했다. 신체적 표현은 살아숨쉬는 듯한 생동감이 탄력있는 모델링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든 불상은 보는이로 하여금 아름다운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미풍에도 흔들린 듯한 옷깃 안면에 머금은 미소는 고통과 번뇌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유영렬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은 "신라 전성시대의 불상양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미와 섬세함이 떨어지는 등 신체의 요소 요소에서 지방화된 양식적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시대 조성된 것이다"며 "고려시대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조사신앙이 발달해 신라시대에 비해 불상조각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35)
(佛言)如人鍛鐵 去滓成器 器卽精好
(불언)여인단철 거재성기 기즉정호
學道之人 去心垢染 行卽淸淨矣
학도지인 거심구염 행즉청정의

'사람이 쇠를 벼릴 때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그 물건이 깔끔하게 되듯이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이 때로 물든 것을 버려야 수행이 곧 청정해진다.'

(36)
(佛言)人離惡道 得爲人難
(불언)인리악도 득위인난
旣得爲人 去女卽男難
기득위인 거여즉남난
旣得爲男 六根完具難
기득위남 육근완구난
六根旣具 生中國難
육근기구 생중국난
旣生中國 値佛世難
기생중국 치불세난
旣値佛世 遇道者難
기치불세 우도자난
旣得遇道 興信心難

억념오계 필득도과
在吾左右 雖常見吾
재오좌우 수상견오
不順吾戒 終不得道
불순오계 종부득도

'불자여, 나에게서 수천리 떨어졌어도 내가 설한 계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도의 열매 얻으리라.
그러나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지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하리라.'

(38)
佛問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數日間
불문사문 인명재기간 대왈 수일간
佛言 子未知道
불언 자미지도
復問一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飯食間
부문일사문 인명재기간 대왈 반식간
佛言 子未知道
불언 자미지도
復問一沙門 人命在幾間 對曰 呼吸間
부문일사문 인명재기간 대왈 호흡간
佛言 善哉 子知道矣
불언 선재 자지도의

"쇠를 벼릴때 찌꺼기 제거하듯 마음의 때 버려야 수행이 청정"

기득우도 흥신십난
旣興信心 發菩提心難
기흥신심 발보리심난
旣發菩提心 無修無證難
기발보리심 무수무증난

'사람이 악도를 벗어나 이 몸 받기가 어렵다.
이미 사람으로 태어 났더라도 남자 되기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육근을 온전히 갖추기가 어렵다.
육근을 갖춰 났더라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도를 만나기 어렵고 이미 도를 만났다 해도 신심을 내기 어렵다.
신심을 냈더라도 보리심 일으키기 어렵다.
보리심을 일으켰더라도 무심도 이루기가 어렵다.'

(37)
(佛言)佛子離吾數千里
(불언)불자리오수천리
憶念吾戒 必得道果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 목숨은 얼마간에 달렸느냐?'
한 사문이 '며칠간'이라 답했다.
부처님께서는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하시고 다른 사문에게 똑같이 물으셨다.
한 사문이 '밥 먹는 사이'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너도 아직 도를 모른다'하시고 다른 사문께 다시 물으셨다.
한 사문이 '호흡 지간에 있습니다'대답했다.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너는 도를 알았구나' 하셨다.

(39)
(佛言)學佛道者 佛所言說 皆應信順
(불언)학불도자 불소언설 개응신순
譬如食蜜 中邊皆甛 吾經亦爾
비여식밀 중변개첨 오경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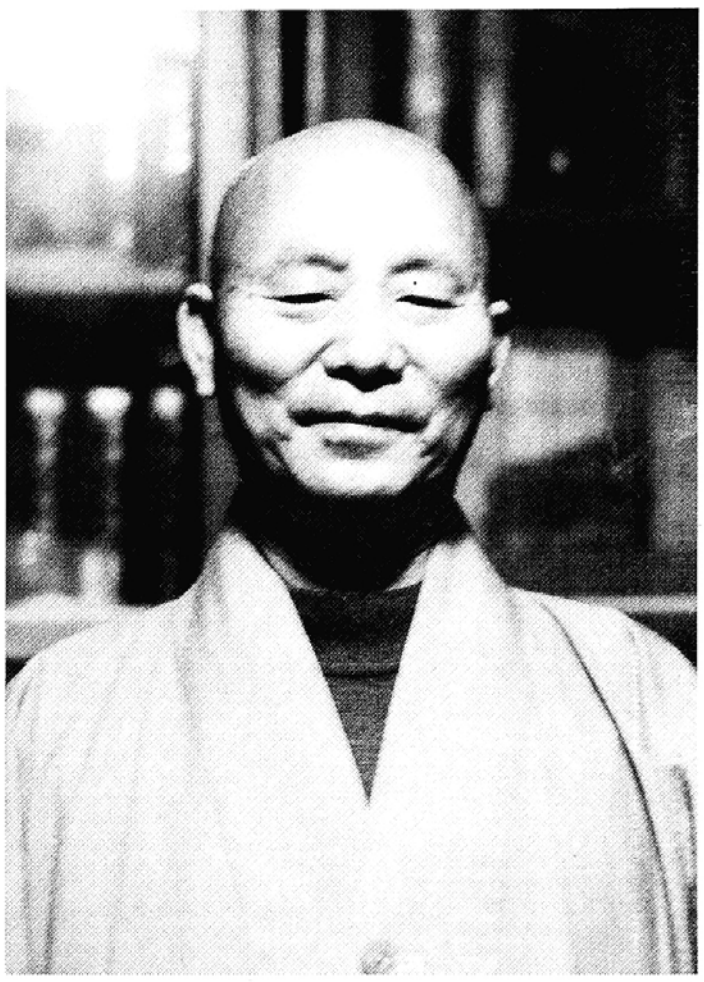
'불도를 배우는 이는 내가 말한 법을 모두 잘 믿고 따라야 한다.
비유하자면 꿀을 먹는 것과 같아서 중간에도 끝에도 다 맛이 달듯이 내가 설한 법도 또한 그러하다.'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사람다운 사람 되려면"

백 운 스 님 〈미륵사 주지〉



약력
- 1934년 전남 生
- 53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60~82년 영동 중화사, 포항 오어사, 경기 영월암, 김해 장유암 주지 역임
- 범어사 지리산 토굴 등지에서 정진
- 71~87년 화엄사, 범어사, 송광사 강사
- 현재 부산 미륵사에 주석
- 〈양치는 성자〉 〈진묵대사〉 〈부설거사〉 등 소설 다수

"부처란 바로 참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면 그속에 이미 행복이 들어있어요"

시대가 어지럽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 임제선사의 진인(眞人)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나는 임제선사의 '참사람-眞人' 사상을 가장 높이 우러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일컬어 붇(佛)이라고도 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해서 '대각(大覺)'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일체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심(心)'을 강조하고 또 본성을 찾아라 해서 '성(性)'이라고 하는 등 불, 심, 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제스님에 와서 참사람, 진인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부처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사람이다 이말입니다.·진실로 사람다운 것이 부처입니다. 사람다운 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불본주의, 심본주의, 각본주의를 뛰어넘어 인본주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임제스님의 진인사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불교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그속에는 이미 행복이 들어 있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길을 배워나가는 출가의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주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출가는 단순히 세속에서 절집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품을 깨달아 참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나는 다섯 살 때 절에 들어와서 아홉 살까지 살다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시 속가로 갔지요. 그때의 출가는 수행 정진을 위한 출가라기 보다는 단지 짧은 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출가였던 셈이지요. 그러나 그 인연이 이어진 것은 6·25 동란때입니다. 6·25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친은 빨갱이들에게 학살당했고 나도 세 번이나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금지했는데 그런 사상에 동의할 스가 없었지요. 나는 도망을 쳐서 산속 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출가해서 다시는 세속에 나가지 않겠습니다'고. 그 기도의 원력인지 나는 세 번이나 잡혔지만 그때마다 초등학교 동창이 살려준다거나 후배가 살려준다거나 해서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관음보살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 동란 끝나고 바로 출가했습니다.

처음에 백양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조계종 종정이시던 만암 노스님이 계셨는데 어려서는 내가 백부라고 부르던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암스님께서 당신은 연세가 많고 해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모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내가 범어사 선방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통에 석산스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화엄사, 송광사, 범어사의 강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은 석산스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 여쭙고 그랬으니까요. 나는 주로 만암노스님께 경전과 조사어록을 배웠는데 조사어록을 배우다 보니 선방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났습니다. 어려서는 팔만대장경만 다 알면 도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어록을 보니 견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해 동안거를 범어사에서 났습니다. 그때 범어사 조실스님이 동산스님이셨는데 처음 뵈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늘 그려왔던 큰스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첫 해부터 시봉을 한 삼년 했습니다. 동산스님은 네 상좌다, 내 상좌다 하는 권속 갈림이 전혀 없는 분이고 큰방에서 야단치시더라도 당신 방에 가시면 전혀 딴 얘기를 하실 정도로 뭐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6·25때 그렇게 절살림이 어려워도 아무 차별 없이 오는 대로 스님들을 다 받았어요. 원주스님이 사람 많이 받았다고 투덜거리면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곤 했어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다 짊어지고 다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오는대로 다 받아 들이다 보니 항상 쌀이 부족했어요. 국수나 수수, 강냉이 등을 배급받아 먹었는데 어떤 때는 국수를 사흘동안 먹고서 모두들 설사가 나서 고생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스님은 눈 한 번 찌푸린적 없고 찬이 없어도 불평 한번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검소하고 소탈하신 분이었지요.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가르침으로 방향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참선을 하다가 공에 빠졌거든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할 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그러면 안된다. 그럴 때일수록 화두를 잡아라"하시더군요. 그러나 공에 빠지면 너무 편안하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에 화두가 잡혀지질 않아요. 스님은 나를 볼 때 마다 화두 잡았는지를 확인하지만 나는 계속 화두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반복해서 나의 화두를 챙겨주시면서도 화도 안 내시고 자상하게 일러주시더군요.

그렇게 20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스님 시봉 마치고 들어와 잠깐 누웠는데 목침에서 떨어지면서 잠이 깨어 화두를 들었는데 화두가 들어지는 겁니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은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큰스님 수행한담

끝없이 자신을 경책하세요”

“서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탓이다’ 생각하고 잘못 되풀이 안하는 노력을”



◇94년 4월 길림성 도문시에 도문불교포교당을 개설하며 스님의 상좌 성룡스님(조선족 사진 오른쪽), 정암스님(현 북경대 졸업반)과 함께한 백운스님(가운데 앉아 있는 스님).

다. ‘어째서 조주는 무라 했는가’ 하는 화두가 너무나 역력하게 잡히는 겁니다. 새벽3시에 노전스님이 도량송으로 천수경을 하시는데 전부다 ‘어째서 무라 했노’ 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울물 소리도, 풍경소리도 그리고 전체가 ‘어째서 무라 했노’라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아침에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너는 이제 공부 좀 하겠다”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잊을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공에 빠져서 그 고요가 좋은 줄 알고 그 경지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지금도 헛세월만 보내고 있었을 텐데 안목이 밝으시니까 바로 이끌어 주시더군요. 그만큼 공부에는 눈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통산스님은 대중생활을 할때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입니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제일 먼저 빗자루 들고 마당에 나가시니 다른 대중스님들이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른이 앞장서니 질서가 잡히고 다 잘되기 마련이지요.

지리산 천은사위로 올라가면 상선암이라고 나옹스님이 계셨던 곳이 있는데 불교정화 이후 그곳에서 3년간 혼자 탁발해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주 어려운 갈림길앞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동국대학이나 불교대학을 다녀서 공부를 하면 포교도 하고 좋겠다 싶어 스님들이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해인사에서 세웠던 해인대학의 후신인 마산대학(현재 경남대학)에 종교학과가 있었어요. 그곳에 용성스님 상좌인 월주스님이 주임교수로 있어서 경상도의 젊은 스님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갔어요. 현재 역경원장인 월운스님, 동국대 총장을 지낸 지관스님 등이 모두 동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위해 학교를 갔던 이들이 속세로 많이 나갔어요. 그때 100명중 90명은 환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나도 그때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쳐놓고 보니 학교를 꼭 가야 하는가 회의가 생기더군요. 학교에 가서 세속으로 나가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중노릇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학교를 갔다가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6·25때 관음보살님과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님된 것을 후회해 본적 없어요. 내생에 다시 태어나도 스님노릇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중노릇처럼 좋은 게 없어요. 무소유의 삶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욕심은 한정 없는 것이니 그 욕심자체를 비우고 물욕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을 새겨볼만 합니다. 수처작주는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라, 즉 주인공이 되라는 말입니다. 〈보살계경〉에 보면 보살계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왕이 되고 아귀계에 떨어지면 아귀의 왕이 되고 인간계에 떨어지면 인간의 왕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서도 그곳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곳의 주인이 되는 마음 얼마나 멋진 경지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남과 경쟁해 이기려고만 하고 뭐든지 많이 갖고자 아귀다툼을 벌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자신을 냉정히 돌이보고 참사람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사람이 되어 모든 곳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힘과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어려워진다 해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정신을 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될려면 굳은 신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참선수행을 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지 왜 못는 겁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불법입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도의 정신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부단히 정진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는 없고 모두들 책임을 남에게 돌려 버립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누구 한사람 책임감을 느끼고 내 잘못이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 사건 날때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가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을 해야 향상이 될텐데 전혀 책임감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종단의 분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가 책임질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의 책이예요. 어려서 나도 〈명심보감〉을 배웠지만 그때는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 책 내용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얘기지 불교란 불(佛)자 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바닷물이 마르면 마침내 바다 밑바닥을 보지만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죽어도 마음을 모르느냐 말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소리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세상사람 전부는 자기를 모릅니다. 전부 남의 탓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나쁜 일은 다 남이 했다고 해요. 옛 조사들은 법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법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이들보다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는 이제 깨달음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참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제자 모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경책해 나갑시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것이 불법실천”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의 주인 되세요”

나의 수행일기



방민준

〈한국일보 광고국 부국장〉

골프치다 禪수련 연상 불교에 심취

‘칡캐다 산삼발견한 기분’ 책에 담아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시다가 최후로 불교를 선택해 그 선택을 일생의 행운으로 여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오랜동안 그저 어렴풋하게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불교란 보통의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보다 더 가깝다는 것, 어떤 절대자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깨달은 인간인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거지나 살인범이나 창녀는 물론 미물에 이르기까지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리고 아낙네들의 기복적인 신앙이나 일부 정상궤를 벗어난 스님들의 일탈행위들과는 무관하다는 것 정도였다. 웅대하고 심오한 우주철학고 자체인 불교를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런 나에게 어느날 갑자기 불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것도 골프라는 극히 세속적인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흔히들 골프를 20%의 기계적인 기술과 80%의 마음의 기술로 이뤄진 운동으로 정의할 만큼 골프는 유난히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는 운동이다. 보다 나은 플레이,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연습외에 부단한 정신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느순간 골프를 수련하는 것은 바로 고승들이 선(禪)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며 제대로 골프의 진수를 맛보려면 마음의 평정, 즉 평상심(平常心)이 필수적이다. 희노애락의 극단적인 감정과 갈등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초연해야 한다. 자아와 모든 대상이 일체가 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면 최고 경지의 골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때부터 시내서점의 불교코너와 조계사 부근의 서점을 전전하며 선에 관한 서적과 불교경전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것이구나!’하며 수없이 무릎을 쳤다. 거대한 광맥을 발견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머리맡에는 항상 십여권의 선 관련서적과 불경, 중국의 고전들이 놓여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수많은 정신세계의 책들이 내 머리맡을 거쳐갔다. 나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선과 경전에서 얻은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고, 골프라는 운동을 대하는 자세도 확연히 달라졌다. 골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더니 서서히 이 세상을 대하고 보는 눈과 마음도 열리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골프라는 치기 어린 듯한 운동을 하다가 뜻밖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칡뿌리를 캐려다가 산삼밭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이란 책을 쓴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많은 골퍼들에게 골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골프를 단지 보통 운동으로 여기고 육체적인 연습에만 열중하며 골프의 진면목을 모른 대부분의 골퍼들에게 골프가 안고 있는 깊디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라는 다이아몬드광을 찾아내고는 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더 절실했다. 불교에 문외한인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라는 운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시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수양도 하고, 진리를 찾는 혜안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아직은 부처님을 향한 뿌리가 여리고 짧지만 불교와 골프를 접목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향한 그리움의 불씨를 지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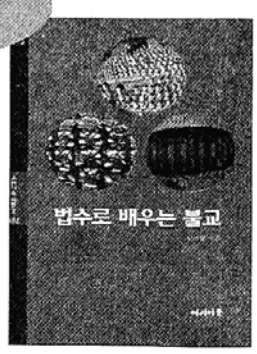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 · 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재열 지음●
B6 변형 19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변(七辯),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횡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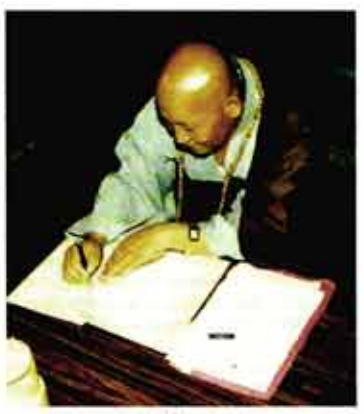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8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18일 49재…다시보는 해인사 동광당 명진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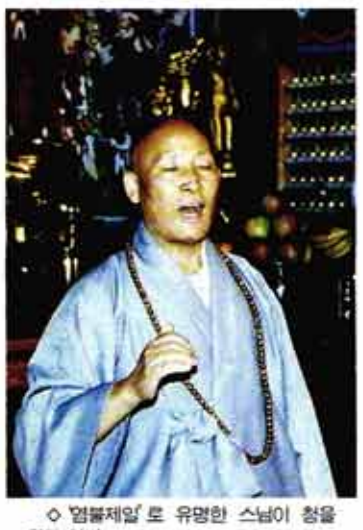
청정수행 · 자비실천의 삶 '귀감'



◇청년 수좌 때의 스님 모습.



◇사경하는 스님.



◇ '염불제일' 로 유명한 스님이 청을 하고 있다.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스님.

동광(東光)당 명진(明振) 대화상.

지난 11월1일 오후2시, 세수 60세 법랍 46세로 홀연히 원적에 드신 스님의 짧고 굵은 생애가 각박한 사바세계에 큰 귀감이 되면서 감동을 주고있다. 삼보정재와 시은(施恩)을 중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 수행자들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천태만상의 번뇌를 무겁게 지고 지미다 고통스러워 하는 세상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다.

"묘령에 불문에 득도하여 범패 어산에 대가를 이루어 그 청아하고 낭랑한 음성으로 제불보살 찬양터니, 이제 만물이 생명을 뿌리로 감추어 조락하는 계절에 시대육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근원으로 돌아가 천지와 하나가 되셨소."(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추모법어')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법신으로 영원히 불멸하니 역대의 조사가 성취한 안심입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법신본향에 귀향하셨으나 스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업적은 가람수호의 귀감이 되어 수행도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영결사')

해인총림 일군 살림꾼
절 창건 · '염불제일' 명성
천진보탑 · 불광보탑 세워
부처님사리 36과 봉안

58년 법보사찰인 해인사에 들어와 삼직부터 주지 소임까지 40여년 가야산을 지킨 명진스님. 길상암 스님방 문앞에 걸려있는 '지공스님이 해인성지를 점지하셨다'는 편액 내용대로 스님은 항상 해인사에 머물렀다.

오늘의 해인총림의 모습은 바로 스님이 일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풍스러운 가람 분위기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다.

82년 해인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도량정비부터 착수했다. 스님들이 수행하고 불자들이 기도정진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밝은 납자를 키우고 여법한 정리를 전파하는 '승풍제일'의 사찰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많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회관을 짓고, 종무소 건물의 낡은 기둥을 갈고, 요사채에 고성능 보일러를 설치했다. 이렇게 퇴락해 가는 당우를 중건한 것이 모두 9채, 뿐만 아니다. 범종을 조성했고 종만 걸어둘 수 없어 종각도 지었다. 또 대소 행사때 먹까지 튈 수 있는 방앗간을 최신 설비로 확충했다.

불과 2년만에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불사들이다. 명진스님의 불사에 대한 원력은 해인사 주지를 마치고도 계속됐다. 신내 길상암을 창건한 것을 비롯해 부산 사리암, 대구 청룡사, 의정부 삼은사 등 4곳의 사찰을 창건했다. 그리고 불사원력은 열반에들기 직전까지도 계속돼 해인사 아랫마을에 2천여평에 양로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 정지작업을 해왔다.

스님은 불사때마다 기도를 했다. 하루에 세번씩 해인사 장경각에서 시작해 큰법당, 삼성각, 강원 양쪽의 부처님께 절하고 천왕문 국사단까지 내려가 기도했다. 따지고보면, 모든 것을 기도의 원력으로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전에 스님은 이야기하곤 했다.

"기도란 부처님과 하나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심을 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거든요. 부처님의 원력은 위대해서 신심으로 행하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다."

그 기도는 오직 은사 영암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으로 부터의 대물림일 것임에 틀림없다. 길상암은 지난 72년 영암스님이 직접 터를 잡아주신곳. 영암스님은 자운스님과 함께 손수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길상암으로 이운해 길상암 위 묘길산봉에 천진보탑을 짓고 그 속에 모셨다. 영암스님은 이때 철야기도를 했던 것이다. 당시 스님도 은사스님 곁에서 길상암을 적멸보궁으로 가꾸겠다는 원을 세웠다. 마침내 95년 10월 미얀마 우소비타 종정이 직접 길상암으로 모셔온 석가여래 진신사리 34과를 불광사리탑을 건립해 봉안했다. 그래서 길상암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천진보탑과 불광보탑 등 두 곳의 사리탑이 자리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참배 기도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진스님이 은사로 부터 받은 대물림의 또 하나 있다. '염불'이다. 영암스님의 뒤를 이어 '염불제일' 스님이라 해인사는 물론이고 영남일원 법회의 큰 어식은 모두 스님이 집전할 정도. 스님은 예경의식을 청하는 곳은 모두 응했다.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불자 누구에게나 달려가 그들의 마음발을 채워주었던 것이다.

스님에게는 출세간에 50여명의 상좌가 있고 세간에 3백여명의 자식들이 있다. 82년부터 부모잃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어린이들을 돌본 것이 15년여. 그래서 길상암에는 연평균 15명 여의 불우아이들이 늘 함께 살아왔다.

스님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서로가 의지하며 자비를 생활화하여 작은 외로움조차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지녀왔다. 따뜻한 동체대비의 무애평등의 삶을 실천한 것이다.

스님이 가장 엄격할 때는 기도할 때와 상좌들을 가르칠 때.

"시주의 은혜를 중히 생각해라.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아라.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라."

이것은 스님이 말로써 표현한 바 없다. 그저 묵묵히 생활속에서 보여줄 뿐이다.

스님이 외출할 때면 공양주가 바쁘다. 반드시 도시락을 챙겨 떠나기 때문이다. 외식에 드는 정재가 아깝고 낭비하는 것같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고 보면, 생활 그대로가 기도정진이고 수행이다. 스님의 생애는 남긴 61과의 사리와 함께 무위진인(無爲眞人)으로 불자들의 심전을 밝히고 있다.



◇다비후 명진스님이 남긴 사리 61과.

열반송

吉祥庵主緣希朗 (길상암주연희랑)
景福宮徒沒戲藩 (경복궁도몰희랑)
千載老松同耶否 (천재노송동아부)
花潭龍子搏歸鄕 (화담용자박귀향)

길상암주 희랑대에 인연 있었고
경복궁 무리속에 희랑하도다
천년 노송은 알과 돼가 같은가 다른가
낙화담에 배룡 있으니 한번 치고 돌아오리

행장



- 1939년 4월21일 전북 정읍 生
- 54년 16세에 계룡산 신원사로 출가, 영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56년 신원사 금강계단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0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57년부터 해인사 주석
- 62년 해인사강원 대교과 졸업
- 66년 거창포교당 주지
- 70~72년 해인사 교무, 총무 국장
- 74년~82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82년~84년 해인사 주지
- 그밖에 총무원 교무부장, 해인사 임회의원, 평통자문회의 의원, 88올림픽 준비위원 등 역임
- 대구 청룡사 · 부산 사리암 · 의정부 삼은사 창건
- 96년 11월1일 오후2시 해인사 길상암서 열반



◇주력삼매에 든 명진스님.



◇스님이 40여년을 주석해온 길상암 전경.



◇72년 석가여래 진신사리 2과를 스리랑카에서 모셔와 천진보탑에 봉안했다. 참배 기도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천진보탑이 자리한 적멸보궁 전경.



◇미얀마 우소비타 종정이 직접 모셔온 석가여래진신사리 34과가 모셔져 있는 불광보탑. 해인사 길상암에 있다.

동광당 명진대화상 49재 봉행안내

지난 11월1일 열반에 드신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전 주지이신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49재를 아래과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문중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영결식은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각계 인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데 대해
거듭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9재 안내

▶일시 : 불기 2542년(1998년) 12월18일(금요일) 오전10시
▶장소 : 해인사 대적광전
▶문의 : 길상암(0599-932-7268)

※ 이날 참석하시는 신도님께 동광당 명진대화상의 생전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잎을 보시합니다.

· 문중대표 : 천운 법인
· 은법상좌 : 덕운 보타 법륜 무학 일륜 길상 선해 석우 견불 혜원 혜관 길남 해일 덕해 해중 일라 선일 광해 석철 성묵 보운 덕진 석전 대일 원일 현지 해광 보일 지선 지밀 보문 지정 지광 해웅 양지 정진 동운 길장 법장 진우 상현
· 손 상 좌 : 선각 선지 선관 기철 지운
· 재가제자 : 혜인 보해 해전 길조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自性佛은 무한 동력의 발전소 같아
용도따라 얼마든지 끌어 쓸수 있어

항상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저 마당이건 어디건 그냥 그대로 앉아서 들으시고 또 내가 말로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참 기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더불어 같이 요만한 풀 한 포기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하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자비는 너무나 커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릇대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더하고 덜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내려주시되 여러분의 그릇이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런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공부하러 다니지만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하며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주인공이란 자체는 그냥 이름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나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갈 때 어떻게 중심이 잡혀있습니까? 중심으로 인해서 바퀴는 돌아갈지언정 중심은 부동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고등동물의 상징을 받았으니 그대로 부처님 될 수 있는 게 99%란 얘깁니다. 그 얇은 막을 틔지 못해서 그렇지 가능성은 전부 있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그 불성 자체는 부동한 자세로 본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불의 근본은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배출해 준다는 얘기죠. 힘을 배출해 주니까 바퀴가 이탈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이것이 큰 강을 이루듯이 예를 들어서 강이 어떻게 해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됐겠습니까. 사방에서 다 모여드는 그 물이 한데 모이니까 바다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전후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거기에 놓으면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은 진짜로 내가 갖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다시 버리는 겁니다. 다 모아서 버려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그것을 걸러서 청수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적든지 크든지 다 내려주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한 바다에 물이 수증기로 올라와서 그것이 정화가 돼서 다시 내려올 때는 일체만물의 생명을 다 살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풀이라고 안줍디까. 비가 내리면 요만한 풀이라고 해서 그 비를 안먹습니까. 물을?. 그러니 비가 올 때 보세요. 적은 나무는 적은 대로 먹을 것이고 큰 나무는 큰 대로 먹을 것입니다. 아주 요만한 땅 끝에 붙은 풀은 땅 끝에 붙은대로 먹겠지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겠죠.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응해줘야
바로 보살행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좌선을 하고 앉는다 해도 앉은 게 아닙니다. 좌선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앉았을 때는 좌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일어날 때는 좌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좌선이 됩니까. 이건 끊임없이 돌아가는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 지구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사람의 삶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쉬었다 갔다 하는 것이 도루묵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참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네 생활하고 하나가 돼서 임선, 와선, 좌선, 행선 이것이 다 한데 합쳐서 참선인 것이죠. 전자의 선지식들도 다 어떠한 것 하나를 빼놓고 참선이 아니라 모두가 참선이니라, 용광로에 놓듯 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본래 부동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할텐데 '주인공이 있기는 뭐 빌어먹을 게 있어. 해도 안되는 거 뭐 주인공 아무리 불러도 안돼.'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이 부동한 자기자신의 불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믿거나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가 다 완벽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없는 억겁의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또 진화돼서 형성되고 또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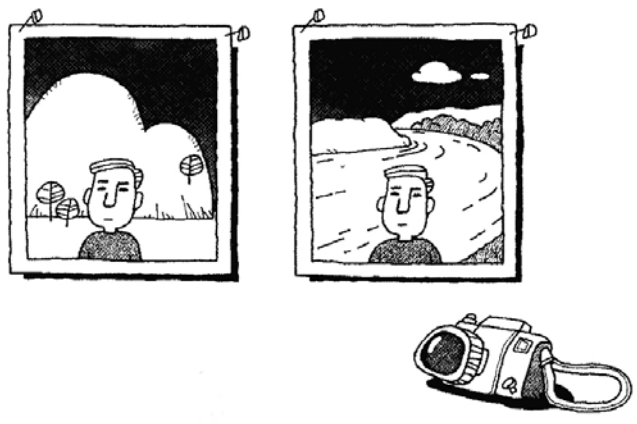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입선·좌선·와선·행선 한데 합쳐서 참선
모두가 참선이니 용광로에 놓듯 다 놔야

걸어서 이날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형성시켜온 자체를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어디에 비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불의 불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깨달으면 연등으로 화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틀 잡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이니까 말이예요. 즉 말하자면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에는 항상 전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 전력을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불은 바로 전력이 있는 발전소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을 보면 물의 사연들을 다 알게 되고, 산을 보면 산의 사연을 다 알게 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는 까닭입니다. 자불이 연관되니까 즉 말하자면 주해신으로 화한단 말입니다. 마음은 없는 게 마음입니다. 허공에 꽉찬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용도에 따라서 산에 일이 있어서 산을 보면은 주산신이 돼요. 주산신으로 화하는 거죠. 그건 왜냐, 그쪽도 주산신이라면 여기에서 주산신으로 합하면 주산신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인연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들신이 되고 땅을 보면 지신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명이 짧을 때는 칠성, 칠불이 되고 죽어서 좋은데로 못간다 하면 또 거기 용도에 따라 지장보살이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이것이 필요할 땐 이것이 되고 저것이 필요할 땐 저것이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름이 나오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자기 앞에 닥쳤으니 그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방편이다 이겁니다. 이렇듯 모든 전력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자의에서 구하니만큼 못하고 오히려 외도가 되는 거죠. 바깥에서 구하고 찾는 사람은 외도로 가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자불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진짜 자기 완성을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고 친근이 있죠. 친근이 있다는 것은 공심으로서 친근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리고 생명은 다 똑같죠. 적으나 크나, 개미나 코끼리나, 돌이나 나무나 어떤 것도 생명은 똑같으니까 공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 꽉찼으니 공생이지 공생이 뭐 달리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공심이고 공체고 공용인 것이지 우리가 만약 눈만 하나 이렇게 달렸다고 그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달렸다 해서 그 귀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같이 걸부돼서 즉 서로 원력이 돼야만이 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관해라, 관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맡기고 너만이 해줄 수 있어 하고 관해라 하는 겁니다. 모든 몸에 있는 의식들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뭔가. 수상행식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각자 여러분이 감수성이 빠르고 상상력이 빠르고 그렇게 되면 그냥 행(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으로 들어가면 공식으로 들어가죠. 수·상·행 이것이 식이 따로 없이 즉 식이 전부 원식으로 들어가요. 여러 말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데 합쳐서 원식이 됩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식 이렇게 하면 이게 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고 (196)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비춰볼때에...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해 놓고, 마치 꼭두각시 놀음을 구경하듯 구경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켜 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고드는 주처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지켜 보라. 생각하기 이전의 그 주처가 대공의 주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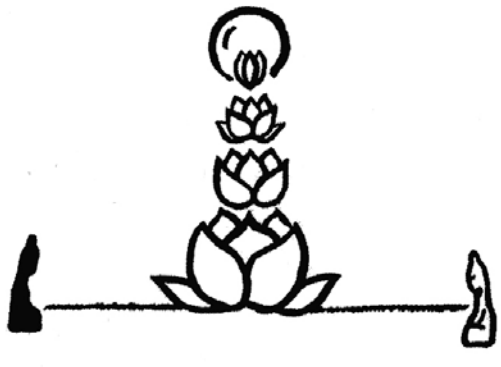
지켜 보라. 자기 발걸음을 지켜 보라. 말하는 건 누가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 보라. 자기 하나 있어 이날까지 모든 것을 해오고 있는 것을 지켜 보라.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면 끝내 찾지 못한다.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 그 자체를 살펴보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가. 자세하고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했느냐? 온 것은 누구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구덩이에 빠졌고 누가 나오려고 하느냐? 누가 울고 누가 웃느냐?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이고 그것을 지켜 보는 근본은 누구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직 '누가 하느냐'를 탐구하고 들어갈 때 공한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주인공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다.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 보라.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지금 왜 미혹한가, 나는 어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중생으로서의 자기를 영원한 자기, 무아인 주인공에 던져 버려야 한다.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면목이 있는 줄은 아는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하라.' 하는 것이 곧 관이다.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업이 돌아오고 선하게 쓰면 선업이 쌓인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지켜 보라. 지켜보고 나가다 보면 좋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 봤고 나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봤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알게 된다. 누가 하는지를 알 때에 자유인으로서의 극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가 돈을 갖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날 때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대로 하라. 다만 그것을 누가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 나의 것이라는 집착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를 보라.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 보는 게 관이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 보라.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이다. 사실 일체경계를 관한다 하지만 그 경계 또한 한마음 안의 일이니 경계가 따로 있지를 않지만 그러면서도 지켜 볼 경계가 있으니 놓고 관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놓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팎 경계를 지켜 보는 자기를 보고자 하게 된다.

관한다 함은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 무엇을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주인공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비는 것이지 관하는 게 아니다.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기만 하라. 그리고 오직 지켜 보기만 하라. 마음의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해 놓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 보라. 자아 부처의 자리에 코드를 꽂아 놓고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 보라. 상대를 두고 구하는 데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지켜 볼 때에 자꾸 망상이 든다 해도 망상조차 '주인공 자리다!' 하고 놓아라. 믿음이 약한 탓에 망상 끼어 드는 것이지만 놓고 관하라.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보면 안된다. 행하는 그대로를 '누가 하는가' 지켜 보라. 놓는다는 것은 용광로에 무쇠·잡쇠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 넣는 것이요, 관하는 것은 넣는 대로 용광로에서 재생되어 나옴을 지켜 보는 것이다.

설사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지켜보라. 관한다 함은 믿음으로 지켜 보는 것이요, 결코 둘로 보지 않고 지켜 봄이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자 관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근본 믿지 않으니 '탈' 많아져

☞ 15면에서 계속

써 병도 낫고 몸도 좋아지고 겁이 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먹여주기까지 할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그것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오히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다니니까 산을 보고 물로 가니까 물을 보게 되죠. 식구중에 누가 물에 갔을 때는 물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때 그때 용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물로 갔으니까 물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관했을 때는 바로 주해신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지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세지 않고 그냥 함이 없이 하고 돌아가니까 가지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것 보면 이것 본다, 저것 들으면 저것 듣는다 하고 일일이 적어놓으라면 아마도 힘들어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내몸 못 다스리고 내마음 화합 못하면 가정·나라·세계도 화합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자유스럽게 써라 이랬는데, 그 마음도 자유스럽게 쓰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라고 해도 살아오던 그 습 때문에 꼭 '아이구 이거는 언짢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럽니다. 잘되고 못되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보살행이다. 무조건 응해주는 것이 보살행이다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생각하셔야지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하게 돼있어. 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생각이냐 한생각이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한생각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냥 생각은 귀중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저절로 그대로 한생각이지, 생각 따로 있고 한생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한생각입니다. 이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한데 포함해서 생각이지 포함치 않고 생각이 나올 때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한생각이죠. 그대로 저절로. 그래서 한몸 한생각 그러니까 모두가 행선도 하나로 들어가고 와선도 하나로 들어가고, 입선도 하나로 들어가니까 전부 참선이지 참선 아닌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도 산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청산은 유구한데 사람은 옛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없는 까닭에 수없는 진리가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불래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뿐입니까.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어딨느냐. 자기 몸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자기 주인공, 자기 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근본 자리를 믿는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집 지을 때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기둥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초를 잘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다스릴 줄 몰라요. 사람은 일체를 다 알고 지냅니다. 알지만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을 이 도리를 공부할 때 실천을 하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기는 다 아시지만 말입니다.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몸을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을 화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화합하지 못하면 바로 나라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도 화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가서는 우주를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생각이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산란하게 쓰니까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다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두고서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람 사람의 자기 주장자는 정말이지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자재하고 또 그 경험있는 즉 말하자면 자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장자, 주장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맘 먹고 주장자로 한번 치면 온 세상이 바뀌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는 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참 한생각을 하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 과거는 과거가 돼서 버리고 현실은 현실이 돼서 삼세를 현실로 하나로 놓고서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란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한사람 한사람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들 있습니다. 재미있게 살다가도 금방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가 하면 도대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한철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알고 계발해서 또는 지혜물리가 터지게 해서 심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은 법안으로도 볼 수 있고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은 혜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더 높은 사람은 불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법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다니시다 보면 매미소리도 듣고 귀뚜라미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여러분이 안가시는데 없죠. 때에 따라선 꽃구경도 가시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러시죠.

나는 단풍을 볼 때 '아, 너도 단풍이 들었구나. 너도 한철 내년 봄을 기다리려면 비바람도 치고 폭풍도 몰아칠텐데 얼마나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생이 다 돼서 가는 것과 같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팔 구십년 많으면 백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일년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도 있겠지만 일년살이란 말입니다. 일년살이에 단풍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을 다 벗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떨면서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미가 말입니다. 매미 한가지로 비유하지만 전부 거기에 같이 돌아갑니다. 매미가 천일을 땅 속에서 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우는 것 같지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음을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부딪치고 하면서 매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감쪽같이 매미라는 옷을 벗고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천일이 되면 왔다가 잠시잠깐 있다가 들어갑니다. 만물이 이런 고통을 겪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은하계에 별성도 옷을 벗는데 사람이라고 옷을 안벗겠습니까. 자기의 차원이 참 그윽하다면 옷을 벗어도 벗은 차원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입어도 입은 사이가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옷을 벗었어도 내 근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은하계에도 근본은 그냥 있고 옷만 벗게 되는 거죠. 별성들 말이에요. 근본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그냥 두고 그 별성이 옷만 벗게 되면 그것이 공기가 없으니까 그냥 돌고 돌면서 가루가 돼서 우리가 사는 세계로 떨어지죠. 세계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딴데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수화풍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옷을 벗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돌아가되 그 지수화풍이라는 자체도 방편으로 잠시 자기가 차를 샀다가 차가 헐어지면 차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뚱이를 버려도 버린 사이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새차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버려도 버린 사이가 없고 가져도 가진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다. 내가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생명의 근본 불성이라는 자체는 무슨 간다 온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부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 어쩐다 이런 소리는 그냥 바퀴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탈한다 이런 소리죠.


그림 · 최주현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본 자기 불성 믿어야

밖으로 구하면 외도, 자불 찾으면 자기완성

불성은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부동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 겨우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주 산란해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분도 있고, 또 땅 속에서 그저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여러가집니다. 요즘은 좀 살맛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 속이 그렇게 딴딴한데도 그냥 촉촉하게 해서 자기가 나오는 줄 모르게 싹이 나와가지곤 향기를 풍기는데, 그 향기는 아주 이 코를 찌르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아이구 나는 저기서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는 여기 저기 옮겨다니는데 그것은 마음이 벌써 완벽하게 보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됐다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지구 주머니 속에서 무슨 이 자리 저 자리를 찾겠습니까.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아이고 내가 저쪽 길로 가봐야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저기로 가봐야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럽니까. 자기가 받은 바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몸 속에서도, 지금 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 도리를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자리를 뜰려고 하니까 자기 집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속에 생명들이, 자기 의식들이, 자기 맡은 바를 수행 안하고 그냥 이탈이 된다면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위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하하하. 또 간장공장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장공장에서 직원들이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면 어느 한쪽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굳어지는 자체가 바로 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 근본이 왕이거든요. 왕인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의식들도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죠.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어떻게 안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도자가 완벽하게 이끌어 나간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그냥 철저하게 해나가죠.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들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법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그 진리는 그대로 있었고, 나시고 나서도 그대로 있으며,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발전을 해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발전을 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사람만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명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다면 더 좋겠구요.

내가 예전에 산에 다닐 때 나무 밑으로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몇시나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럴 때 소나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지들이 아주 길게 뻗어있고 서쪽으로는 짧게 돼있어요. 그리고 껍데기도 동쪽은 크게 돼있고 서쪽은 적게 돼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시나 됐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이 의식들이 다 한마음이 돼있기 때문에 아주 담박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은요, 이게 폼으로 찬다고 해도 되지만 한편 사람이 너무 안다고, 아는 것만 시키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몇시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몇시구나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 좀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재밌게 웃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상을 찌푸리고 울고 살아야만 됩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닥칠려면 닥쳐와라, 닥쳐오는 너도 둘이 아닌 까닭에 죽일 수는 없어. 네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면 귀신도 그건 범접하지 못해요. 우리는 산 귀신이고 죽은 귀신은 죽은 귀신이죠. 그런데 산 귀신이 죽은 귀신을 못 이겨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 그래서 산 귀신은 죽은 귀신을 하나로 흡수한다. 그렇다면 흡수해서 거기서 찰나에 들어왔다 나가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돼서 오히려 자기 가정에 심부름꾼으로 보살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가족·조상이 잘못했다 해도 좋게 생각하면 한생각에 다 없어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충주에 그때 눈이 많이 와서 폭폭 발이 빠지고 옷도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입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인제 여름에는 둘로 나눠서 입고 겨울이면 한데 합쳐서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추운 데를 그때는요, 공부에 미쳐서 추운 것도 몰랐어요.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살았지, 아유 추워 이렇게 해본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요, 동네 일판이 그 뒤로 그냥 전부 6·25때 죽은 사람들 무덤이에요. 허허 이거 참, 그 모가지도 없고 팔도 없고 이런 영가들이 전부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와요. 그걸 모두 한데다 합쳐도 좁쌀 알갱이 하나에 내 마음이라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어요? 다 들어가니까 자리가 적지 않더라 이거에요.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자리가 맞고 크면 큰대로 맞고 작으면 작은대로 자리가 적지 않더라 이거죠.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이지, 너는 전자에 잘못하고 살인을 했으니까 너는 이런 죄를 받아야 돼, 이런 법은 없어요. 알았죠? 모두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과거에 조상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좋게 생각하면 한생각에 그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놔두고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화가 돼서 물이 떨어질 때 큰 나무는 큰대로 받아먹고 요만한 풀은 요만한대로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대로 받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인들 자기 그릇대로 담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그저 어차피 한철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살 것 없지 않습니까? 살다가 오늘 죽어도 한번 죽는 거요, 내일 죽어도 한번 죽는 건데 그 죽은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 합니까. 어떠한 게 닥쳐도 내 죽음을 탁 한번 버린다면 아무것도 두려울게 없을텐데 말이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고 식구가 있으니까 난 그렇게 못해 이러시는데 그런 소리가 어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해야죠. 버려야만 그 자잘한 애고가 없어진다구요.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면 작은 일들이지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쥐고서 그렇게 못뛰어넘고 고생을 합니까 글쎄. 꿈을 꾸고도 '아이구 스님, 꿈을 꾸니까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지금 사는 것도 꿈인데 꿈얘기 하느라고 바빠요.

영화배우들은 연극을 하다가 막을 내리면 그 뿐이죠. 연극이 끝난 줄 알고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죠. 그와 같은 살림이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 그렇게 애를 태웁니까. 좀 맡기고 편안하게 기 펴고 가슴 쭉 펴고 살아라 이 소리죠. 아이가 말을 안듣고 아이가 뭐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그릇이 작은 탓이예요. 그렇게 돼도 콧방귀 탁 뀌셔야 돼요. '아, 과거에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너 알아서, 네가 다 형성시켜 놓은 거니까 네가 그렇지 않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다 내던져 놓으면 그게 저절로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한테는 놓지 않고 책임을 못 질 사람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하하.

우리의 마음은 일체제불과 우주와 더불어 항상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한테 연등부처가 '이 다음에 태어나면 석가가 되거라' 하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기를 준 연등부처가 따로 있고 수기를 받은 석존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의 불성이 발현되고 지금 현재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살로 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체제불과도 같이 찰나찰나 통신이 되고 찰나찰나 모이고 찰나찰나 나투게 되는데 그 까닭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불이 연등불로 화해서 수기를 준 거지, 다른 부처가 석존한테 따로 수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지만 연등불은 그대로 연등불이며, 이 세상에 화해서 수많은 일체중생들의 인연을 다 지으셨죠.

아내가 정신질환 앓고 있어요

문 저의 집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관하기도 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장인어른이 좋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영향으로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쭙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내가 딴 사람 같으면 뭘해라 뭘 해라 이러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좀 편리하게 살게 하고 싶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있다 해도 한 군데로 몰아서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듯이 그냥 주인공에다 진짜로 믿고 탁 놔버려요. 타버리게. 그렇게 하시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관하세요. 댁의 마음이 그렇게 진정코 진실하다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걸 다 없애려면 마음을 그냥 몽땅 비워야지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하려면 몽땅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 그냥 놔버려요. 뭘 차려놓고 목탁이나 두들긴다고 낫는 게 아니예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다 안하시고 공부하겠다고 오는 그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1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너무도 영험한 자미두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수맥관련 상담
3. 기균형 전문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 인 •

비구니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390-2989

• 불교용품 •

사무장 초빙

보현도량 도솔산 **도안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방문요망

051)441-6773
011)825-1662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50~60대)

■ 위치 : 경남 합천
■ 맑고 청정한 기도도량으로 모십니다

053)427-8481

• 수련원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 타 •

달마보급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파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방산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大方廣佛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
목판본 백칠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32-7252 (김창본 처사)
02)962-6477

행운결혼 상담소

초 · 재혼 특별상담

●엘리트 우수회원 다수확보
●성심, 성혼 책임 보장
●신원확실, 비밀보장

※부모님 상담 환영
(代) 02)960-4564

• 사찰안내 •

사찰 (운영) 안내

◇위치 : 충북
◇부지 : 600평
◇법당 : 15평 ◇요사 : 30평
◇가액 : 6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 진 불 사

포교당 임대

◆부산 최요지 : 약 50평
◆보증금 :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 2,300만원
◆방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신도카드 500매

051)441-6773
011)825-1662

인연되는 사찰을 찾습니다

천일기도와 백일기도에 원력을 세운 스님입니다. 절을 맡겨 운영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1)888-0538

포교당 인수하실분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시장입구 2층
◆평수 : 법당 30평,방 2칸 10평
◆시설 : 부엌, 욕상 있음
(주인직접 운영할 포교당 인수할 분)
◆가액 : 시설비 500만 보증금 1,000+30
◆가격은 1/2 가격임

053)557-1145

최고의 명당 신축 "절"

◆위치 : 경기도 광주 (명당터)
◆현재 공사중 급한사정으로 안내
◆대지 451평, 절 1층 68평 요사채 (주택), 1층 39평, 2층 36평
◆가액 : 건축비 6억+부지 4억 --> 사정상 6억

0347)766-2357 함석환

사찰(전세)안내

◆위치 : 대구시
◆2층 법당 - 관세음보살
◆1층 요사 - 방2개, 종무실, 주방 욕실
◆가액 : 전세금 3천 5백만원

011)790-7162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 대지 : 100평
◇ 법당 : 16평
◇ 요사 : 2동 25평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장기임대가능

011)594-08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약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사찰 최적지

◆한라산 수행도량
◆평수 : 임야 1천평
◆건물 : 2층 85평 1동 단층 15평 1동
◆가격 : 상담후 절충
◆한라산의 신성하고 울창한 계곡과 교통이 편리한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064)732-6999 주간
064)732-9616 야간

사찰안내

■위치 : 양평군 양수리근역
■건평 : 총7동 140평
■대지 : 2천평
■매가 : 13억원
※ 강남에서 30분거리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사찰로서 서울-양평간 4차선 국도에서 300m거리에 위치
■특징: 중개인사절

011)659-8538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77-2117
052)248-7362
018)587-3585

사찰 안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10분거리)
◆대지 : 207평
◆부지 : 종교시설
◆법당 28평, 요사채 30평(방5개)
◆가격 : 2억 5천만(급매)
◆물이 좋고 약수도 있음.

0347)762-8525
0336)633-2684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급매) ※

032)831-3889
012)925-6118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남성동
◆ 평 수 : 대지 700평(두필지)
◆ 법 당 : 25평
◆ 요사채 : 2층 70평
◆ 1층- 식당
◆ 가액은 전화상담요!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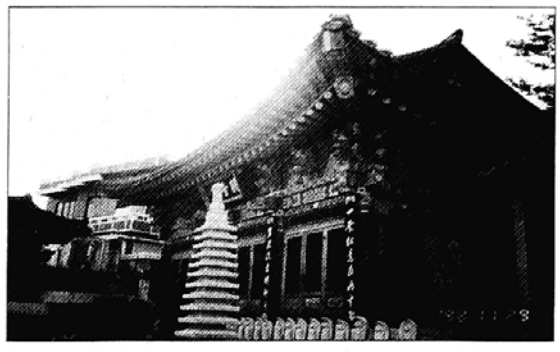
0582)533-3897
019)507-2318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15평 ■요사채 : 30평
■부지 : 2,700평
■가액 : 5,000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998-1994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안내



■위치 : 동구 초량6동 ■부지 : 183평
■법당 : 40평(홍송으로 지은 법당, 단청필, 기와지붕)
■요사채 (7칸), 법당, 산신각, 종각, 창고(2개)
■가액 : 답사후 절충요망

※ 부산 앞바다가 보이고, 삼중스님이 주지로서 3년동안 포교하던곳

051)467-2366

토굴 및 별장

■위치 : 가야산밑
■대지 : 평수 152평
■건평 : 15평
■가액 : 4천 5백 절충가능
◆산세수려하고 약수좋고 신축 건물 기와집

0543)955-7768

사 찰 안 내

◆지안 용담댐 상류
◆경치좋은 유원지내 도로변 사찰!!
◆종교용지 500여평, 석굴암 (법당) 15평, 요사 35평
◆양도가: 1억 2천만원

0655)433-2900
0652)282-1536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 3거리
◆평수 : 50평
◆시설 : 현대식 시설. 잘 갖추어져 있음.
◆권리금 : 없음
◆가액 : 전세 7천만원
◆교통편리, 절철역 걸어서 5분거리
◆시내버스 포교당앞 하차

02)941-3195

사찰 운영하실분

■위치 : 경기도 안성 ■부지 : 422평 ■법당 : 32평
■요사채 : 90평 ■산신각 : 4평 ■가액 : 답사후 절충

■위치 : 경기도 용인 ■부지 : 77평
■법당 : 30평 ■산신각 : 10평
■가액 : 5천만원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수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삼포 목조, 문화재급, 시설 A급)
◆요사채 : 지상 20평, 목조, 지하50평, 산신각 5평(돌벽)
◆채공실 : 17평(조립식) ◆가액 : 15억
◆ 특징 : 산세수려, 물좋고 남골당, 양로원,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 서울버스 124번 버스종점근처 서울과 거리는 3분거리, 주차장 30대 가능
※ 운영하실 분은 연락요망.

02)899-4281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44-2459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포교원(토굴)급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정 각 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대지 : 190평 등기분)
◆서울에서 장항선열차로 2시간 거리)
◆구조 : 법당(임법당)1칸, 삼존불, 탱화 4점, 방 3칸, 거실 및 조리장1칸, 샤워 및 보일러실 1칸, 현관 및 넓은 마루가 있으며 도난방지용 2층창 설치
◆특별급매가 : 3천만원
※단, 본 특별가는 12월 31까지에 한함

0451)641-7569/011)401-8259

불자 세상보기

공생위한 생명과학 발전
인류-생태계 악영향 우려

인간복제 · 유전자 조작 속출…강력 규제 절실

'인간과 소의 세포 결합', '인간과 원숭이 합성', '간, 뼈, 혈액 등 필요한 조직 선택 배양',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범람'. 복제양 돌리 탄생이후 잇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자칫 인류와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에, 생명공학의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인간복제

유네스코는 10일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회의'에서 '유전자의 인권 보호'를 의제로 인류보존-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보편적 윤리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달 11일 제29차 총회에서 '인간게놈(유전자+염색체)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 주안점은 이 분야에서 과학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연구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과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최근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제1차 합의회의'를 열고 "유전자조작 등 생명공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합의회의 또는 기술영향평가제도 등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정부는 행정·재정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한편 유전자를 조작해 재배한 미국산 콩이 5일 대량으로 인천 외항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등은 "유전자조작 곡물은 예측할 수 없는 인체독성을 낳거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

건축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생명체의 유전자. 건축물이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듯,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형성되기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반인반수의 괴물,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도 가능할 것 같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대규모 방출은 자연종이 유전적 변종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 이종간 교배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 새로운 병원균이 진화할 가능성 등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단 자연환경에 방출된 GMO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진화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변이된 유전자가 들어있는 농·수산물은 암, 독소,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동물·인간복제는 유전자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 위험을 야기한다. 생명을 수단시하는 윤리의식의 저하는 결국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관계와 문화의 타락을 수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

종교인과 윤리학자, 생태·환경주의자를 비롯한 시민들도 생명공학의 동향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쉬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공학의 기술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공학·유전공학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외국의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인간이 자연을 겸허한 자세로 대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재앙만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4일 서울 용산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유전자 조작 콩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교의 눈 "사람 몸 받기 어렵거늘…"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자신인가, 자식인가, 제3의 타인인가. 그것을 부양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복제를 '출생'으로 볼 수 있는가. 생명공학의 가공할 발전으로 머잖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날도 올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타고 나기 어렵기가 우담화(優曇花)의 꽃핀 것을 만나는 것 같거늘, 나는 이제 얻었도다."(열반경)라고 설했는데, 이런 가르침도 틀린 것일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내(인간)가 가장 존귀하다(天上天下 唯我獨尊)'는 부처님의 인권선언도 인간의 상품화로 헛말이 되는 것일까.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류·생태계의 재앙을 막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장차 '부처님이 될'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이란 마지막 희망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환경 · 사회단체 올 10대 뉴스
그린벨트 해제-동강댐등 선정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운영위원장·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는 98년 10대 환경뉴스를 8일 발표했다. 매년 각 단체별로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전국의 환경단체협의기구인 '환경사회단체회의'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발표한 것.

환경사회단체회의는 "50년만의 정권교체와 사상최대의 경제위기인 IMF상황으로 대변되는 98년은 '환경정책의 전면적 후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 없는 한 해였다"고 규정하면서, 이로인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삶의 질적 하락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위 그린벨트 정책 대폭후퇴, ②위 영월 동강댐 반대운동 및 백지화 가능성 ③위 새만금간척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공방, ④위 팔당호 수질대책 대폭 후퇴, ⑤위 지구 환경변화로 기상이변 빈발, ⑥위 환경호르몬 및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⑦위 지하수 방사능 오염·수돗물 바이러스 발견 등 먹는 물 문제 심각, ⑧위 야생동물살리기 등 생태계 보전운동 활발, ⑨위 국립공원정책 후퇴, ⑩위 국민의정부와 파트너쉽 형성 등 민간환경단체 위상 격상 등.

올 왕따 피해학생 5천4백명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왕따' 현상이 올 들어서만 무려 4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앙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근절 대토론회'에서 올해 1~9월 전국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모두 4천여건(피해학생 5천4백명)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95년 한해 '이지메' 건수가 5만7천여건에 달하는등 90년대 중반까지 극성을 부리다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왕따'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통신 사이버 윤락조직 적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윤락을 알선해 온 이른바 '사이버 포주'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더구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신학대학 휴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지검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석규(27)씨는 PC통신 대화방을 통해 여대생과 대졸 직장여성 등 10여명을 윤락녀로 모집, 남자 고객에게 알선해 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일 비서' 광고, 이벤트, 전화방, 폰팅, 화상 대화방, 원조교제 등을 통한 신종·변종 매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론

출가자라면…



이 평 래
〈충남대 교수 · 철학과〉

"총-칼 들고 오는 적이라도 자비와 지혜로 조복시키거늘…"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고 살기 때문에 다툼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더불어 살기 위하여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강제규정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우주적인 큰 자유를 향유하면서 살기 위하여 출가사문이 되는 것이다.

세속인들도 일이 있으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고와 인내가 여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요즘 조계종의 집안싸움은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학교에서 철학, 그것도 불교철학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더욱 그렇다. 불경(佛經)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화정신의 실천이다. 티벳은, 중공의 잔악한 침략으로 100만이 넘은 생명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겼지만,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세계의 어디에서도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평화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살생계를 자국민뿐 아니라, 세계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적인 시사방송인 CNN이나 BBC에까지 사문들의 싸움하는 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무엇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수행인의 자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이나 칼을 들고 오는 적이라도 자비와 지혜를 힘으로 삼아 조복시켜야 할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종권을 위해 추잡한 꼴을 보여서야….

앞으로 조계종이 살길은 무엇인가? 싸움질을 그만두고 뭉쳐서 화합하는 길뿐이다. 귀감으로 삼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무씨를 하나 얻어왔다. 할아버지는 이 씨앗을 텃밭에 뿌려서 잘 가꾸었다. 김을 내고 거름을 알맞게 주어서 무가 커다랗게 자랐다. 할아버지는 가을이 되어 이 무를 뽑으려고, "어여차, 어여차"하고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그러나 뿌리가 너무나 크게 자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뽑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힘을 합하여 "어여차, 어여차"하고 무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꼼짝도 안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개를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개는 힘을 합하여 "어여차, 어여차"하고 무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꼼짝도 안 했다. 그래서 개는 또 고양이를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개 그리고 고양이는 힘을 합하여 "어여차, 어여차"하고 무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래도 꼼짝을 안했다. 그래서 고양이는 또 쥐를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개, 고양이 그리고 쥐는 힘을 합하여 "어여차, 어여차"하고 무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제야 무가 쑥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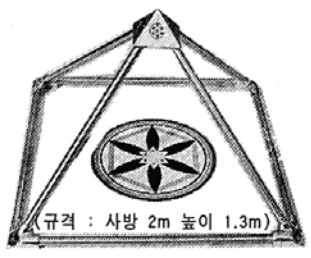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며, 쥐가 그들에게 깨나겁라는 것은 상식적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일을 위하여 동지로 뭉치지 않았는가. 사문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딸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간인데, 형제자매끼리 싸우면 집안만 망할 뿐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다. 조계종의 집안싸움은 총무원장선거가 질료인(質料因)이라면 세 달(月)은 동작인(動作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에게 참회하는 길밖에 없다. 세 달(月)은 빨리 질수록 좋다. 토굴 속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권청한다.

"세 달(月)이여, 어서 지소서"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아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규격 : 사방 2m 높이 1.3m)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돌안경
대덕 스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세신안경점」을 운영하던 이성옥입니다.
흑석동에서 운영하던 십수년간 저희 돌안경을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던 스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IMF 한파와 수공작업의 어려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신행생활의 일환으로 스님들을 위한 돌안경을 꾸준히 가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벌의 돌안경을 스님들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저 합니다.
세신안경의 돌안경을 아껴주신 스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 12월 8일~99년 1월 8일까지 ※
스님 100분에 한해 돌안경 10만원에 보급
(보안경 한벌에 10만원)
분당세신옴니코아
세 신 안 경
▶ TEL : 0342)703-5049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이 성 옥 합장

2천 3백여 가족 동참 · 4억원 모금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결산

2월 25일부터 시작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국난극복과 미래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에는 전국 38개 사찰과 2천3백여 가족들의 참여에 힘입어 지금까지 총 3억9천2백6십여만원의 약정액을 모금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팔만대장경전산화 과정을 담은 홍보비디오의 제작·배포로 경전전산화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대중음악가 김수철씨에게 의뢰하여 5월 발표한 '팔만대장경' 음악은 언어와 사상을 떠나 불교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주목된다.

또 고려대장경연구소가 10월 발간한 〈고려대장경 해제〉는 불교인문학의 기초자료인 서지학 정보를 체계화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평이다. 〈고려대장경 해제〉는 고려대장경을 구성하고 있는 총 1천5백14종의 경전과 그외 3백33종의 소의 경전을 포함한 1천8백47종의 경전을 요약정리하고 기본 해제 정보를 제공한다.

전산화에 있어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자동교정프로그램과 4바이트 한자 전문워드프로그램인 '고려워드'를 개발해, 현재 입력·전산화 대장경의 검색 및 효율적 교정·교감을 실현했다. 이에 따라 97년 1차 교정·교감을 통해 고려대장경에서 추출된 이체자의 출전과 활용을 밝히는 〈이체자자전〉 발간에 필요한 편집·입력작업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올 한 해동안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 21세기 문명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불교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내년 한 해동안 △이체자 자전의 발간과 고려대장경의 △불교용어를 전자사전으로 편찬하고 △자동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2차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고려대장경 전산화 자료의 △검색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 전문 표점작업(標點作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려대장경 원문 전체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문장단위로 나누어 문장부호(표점)를 붙이는 표점작업이 완료되면 고려대장경 전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반인들도 쉽게 읽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들은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함께 21세기 불교를 준비하는 민족불교의 희망으로 모두에게 회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CD음반 발표 · 세미나 개최 호평
'해제' 발간 · 자동교정 프로 개발
새해 전자사전 · 표점작업 추진

회향의 말

고려대장경硏 소장 종림스님



어려웠던 한해,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2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국난극복과 미래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은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한자문헌정보인 고려대장경을 21세기 디지털 정보로 다시 만드는 고려대장경전산화 작업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올 한 해동안 대장경에 사용된 한자의 활용이 용이한 고려워드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쳤으며 고려대장경 전산화 본의 2차 교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고려대장경 해제〉를 출간해 불교학으로써 '대장경학(學)'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천이백만 한자의 입력과 교정, 이를 문장단위로 새로이 구분하는 표점작업과 손쉬운 검색을 통해 누구나 부처님 법을 쉽게 찾고 보며 나눌 수 있는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은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기에 수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인류문화사상 가장 방대한 양의 한자문헌정보를 전산화하는 고려대장경전산화 작업은 앞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 개발시간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신중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성과물일지라도 여러분의 후원과 성원 속에 준비되는 결과물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작업이기에 더없이 값진 공덕이며 보람으로 여러불자님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21세기는 기다리면 다가오는 문명이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류문명이기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굴함이 없는 정진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미약하나마 디지털 정보로 만들고 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하는 자료로 만드는 일은 더욱이 한량없는 불사임을 다시한번 깨닫으며 계속되는 관심과 후원속에 불교의 미래를 조심스레 그려보고자 합니다.

'새문명 창조' 불사 동참에 감사

법회후원인 명단

학림사 ▶백종채 박보련화 백순일 백혜숙(서울특별시 노원구) ▶김기열 정정수 김경호 김인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상철 김덕운화 주희정 최월계(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상열 윤상품화 김무석 김상미(서울특별시 도봉구) ▶이강덕 양무진월 이유정 이선열 이지영 조만익 이은경(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문정사 ▶이각산 양각화행 이소영 이치운 이윤영(서울특별시 양천구) ▶홍건표 송현수화 홍성우 오은진 홍수민 김선남 홍영미 이연복 홍영선 이재원 이혜원(충청북도 진천군) ▶전병기 노영자 전성규 전법규 신경련 전윤주 유희성 유대한 유민국(충청북도 청주시) ▶이원호 이정숙 이준수 이승은 이지영(충청북도 청주시) ▶윤병익 장성식 윤인섭 윤지원(충청북도 청주시) ▶이상순 이진영 변정숙(충청북도 청주시) ▶조병인 남명분 조수경 조수정 조수진 조한별(충청북도 청주시) ▶조상호 정차희 조재훈 조순영(충청북도 청주시) ▶김응오 유재훈 김봉규 김복규(충청북도 청주시) ▶정영준 서순자 정현석 정지혜(충청북도 청주시) ▶김용직 우금이 김나희 김나연(충청북도 청주시) ▶방천용 이종신 방효석 방효진(충청북도 청주시) ▶원용기 이춘자 윤석주 강은수 윤주형 윤현주(충청북도 청주시) ▶이준순 조현숙 조현진(충청북도 청주시) ▶김창수 김영란 김용진 김유진(충청북도 청주시) ▶신원식 서안락행 신관호 신기호 신병호 신현주 최명수 유재섭 신문수 신용수(충청북도 청주시) ▶신두출 고석필 신건국 신주영 신세영(충청북도 청주시) ▶고진용 임정순 고석주 최명호 고태윤 고경선(충청북도 청주시) ▶이석구 신예균 이재복 임명희 이창원 이보명(충청북도 청주시) ▶박금석(충청북도 청주시) ▶박상배 김관희 박설 박승환(충청북도 청주시) ▶반영동 성송영 반은하 반재민 반재현(충청북도 청주시) ▶황기성 김대자심 황동욱 황정원(충청북도 청주시) ▶이기정 조혜정 이정연 이정희(충청북도 청주시) ▶변영찬 임경애 변현규 변해진(충청북도 청주시) ▶홍보문성 정원용 진미경 정민주 정상훈 정성용 이인영(충청북도 청주시) ▶이중찬 안효숙 이정호 이장호 이은영 이중문 이중효 이창호 이지연(충청북도 청주시) ▶김현명 심의자 김은경(충청북도 청주시) ▶김진복 심자금성 김태수 김소영 김소명(충청북도 청주시) ▶박종오 최만선화 박성순 박건순 박혜숙(충청북도 청주시)

강천사 ▶최영순 홍순영 홍순엽 홍준표 홍승표 홍정표 고순엽 지찬신 홍순임(강원도 영월군) ▶임대현 이위순 임현석 임재범 임정재 임정수 임지수 임수연 이재숙 전현희(경기도 안양시) ▶전상호 임순선 전진우 전재우 전광우 전혜경 전인자 전계자(경상북도 영양군) ▶김덕련 임규식 하춘경 임학진 임명진 임규복(경상북도 영양군) ▶이순남 김진우 김형지 김성근 전병률 오영식 전지연(부산광역시 북구) ▶강내희 손정자 강성자 강성일 강미옥 옥영삼 강미성(부산광역시 북구) ▶조정자 한철수 한민수 한혜경 송철희(부산광역시 북구) ▶조성운 이옥란 조영준(부산광역시 사상구) ▶신재기 이분남 신영아 신인철(부산광역시 사상구) ▶황인정 차희경 황성민 황성철(서울특별시 서초구) ▶나일채 강마니성 나창업 김형신 나철원 나철호 나병업 박선희 나철진 나봉업(서울특별시 송파구) ▶이무승월 안기영 안주영 장경숙 안병호 안인호 안병숙 안유정(인천광역시 남구) ▶안종란 이대호 남명자 이철인 이형진(인천광역시 서구) ▶박영진 황금윤월 박승은 박승창 박민수 박장수 박수아 박수진 김동선 심재호(충청남도 예산군) ▶김태윤 이순태 김현구 송민서 김용민 김용주 김선용 권호순 김용범 김순옥(충청북도 제천시) ▶장수복 강성욱 김윤이 김민서 박복제 강향숙 남근수 강호진 남광열(충청북도 제천시) ▶이해순 임성규 김광선 임은희 임영희 임성숙 임정완 임양선 임효주 정한별 최우람(충청북도 제천시) ▶박법보화 김병헌 김정기 김대종 김명종 김병학 윤성혜 박윤호 김경희 박세용(충청북도 제천시) ▶민완식 민광식(충청북도 제천시) ▶황달순 박정암심 황성오 주현실 황희원 황희연 황성기 안은진 황희수 황희정(충청북도 제천시) ▶최성철 최지민 최준영 백순연 김덕수 이옥자(충청북도 제천시) ▶이영국 김주옥 이완규 이민규(충청북도 제천시) ▶김인응 장정순 김태원 김주식 김봉식 김문식 김태상(충청북도 제천시) ▶김용배 태임균 김양중 김상중 김선배 김신영 김선영 신영진 이방남(충청북도 제천시) ▶종해스님(충청북도 제천시) ▶지광스님(충청북도 제천시) ▶이풍 박순예 이원철 이계림 이계숙 이현욱(충청북도 제천시) ▶신기호 임청량심 신지원 신상원 신선일(충청북도 제천시) ▶김성옥 이상희(충청북도 제천시) ▶김남섭 박묘행선 김용례 정인자 김동준 김희영 김영례 강경옥(충청북도 제천시) ▶김법례 안재옥 김동현 김동균(충청북도 제천시) ▶권연화성 오윤식 이지애 오병준 오소민(충청북도 제천시) ▶김무애성 한원용 권순정 한민정(충청북도 제천시) ▶김지덕화 엄세영 엄형식 엄준식 엄태원 양순자 엄정식 엄정민(충청북도 제천시) ▶이재선 황상섭 황철환 황조영 황상림 이명호 최다미(충청북도 제천시) ▶최종천 김영인 최경태 이정희 최윤석 최현주 최현미(충청북도 제천시) ▶얼윤영 정애진 엄지헤 엄효식(충청북도 제천시) ▶정연순 송정범 송선법 박재순 송유진 송지연 송윤정 송수영(충청북도 제천시) ▶정월상화 박순복 김화옥 박용희 박미숙 박지숙(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SOONJA JONES (4023 WILLOW GLEN DR BATON ROUGE, LA 70809 U.S.A) ▶효건스님(강원도 강릉시) ▶이영호 장진선 이수희 이수현(강원도 홍천군) ▶성유현 성연준 성연재 김숙자K(경기도 고양시) ▶김태훈 김혜윤 김현식 김지윤(경기도 고양시) ▶박문섭 업계진 박명의(경기도 부천시) ▶유병일 최영순 유재형(경기도 성남시) ▶본경스님(경기도 의정부시) ▶수현스님(경상남도 거창군) ▶박개술 김순득 박영숙 박재근(경상남도 양산시) ▶대원스님(경상남도 양산시) ▶김소순(경상남도 진해시) ▶김태명 김태균(경상남도 진해시) ▶도연스님(경상남도 합천군) ▶진일스님(경상북도 경주시) ▶혜성스님(경상북도 경주시) ▶일공스님(경상북도 김천시) ▶정옥환 이호경 김재염 이철원 이인원(경상북도 김천시) ▶태화스님(경상북도 안동시) ▶박치남 오경식 이서경 오제형 오제량(경상북도 포항시) ▶성율용 허미 성치엽 성치헌(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일스님(대전광역시 서구) ▶신일만 박윤준 신수길 박인숙 신재동 신규동(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진수 양계선 김효욱 김기덕(부산광역시 금정구) ▶이근희 정법종륜 이득희 하지영 이정재(부산광역시 금정구) ▶한정순 김득환 이명옥 김일경 김란정(부산광역시 동구) ▶일법계심 박상구 이명옥 박양권 박형권(부산광역시 동구) ▶이복순 김홍식 조영보 김지호 김성원 김소연(부산광역시 동구) ▶정찬스님(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영롱(부산광역시 동래구) ▶임상섭 김성연 임준오 김종구 임옥희(부산광역시 동래구) ▶정경모 고금란 정진효 정수인(부산광역시 북구) ▶김혜경(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한섭 이기림 주은정 주은미 주용근(부산광역시 연제구) ▶명준스님(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산관음회(부산광역시 중구) ▶삼휴스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류제택 박점순 류상우 류효숙 류상미 류윤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우열 도혜옥 김현진 김현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명환 김호정 김지연 김보경(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효근 안준원 심혜숙 두순희 김영슬 문영재 최일웅 안옥 김원술 한규영(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정구 김귀복 이성재 김락희 고석정 김병문 김정규 김순만 임승래 고병익(서울특별시 관악구) ▶권이혁 이현재 박봉식 조완규 김종운 지주철 송명자 김명중 오병석 김진문 오원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유병호 한문수 고의곤 서정식 김진덕 최인홍 강혁신 김애영 강효자 이한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일상 신현주 백은기 유장욱 어수정 선경배 김석용 염양 신춘식 권춘택(서울특별시 관악구) ▶김광웅 김완식 전종운 김종현 송행남 이용만 최생인 황인구 진경옥 송주식(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교 임규섭 이영희 이동율 김형식 오춘식 유효식 양순영 이희형 박명일(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종남 이난구 김시곤 최성배 오상룡 유민용 김종길 김형진 김강주 노석(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인기 이용한 송환 이창수 박해국 정재수 김행균 김순자 김희봉 박혜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정희철 김학준 박을룡 박우희 김여수 장병림 차재호 심영희 최병헌 노희덕(서울특별시 관악구) ▶심재기 이상익 민병수 천기태 황운석 최진령 김미란 고석구 이병찬 김진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송창기 김학주 김시준 최완식 장기근 차주환 유성준 문명숙 원종례 이상철(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진의 김진세 이병설 신익성 표학길 진기엽 립문웅 대동웅 양일연 장위인 왕인홍(서울특별시 관악구) ▶손진 김가석 배보언 진수무 황래영 장경명 소아린 주부미 정원민 보궐교사 제위(서울특별시 관악구) ▶승우스님(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재의 오경순 노일성 이봉리 노혜경 노지용(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호 전희옥 최재영 최선영(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대자쎔 장주병 장유호 장봉성 장봉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법스님 김광수 주정자 김진섭 김주육 박경애 김주혁 정하정 김정순(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영도 한만숙 정희라 정진아 김영식 한숙자 김강호 김명수 김정옥 이종선(서울특별시 동작구) ▶나영찬 최영숙 나건중 나경윤(서울특별시 서초구) ▶백종국 이혜성화 백승원 최은선 백승찬 손경희 백승권 김문희(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운수 최영님 정성연 정정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상국 김태영 서보형 서주형 서호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정화영 윤규희 정꽃님 정락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규택 김태림 이종황 이영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설화 김정선 정윤석 정승연(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진혁 김희자 정우진 정유진(인천광역시 부평구) ▶상덕스님(제주도 북제주군) ▶정안스님(충청남도 당진군) ▶법해스님(충청북도 보은군)

대장경연구소 (02)797-0585
http://www.sutra.re.kr

"자연속 심신닦으며 협동심 배워"

교계 신행단체 청소년겨울캠프 마련

눈꽃축제 · 스키교실 · 극기훈련등 다채
사찰참배 · 자연관찰학습 · 직업특강도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 어린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겨울캠프가 지역 사회복지관과 신행단체들에 의해 마련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21~23일 오대산 수련원에서 '강한 마음, 맑은 마음, 하나되는 마음'을 주제로 중·고교생 대상 '겨울 수련활동'을 실시한다. △기구만들어 띄우기 △미니 오리엔티어링 △심성수련활동 △환경보전을 위한 슬라이드 강좌 △직업선택에 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활동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파라미타 최병수 연구실장(성동고 과학부장) 등이 준비했다. (02)723-6165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묵스님)는 21일부터 2월중순까지 '하얀 부처님 나라'라는 주제로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눈썰매 캠프를 가진다. 선착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되는 '눈썰매 캠프'는 걸음마 눈썰매와 리프트 눈썰매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 봉선사를 참배하고, 불교 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02)738-7860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는 28~30일, 1월 5~7일, 1월 12~14일 3회에 걸쳐 천마산 스키장에서 '98 동계 스키캠프'을 연다.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등 1백여명을 모집해 실시하는 스키캠프에서는 걸음마 스키교실, 영상교육, 눈꽃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646-8341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1999년 1월 8~11일까지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스님)에서 '98 큰사람 캠프대회'를 마련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겨울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02)278-8672

강원도 치악산에 자리잡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원장 현각스님)은 초·중등부를 대상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월 중순경 드림랜드에서 2박3일간 눈썰매를 즐기며, 자연학습원 시설을 이용한 극기훈련·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4,353평 규모의 자연학습원에는 400여점의 동물·조류·어류·광물류을 전시하고 있는 표본실을 비롯해 7개의 자연관찰로, 운동장, 모험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0371)731-1600

이외에도 월곡청소년센터(관장 최일산)는 21~23일 장위동 드림랜드에서 초등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스케이트 교실'을 연다. (02)918-3543



◇ '추위도 이기고, 친구도 사귀고.' 파라미타등 교계 신행단체 10여곳에서 겨울캠프를 마련했다.

또 1999년 1월 초순경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원장스님)은 경주 눈썰매장에서, 송광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은 장성 애플 눈썰매장에서 각각 '눈나라 캠프'를 마련한다.

오종욱 기자

◇청소년 겨울캠프

단체	행사내용	대상	기간	문의
파라미타	심성수련·환경·직업강좌	중고생	21~23일	(02)723-6165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눈썰매캠프, 사찰유적 답사	중고생	21일~2월중순	(02)738-7860
목동청소년회관	스키교실, 눈꽃축제, 영상교육	어린이 청소년	28일~1월14일	(02)646-8341
우리는선우	실상사 겨울캠프, 생명·민주의식 교육	중고생	1월8일~11일	(02)278-8672
원주 자연학습원	극기훈련, 동물·조류·광물 전시 관람	어린이 청소년	1월 중순	(0371)731-1600
월곡청소년센터	스케이트교실	어린이	21~23일	(02)918-3543
공창사회복지관	눈썰매캠프	어린이	1월 초순	(051)363-2063
송광사회복지관	눈나라캠프	어린이	1월 초순	(062)941-8248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청교련 마로니에공원서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22일 2시30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동대부고, 명성여고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유해환경추방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중·고교생 1백여명은 대학로의 유흥업소들을 방문,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청소년들에게 스티커와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청교련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3시간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한다.

고난딛고 대청봉 정복
장애인 의지 '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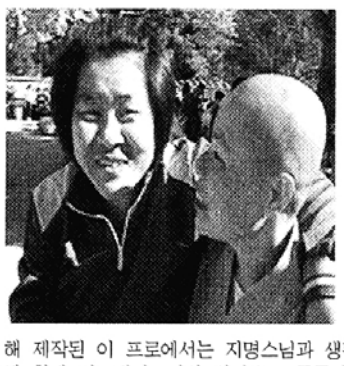
불교TV 31일 '자비의 빛으로…' 특집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31일 오전 9시10분부터 50분간 장애인들의 산행과 그룹홈 봉사자들의 생활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자비의 빛으로 희망의 삶으로'를 연말특집으로 방영한다.

이 프로에는 설악산에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열린 '장애인 설악산 등반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고난과 정상 정복의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있다. 또 승가원이 운영하는 성북그룹홈 시설장 지명스님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5명의 재활교육, 취업교육, 여가활용지도, 사회적응 훈련과정 등 재활 교육기관인 그룹홈의 생활상이 소개된다.

그룹홈에서 2개월간 장애인들과의 동행 취재를 통해 제작된 이 프로에서는 지명스님과 생활하다 독립해 현재 마포점자도서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연주씨(시각장애1급)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 사례도 들려준다. 장문희PD는 "이 프로를 통해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가 장애인들에게 해야할 사회적인 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설악산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고있는 김연주씨(사진 왼쪽).

"시합전 관음정근으로 마음안정"

방콕아시안게임 첫 金 김정미 선수



13회 방콕아시안게임에 출전중인 불자선수 김정미(23·인천남구청·사진)가 여자공기소총 개인전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연습이 없는 날이면 성남 심전사(주지 지웅스님)를 찾아가 기도를 하는 김선수는 96년 밀라노 사격월드컵에서 1위를 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이어 7월에 열린 바르셀로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동메달, 9월의 제23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해 왔다.

심전사 주지 지웅스님은 "96애틀랜타올림픽때는 김선수가 독실한 불자라는 소식을 듣고 각 방송사 취재진들이 심전사에 와서 진을 치고 김선수의 가족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었다"며 "그때는 초반 탈락의 고배를 마셔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뻐했다.

4년전 해인사 종진스님에게서 법등심이란 법명을 받았다는 어머니 최진희씨(45)도 "정미는 항상 시합에 들어가기전 단주를 챙겨 손에 차고 갈 정도로 부처님께 의지 한다"며 "마음의 안정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격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유도 조인철과 정성숙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다.

김주일 기자

日영화 '왕사성의 비극'
btn 새해 아침 방영

'관무량수경' 토대 제작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99년 1월1·2일 오전8시부터 50분간 아미타 부처님에게 최초로 구제 섭취된 위제희부인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만화영화 '왕사성의 비극'을 방영한다.〈사진〉



일본 정토진종에서 제작해 불교TV에 무상 공급된 이 영화는 〈관무량수경〉에 설해진 '왕사성의 비극'을 토대로 구성됐다.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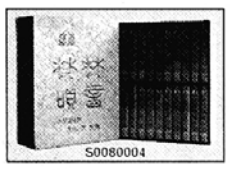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안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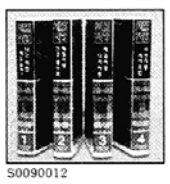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목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진시식
17. 예송
18. 운심게
19. 법시이운 · 명전점안
20. 증성 · 천수작법 · 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 살찌는 체질?
· 체질과 비만의 관계
·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 다이어트 음식
· 살빼는 민간차
· 지압으로 빼는 군살
·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비만은 중합 질병이다
· 다이어트의 부작용
· 선택이 중요하다
· 질식요법이란?
· 쉽게 할 수 있다는데
· 혼자서 하는 올리오법 7가지
·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 멋지게 보내는 하루

대나무 잔


S0090002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기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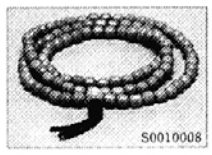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일체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활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수월관음좌상

여래의 경지에 들지않고 중생제도에 원을세운 관음보살을 찬상 염송하고 의지하며 공경하면 고난과 불행이 사라지고 해탈을 얻게된다
(본좌상은 수월관음 좌상으로써 연꽃위에 한이계시며 룸에 비치 딥은 과


S0020006 S0020005

S0020005
크기 260×300(㎜)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120,000

S0020006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99,000

거산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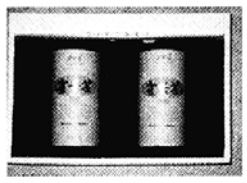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활인활(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불가결한 활성(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원산지 · 국산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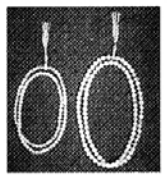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작설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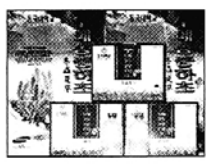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허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신하여 고협압,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누에 동충 하초 (冬蟲夏草)



동충하초란 현재 겨울에는 곤충의 몸속에 있다 여름에는 풀처럼 나타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가 인삼, 녹용과 함께 귀한 3대 한방 약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여러효과가 있다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방에서 약용으로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해발 3,000-6,000m의 지대에서 서식하는 까다로운 생육 환경 조건 때문에, 절대수기 희귀되어있는 매우 귀한 약재이다 이렇게 귀하다는 누에동충하초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한약재 등과 배합하여 살균 포장한 위생적인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수 있는 현대인의 식품

태합 한약재 아가리쿠스 버섯, 영지버섯, 백봉령, 갈근, 당귀, 천궁 제피

본 제품은 동충하초균과 식물계균 전구소체 동국생명과학연구의 지적전매권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가격 : ₩ 198,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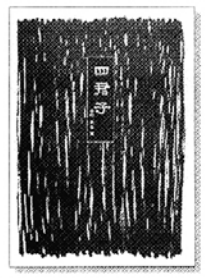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이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산속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풍 떨치니
뭇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신비탑 치달리는 맹호앞에
잔바람 쉬음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야는
새들의 푸르르고
해질녘 잔바람은
댓닢을 흔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웅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떨친다
용은 사방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휩차게 불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응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아회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신소등 용도다양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S0010019

규 격
· 청자항로(8㎝×5㎝) 1개
· 청자촛대(8㎝×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 촛대 비람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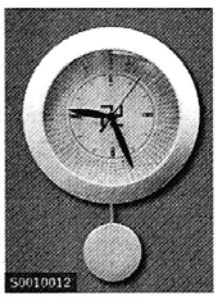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미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미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 드립니다.

가격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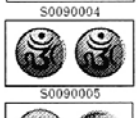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신하며 뇌중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S0090007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융해합니다


S0090004


S00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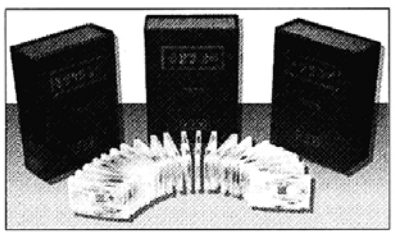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S0090006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력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넘수 있다면 혼잡한 미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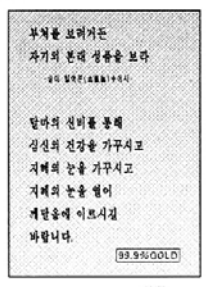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1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2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3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기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비랍니다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세발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GOLD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S0090003

순금 99.9%

경전카드


S0090014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가격 : ₩ 15,000 순금 99.9%


S0090015


S0090016


S0090017


S0090018


S0090019


S009002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내부그림 S009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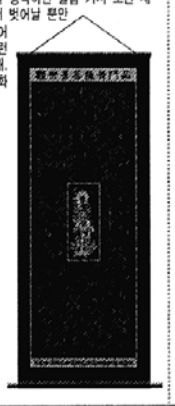

S0090009

가격 ₩ 5,000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내부그림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박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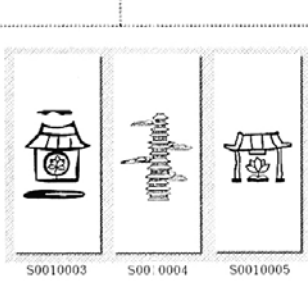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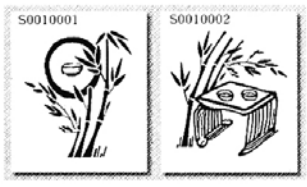
기도포


S0010003 S0010004 S0010005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한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관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들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S0010020(검정 줄)
S0010021(밤색 줄)
S0010022(무명 줄)

종 류 :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S0030004
특징 수공에 의한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침학자 명지)

-복종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S0090011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맥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제휴 한의학 박사 민백원(중앙기한병원원장)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기묘년 연하카드

(※100장 이상 주문시 : 연하카드에 DM발송 할수 있는 주소 및 원하시는 내용 인쇄해 드립니다.) 가격 ₩ 550

카드1 카드2 카드3 카드4 카드5 카드6 카드7 카드8 카드9 카드10 카드11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학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지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는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엽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따듯이 벗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무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현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찾아낸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고산스님(쌍계사 주지) 22일 오전 10시 동지불공 기도법회 및 백일기도법회. (0595)883-1901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법회, 22일 오전 10시 30분 동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법회. (02)993-3161



지안스님(통도사 강원 강주) 매월 세째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경불련 〈신심명〉 강의 법회. (052)272-1633

양일스님(캐나다 토론토 대각사 주지·북미불교협의회장) 1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12월 다보법회. (02)703-0108



일봉스님(본원사 주지) 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30분 초삼일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법회. (02)319-00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16일 (수)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 이사회**=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는 오후 5시 서울 인사동 제주은행 빌딩 10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 기념법회 및 98년도 결산 이사회를 연다. (02)739-2991

12월17일 (목)

■**충북예비역불자회 송년법회**=저녁 6시 30분 충북예비역불자회 송년법회가 청주시 봉명손칼국수 집에서 열린다. (0431)294-6805

■**통도사부산포교원 자원봉사자 교육**=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오후 2시 포교원 문화관 2층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51)816-2241

■**진각복지회 자원봉사 특강**=진각복지회는 19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센터 강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전문성, 체계성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 특강을 실시한다. (02)942-0144

12월18일 (금)

■**금정불교대학 동문의 밤**=부산 금정불교대학은 오후 6시 석산부페 3층에서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을 연다. (051)866-7277

12월19일 (토)

■**맑고향기로운 음악회**=오후 6시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 제5회 맑고향기로운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가요를 비롯 국악과 참선의 접목을 시도하게 될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02)741-4696

■**결식아동 및 불우청소년돕기 걷기대회**=영남불교대학과 대구경북 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오후 2시 결식아동 및 불우청소년 돕기 걷기대회를 연다. (053)474-8228

■**금강메아리 보리암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20일까지 무박 2일간 남해 보리암으로 98년 회향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72-9517

■**자비실천제주협 노인돕기 하루찻집**=자비실천제주협의회는 오전 9시~밤 10시까지 제주시청 앞 장미전통찻집에서 정토사회실현을 위한 불우노인 돕기 자비의 일일찻집을 연다. (064)758-9839

12월20일 (일)

■**충북혜능보육원 송년법회**=충북혜능보육원과 대전자혜원은 충북혜능보육원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갖는다. 법회와 노래자랑, 다과회, 후원금 전달등이 진행된다. (0431)256-6254

12월22일 (화)

■**정토회 수련회**=정토회는 27일까지 깨달음의 장 수련회와 나눔의 장 수련회를 분경 정토수련원에서 연다. (0581)571-6031

12월23일 (수)

■**내원정사 결식청소년돕기 하루찻집**=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년)는 둥지커피숍에서 결식 청소년돕기 하루찻집을 연다. (051)242-0691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된 바른법연구원 수련원.

子時 가행정진·금강경 연구

바른법연구원 고양에 수련원 개원

불교신행단체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이 최근 수련원(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889번지)을 건립,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금강경〉독송 정기법회를 비롯, 매주 토요일 밤 10시 철야정진기도법회, 매일 새벽 2시 30분 새벽기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벽 1시~5시까지 잠을 자지않고 수행하는 자시가행정진을 통해 잠 해탈을 위한 실천수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른법연구원은 앞으로 직장인과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자시 가행정진수련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심성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내년 1월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도 열 계획이다. (0344)966-5877

게 시 판

♣ 알림

△**피부과 무료이동진료**=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로 주부습진, 무좀, 피부알러지 등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2

△**무료이용서비스**=신도림복지관은 매월 세째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등에게 무료 파마와 컷트 등 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631-9792

△**저소득자 무료이동목욕서비스**=불교사회복지회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탕 서비스를 실시한다. (032)868-0048

♣ 모집

△**인천자비의 전화 후원가족**=인천 자비의 전화는 고통받는 이웃을 후원해 줄 동참자를 모집한다. (032)884-0118

△**불교 및 전통사진 공모대전**=대한불교신문사는 불교 및 전통사진 공모대전을 실시한다.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진작품으로 오는 99년 1월 31일까지 출품하면 된다. (051)867-1515

△**나눔의 집 후원자**=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0347)768-0814

△**동연어린이 사찰순례**=동연에서는 99년 1월 15일~17일 초등학생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사찰순례를 실시,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016-690-4233

△**아미타불교대학 신입생**=아미타불교대학은 기초반, 전문반, 경전반 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6개월 과정으로 99년 1월 9일 개강한다. (042)625-1080

△**자비의 결연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자비의 결연후원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미용사, 양식한식조리사 등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사, 양식한식자격증반, 컴퓨터교실, 제과제빵, 홈패션, 꽃꽂이, 퀼트, 노래교실, 스탠실 등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31-9792

△**성인피아노교실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위한 피아노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이엘과 반주 단기완성, 영화음악, 째즈를 지도한다. (02)817-8052

△**한라불교 관리요원**=한라불교신문은 신심있는 시간제 여성 업무 관리요원을 모집한다. (064)722-1445

△**제주불교 합창단원**=제주불교합창단 부루나는 31일까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여성불자로서 음성공양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064)752-2810

△**남구복지관 자원봉사자·강사**=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 미용, 컴퓨터 강사를 모집한다. 또 도서 대출관리, 아동학습지도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3)476-7700

△**능인불교연구소 연구원**=능인불교연구소에서는 불교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연구원 약간명을 모집한다. (02)577-5840

♣ 답사

△**터사랑 민통선 통일기행**=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20일 민통선 통일기행과 철새탐사를 떠난다. 도피안사와 고석정, 철의삼각전망대, 천통리 철새도래지, 백마고지전적지, 노동당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는 3만 5천원. (02)725-1284

중 단 소 식

조계종

만공스님 52주기 다례제

제7교구본사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8일 정혜사에서 만공스님 열반 5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태고종

법계고시 1월13일 실시

총무원(원장 인곡)은 내년 1월 13일 법계고시를 실시한다.

대선과(5급)·중덕과(4급)는 필기시험과 면접, 대덕과(3급)·종덕과(2급)는 논문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종사(1급)는 총무원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고시는 서울·경기·충남북지역, 대구·경북·광주·전남북·부산지역, 제주지역 등 3권역으로 나눠 서울 종무처, 선암사, 제주종무원에서 각각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31일까지. (02)745-2030

월명승정 추대법회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1일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월명스님 승정추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월명스님은 제주교구종무원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중흥에 기여한 공로로 제75회 중앙종회에서 승정으로 추대됐다.

교임협 김장김치 보시



전국교임협의회(회장 박대각화)는 7일 총무원 후원에서 2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3백여포기 김장을 담궈 총무원에 보시했다.

전태종

교원불자 동계수련

총무원(원장 운덕)은 내년 1월6일 2박3일의 일정으로 분산 삼광사에서 제1회 저국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불자 동계 수련법회를 연다.

'학생불교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수련법회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참인간 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자리로 마련된다. 접수는 31일까지 각 지역사찰 사무실고 본산 총무원 교무부로 하면된다. (0444)420-7309

관문사 국태민안법회

관문사(주지 운덕)는 8일 7층 대불보전에서 국태민안 및 평화통일, 유주무주 고혼천도를 위한 영산불공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재무부장 도재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을 비롯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진각종

자성학교 교사연수

통리원(원장 성초)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총인원에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자성학교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결식학생 지원금 전달

진각복지회는 4일 대구 서부교육청에서 6월25일부터 운영해온 대구 늘푸른알뜰매장 수익금 전액을 대구 결식학생지원금으로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로써 대구 서부교육청 관할 중학교 4곳의 91명의 결식학생이 수혜를 받게됐다.

총지종

제27회 창교절기념 불공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24일 제27회 창교절을 맞아 역삼동 총인원을 비롯한 각 서원당에서 기념불공을 봉행한다.

법사종

무병장수·경제안정법회

금강원(총무원장 성순경)은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동지특별기도 '무병장수 경제안정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1부 무병장수 업장소멸과 경제안정을 기원하는 합동의식, 2부 총무원장 성순경 법사의 법문과 대참회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성순경 총무원장은 "IMF 한파로 가정경제와 도덕성이 무너지는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새로운 각오로써 무명을 밝히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정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통도사 부산포교원

문화체험 통해 외국인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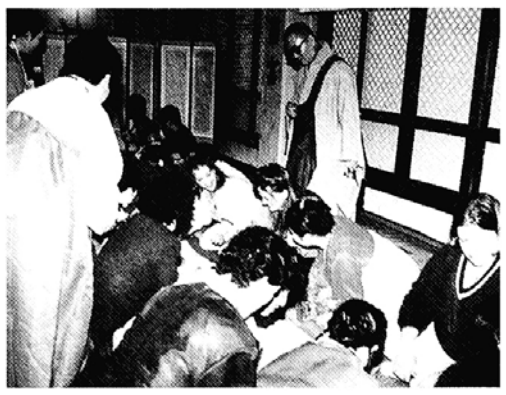
구미·亞 근로자 1백명에 매월 문화강좌
다도·법회·연등제작등 불교정서에 매료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회장 김건웅)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우리문화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강좌는 월별로 다양하게 준비돼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제포교부는 내년부터 부산지역 각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백여 근로자들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신행프로그램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수련회, 성보박물관 및 사찰 답사, 연꽃서식지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국제포교부는 올 한해동안 연등만들기, 탈춤, 시조창, 관소리, 다도, 연등만들기, 녹차만들기, 전래놀이 등을 실시했다. 강좌가 열리는 날이면 법당은 우리문화를 체험하려는 눈푸른 외국인들로 붐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차를 마시고 탈춤의 흥겨움에 취하고 법회와 사찰문화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된다. 처음에는 10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1백여명에 이른다.



◇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이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에 참석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불심을 다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국제포교부가 처음 발족됐을 때만해도 해외포교에 대한 자료나 운용 사례가 전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경전의 번역이나 불교 용어 통역의 어려움, 외국인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 등 직접적인 불교전달의 한계에 부딪쳤다. 그러나 15명의 국제포교부팀은 외국어 강사, 유학생 등을 위주로 홍보를 시작해 성급한 불교전달보다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포교에 주력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인 위주였던 대상자들이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되었고 직업도 강사, 교사, 학생, 근로자 등 다양해 졌다. 국제포교부는 앞으로 서울 등지의 해외포교 단체와 교류, 외국인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건웅 회장은 "사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불교와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것이 포교의 첫걸음"이라며 "다른 해외 포교 단체와의 교류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인포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해운정사 '시민선원'



◇부산 해운정사가 시민들의 선수련을 위해 2백여명 수용규모의 지상 3층 시민선원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내는 진제스님

시민 참선도량 내년 완공

낮은 흙담이 길을 따라 시중과 선원의 경계를 이루고 나무대문 하나가 담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고 있다. 선의 세계로 들어서는 상징처럼 그렇게 열려있는 문. 시골 정취 물씬 풍기는 이 풍광은 바로 해운정사(조실 진제) 시민선원 불사의 모습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낮은 흙담 하나를 넘어서면 깊은 선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조성되고 있는 시민선원. 이 시민선원은 진제스님이

5백평 2백명 수용규모
부처님 사리탑도 조성

평소 강조하는 생활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도 해서 더욱 뜻이 깊다.

해운정사하면 곧바로 금모선원과 토요시민선방을 떠올릴 정도로 도심가운데 있는 선원의 기능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20년전부터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토요시민선방은 매년 찾는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간의 부족없이 모든 시민선객들을 수용, 지도하고자 발원된 시민선원 불사는 지상 3층 건물의 선방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1층은 5백여명의 공양이 가능한 대중공양간, 2층은 개인공부방과 숙소로 활용될 14개의 방, 3층은 80평 규모의 선방으로 꾸며진다. 해운정사 시민선원 불사가 완료되면 1백50명~ 2백여명의 시민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생활속에서 선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총 건평 5백평에 가까운 이 불사는 올초부터 시작돼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초파일 이전에는 모든 불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스님의 공양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토요시민선방의 공부처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 선방스님들의 수행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현재 시민선원 불사외에도 1천평에 달하는 주차장 불사가 진행중이고 목조 3층 사리탑을 조성해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는 불사도 계획하고 있다.

진제스님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생활중에 참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생활인들이 쉽게 찾아와 참선하고 지혜를 닦아 생활선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 될 것"이라며 생활선을 또 한번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장흥 탐진댐 수몰 예정지 매장문화재등 보존해야

전남 장흥 탐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전통건축물 등 유적이 산재해 있어 종합 학술조사와 전시관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 박물관은 11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1년등안 수몰 예정지역에 분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문화유적을 정리한 〈탐진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수몰지에 가까운 보림사가 댐건설로 인한 습기피해가 예상돼 전문가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보림사는 국내 단위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 국보 2점과 보물 8점 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참여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문화유적 전시공원과 종합자료 전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98 불국토의 밤 행사
보리방송문화상 시상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정관)는 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98년 불국토의 밤 행사를 가졌다.

정관스님,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불국토의 밤에서는 불국토 산하법인인 개금·두송·물운대사회복지관, 양정청소년회관 등의 사업결산과 함께 제6회 보리방송문화상과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이사장 정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국토의 이념을 사회로 널리 펴는데 동참해 주신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불국토 이념 실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양정청소년회관 1억5천만원을 비롯 대한불교어린이지도회 1천만원, 고등학생불교연합회, 중학생불교연합회 등에 포교기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청소년 산사문화교실 연다

부산신도회 1월10~13일
묵언·선체조등 다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청소년 산사문화체험 교실을 실시한다.

부산불교신도회가 마련한 제1회 불교청소년 산사 문화체험교실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 사찰 및 극단, 가마 등의 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사찰과 문화공간의 활용을 통해 우리문화와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문화체험교실은 불교수련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진행된다. 산사의 아침을 시로 열자, 부처님 말씀 연극으로 표현하기, 도자기 만들기, 묵언 프로그램, 발우공양, 선체조 등을 기획하고 있다.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불교적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딱딱한 불교에서 탈피, 친근한 불교전하기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산사문화체험이 청소년 불자 양성은 물론 외래문화, 외래 종교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우리정서와 우리문화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가신청 마감은 12월 23일까지. (051)464-2020

천미희 기자



법사종 단양에 연수원 기공

법사종 총무원(원장 성순경)은 5일 '법사종 단양 불교연수원' 기공식을 가졌다. 연수원 건립 기공식은 총무원 기획실장 조현수 법사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리원리 일대 2만여평을 기증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총무원은 불교연수원을 건평 6천여평의 규모로 건립하고, 연수원 용도 시설외에도 12평 원룸 247세대를 지어 상가로 분양해 수익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경주 실업대책본부 개소

실직가정에 무료급식…진료·법률상담도

경주에 실업대책본부가 개소된다.

경주 실업대책본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성타스님)는 8일 YMCA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실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동천동 구 경주신문사 사옥(50평)에 사무실을 마련, 이달중에 발대식을 개최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에 앞서 12월말까지 각 단체별로 실직가정에 쌀과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고 무료진료활동을 실키키로 했다. 실직가정 무료진료는 경주지역 의사·약사·한의사 협의회와 연계해 실직가정에 무료진료카드를 발급, 진료및 치료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추진위원회는 실직가정 자녀 무료공부방(놀이방 도서관) 운영, 고용안전센터와 연계 구직 및 생계지원, 무료급식활동을 비롯 소비자 노동 여성 법률 교육 등의 상담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추진위원회는 11월 2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실직자가정돕기 안치환 초청공연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 경주 경실련, 성건성당 등 10여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 실업대책본부 추진위원회는 16일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를 갖고 발대식 일정 및 사업방향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제주 어린이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주지부(회장 인성)는 31일부터 98년 1월 2일까지 평화통일불사리탑사에서 제5회 제주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김중근 기자

동연 어린이회 사찰순례

제주 죽림정사(주지 인성) 동연어린이회는 98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제2회 사찰순례를 실시한다. 이번 사찰순례는 순천 송광사,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전남도 지역 10여 사찰. 어린이들은 사찰을 순례하며 조석예불, 법문, 108배 등의 수련회와 가람의 배치 등 불교문화에 대한 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인성스님은 "제주지역에는 큰 사찰이 없어 어린이불자들이 불교건축 및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찰순례를 실시하게 됐다"며 "사찰순례에 동참한 어린이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동연어린이회의 사찰순례는 96년 해인사 등 경남도지역을 시작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김중근 기자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수향사
■주 소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주 지 : 김 벽 해

본인은 귀종단의 종풍과 종지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탈종을 권고합니다.

1998. 12.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옴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시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자랑스런 서울시민상' 받은 불자 안병숙 · 강학일씨

불우이웃에 아낌없는 자비행

'IMF한파'로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 '내 가정', '내 한몸' 추스르기도 벅찬 이 시기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자비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있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무료식당인 서울 길동 관음의집을 운영하는 안병숙(67) 보살과 반야라이온스클럽 강학일(49) 회장. 두 사람은 그간의 선행으로 12일 서울시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이날 시민화합부문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안병숙 보살은 강동구 길동 만종빌딩 지하에 관음의집을 개설, 저소득 결식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무료급식, 무료이발 제공 등 자비와 봉사의 삶을 산 공로를 인정받았다.

4년째 70평 규모의 관음의 집에서 '점심공양'을 올리고 있는 안 할머니는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점심 한끼 나누자는 생각에서 95년 자신 소유 빌딩의 지하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관음의집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 무료로 점심을 대접한 연인원만 3만여명. 한 번 밥 할 때마다 20kg의 쌀이 들어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운사에서 쌀을 보내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다. 안씨 할머니의 빌딩 2층에서 한의원을 열고 있는 셋째 사위 최원호씨(38)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인술을 베푼다.

IMF사태를 맞아 안 보살의 빌딩도 텅비다시피하고 보증금 상환압력을 받아 형편이 어렵지만 '점심공양'은 줄일 계획이 없다. "이것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

강학일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청진동에서 '청진장'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휠체어 등을 기증하는 등 불우이웃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7년전부터 매년 종로구청의 추천을 받아 6명의 중·고생들에게 각기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안양장애인협회 등 장애인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에 수시로 필요한 성금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또 조계사청년회의 탑골공원 무료급식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반야라이온스클럽 예산 2천만원으로 탑골공원 인근 새마을회관에 50평의 경로식당을 마련, 종로구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0일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받은 안병숙보살(왼쪽)과 강학일회장.

교계 13개 노숙자시설 '북적'

정원초과 수용…"쌀·김치등 부족"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을 비롯 13개 교계 노숙자 시설의 인원이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 보현의 집은 지난달 1백50여명이던 숙소 이용자가 10일 현재 3백여명에 이르는 등 여름철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 더 이상의 인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송동 보현의 집도 11월 20여명 정도였던 인원이 현재는 40명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며, 서계동 보현의 집도 한달 사이에 50명이었던 인원이 65명으로 늘어났다. 부산 보현의 집 역시 지난 9월 개원 당시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75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계동 보현의집 김익중 소장은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쌀과 밑반찬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현재 교계에서는 서울 영등포·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을 비롯 인덕원, 구로, 길음, 능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수용인원은 20~30명)을 개설하고 있다. 또 우리는선우의 '화엄동산'과 본동사회복지관 희망의집은 여성 노숙자 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 경불련과 승가원도 노숙자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승가원은 장애인 노숙자 시설을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불자련 '동지포덕' 성금모아 불우이웃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동지(22일)를 맞아 불우이웃과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동지포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연합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천왕사에서 동지기도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의 동지포덕 기간 동안 모인 자비의 성금은 내년 1월8일 불우이웃 및 장애이웃 5명, 소년소녀가장 4명, 실직자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2개소, 민간단체 1곳에 전달된다. (02)723-6258 김재경 기자

역삼노인복지관 총지종 수탁운영

총지종유지재단은 10일 강남구청이 연 역삼노인복지관 위탁자 결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자선단과 대한사회복지회, 영산 등 3개 법인과 수탁경쟁 벌인 결과 수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 복지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총지종유지재단은 "역삼 2동과 도곡 1, 2동 주민포교와 지역내 종단위상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문화탐방마저 종교편향이라니…"

서울연맹 '청소년 탐방교육' 사찰등 제외

서울시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서울연맹(총장 유주영, 이하 서울연맹)이 최근 실시한 '청소년 역사·문화현장 순례'을 지켜본 교계는 서울시와 서울연맹의 종교편향적 청소년 교육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서울연맹이 최근 펴낸 〈서울문화유적을 찾아서〉에서 비롯됐다. 이 책에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청소년 역사·문화현장 순례'에서 청소년들이 방문했던 역사·문화현장 34곳이 정리·수록됐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대표하는 정동교회와 명동성당을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현장으로 순례한 반면 불교와 관련된 곳은 한 곳도 방문하지 않아 종교편향적 청소년 교육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2만여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한 2만여명의 청소년들은 개신교와 천주교 성지만을 '서울의 역사·문화현장'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연맹 전창합부장은 "도심 생활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고려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순례지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박순상씨(서울시 교육과 담당자)는 "적은 예산으로 치뤄진 청소년 행사인 만큼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불교유물·유적 가운데 강남구 봉은사, 종로구 원흥사지, 중랑구 극락사, 도봉구 원통사, 강북구 화계사 등은 도심과 떨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 행사에 무려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연맹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교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내년 문화재관리 예산 는다

올 비해 219억원 증액

대장경전산화 11억 지원

내년 문화재관리예산이 올해에 비해 문화재보수 부문 1백50억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26억원, 해양유물전시 15억원등 총 2백19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예산은 7천8백69억원으로 올해보다 2백95억원 늘어났다. 특히 문화부문 예산이 5천9백5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8%가 증가했으며,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전년대비 0.1%가 늘어나 0.7%를 달성했다.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쓰임새는 △고려대장경 전산화지원-11억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90억원 △국립지방박물관 건립-1백3억원 △지방박물관 전시·수장시설 건립-1백억원 △박물관 시설 보강-24억원 △박물관 유물구입-3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신축-4백54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9백20억원 △문화재 보존관리-11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50억원 △전통문화학교 건립-60억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38억원 △지방문화재연구소 조사연구-12억원 등. 이 가운데 박물관 유물구입비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비 등은 각각 15억원과 6억원이 줄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재보존 기본자료 제작 활용-15억원 △부여국제예술단지 조성지원-15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 △한국문화학교 지원-8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8억원 등이 책정되어 있다.

백제 신라 강화 중원등 7개 문화권 정비사업은 아직 예산 책정이 안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안으로 확정된 예산 안에서 문화재관리국과 예산청이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목탁소리

불교유적 빠진 문화순례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대우〉

〈서울문화유적을 찾아서〉란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청소년 역사현장 순례 자료집이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34개 문화유적지 가운데 불교문화유적지는 한곳도 없다. 펴낸 곳이 한국청소년서울연맹이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이고, 서울시가 후원해서 치른 행사의 자료집인데, 문화유적지에 불교유적이 한 곳도 없다니?

이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서울연맹의 담당부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순례지로 정했다"고 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게으르고 나약하단 말인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봉원사가 찾기 어려운 곳인가. 봉원사는 무형문화재48호 단청과 50호 범패의 색감과 가락이 흐르는 곳이다. 매주 한차례 외국인 관광객을 주대상으로 영산재도 시연하고 있다.

봉은사도 있다. 사명스님이 쓰던 향로(보물 321호), 추사 선생의 친필 대웅전 편액이 전해 진다. 서울에만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50여곳에 이른다.

이렇듯 사찰은 우리 전통문화의 향기가 짙게 스며 있는 곳이다. 역사현장 순례 행사에 5개월 동안 2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는데, 정작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정수는 쏙 빼놓고 전해주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유적지 선정에 너무 안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니면 지독한 종교적 편견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 명동성당과 정동교회는 들어있는데, 왜 사찰은 한 곳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담당자는 "적은 예산으로 치러진 행사여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6천만원이 적은 돈인가, 1백만원이라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구나 시민의 세금이 쓰여진 사업이니, 서울시는 관리감독의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책임행정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swju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인덕원 22일 어르신잔치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은 22일 오전 11시 지역노인 4백여명을 초청, 노인잔치를 연다.

이날 노인잔치는 인덕노인대학 학생들의 장기자랑 및 사물놀이 공연, 신가회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운다. 인덕원은 또한 노인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보시해 온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23일 오후 5시 '자원봉사자 감사 잔치'를 연다.

김재경 기자

자양복지관 '흰눈교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2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지역내 결식아동 및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르 '흰눈 교실'을 연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중심으로 매주 월~토요일 오전 12시30분부터 중식제공은 물론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특강을 진행한다. (02)458-6796 김재경 기자

승가대 입시요강 변경

중앙승가대학교 입시요강이 일부 변경됐다.

중앙승가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원서교부일자가 당초 12월 14일~99년 1월 11일까지에서 12월 14일~99년 1월 3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또 원서접수기간도 당초 99년 1월 5일~11일까지였던 것이 12월 28일~99년 1월 3일까지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02)925-5507(교 202)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평불협 금강산관광 접수

불교계에서도 금강산관광을 신청받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와 한불관광여행사(대표이사 묵원스님)는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관광 지정대리점으로 선정돼 금강산관광 접수 업무에 들어갔다.

성문관광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불협과 한불관광여행사는 금강산 3박4일 코스에 최고 4백12만원에서 최저 68만원에 신청을 받고 있다. 성문관광 (02)722-2233, 한불관광여행사 (0557)643-6448

도필선 기자

불교TV 노조 결정

불교TV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불교TV노동조합은 9일 마포 석불사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신동우 제작부 차장을 선출했다.

불교TV 노동조합은 이날 △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 △ 특정한 개인 및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송 지양 △방송의 공영성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 및 업무 지시의 거부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사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에는 제작부, 기술부, 사업부 등 55명이 가입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달마도 · 추사佛字

동양화가 백포 곽남배 선생님 수행의 일념으로 한점 한점 직접 그렸습니다.

수맥차단 氣를 방출하며 액을 소멸시키는 달마도의 영험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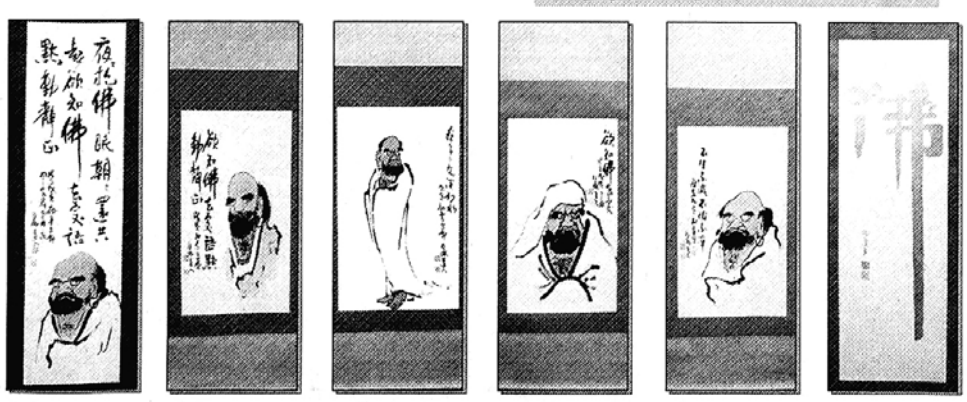


백포 곽남배

■중요약력
· 조선대학교 졸업
· 國展 입선 10회
· 국전 특선 5회
· 국전 추천작가
· 국전 초대작가
· 전남 대학교 사대교수 역임
· 일본국 전일전 문화대훈위 수상
· 일본국 전일전 특별선고 심사원

■ 수입금 전액은 여래병원 건립불사에 쓰여집니다. ■
구입문의 : 대구여래원
053)655-2227/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원
우 체 국 704148-0019991 대구여래원

※선착순 접수, 소액 투자가치※
작품은 모두 원색입니다.
사찰불사를 위해 대량 주문하시는 스님께는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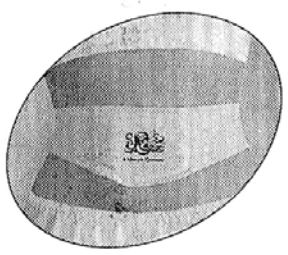


A-1 달마도 족자 싯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2 달마도 족자 싯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3 달마도 족자 싯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4 달마도 족자 싯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A-5 달마도 족자 싯가 120만원 보급가액 : 30만원 (표구 족자)
B-1 佛字 족자 국내유일 추사진적 보급가액 :10만원 (표구 족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괴돈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입 문

보살사상의 체계적 학술서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이봉순 지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보살사상은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사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초기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10년 가까이 보살사상 연구에 매진해 온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보살의 의미와 보살의 실천행법, 수행의 진전과 열반의 증득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대중부(大衆部) 등의 보살사상을 살폈다.

불광출판부, 15,000원 (02)420-3200

오늘을 사는 지혜 - 禪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항봉스님 지음

책 제목 그대로 '생활선을 통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갈하는 핵심이다. 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이유는 복잡미묘한 현실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저자 항봉스님은 역설한다.

선의 역사와 특징, 선과 도가사상 등 선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설명했다. 마조와 조주스님의 일화를 벌도의 장으로 마련해 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선에 관심이 있거나 참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밀알, 8,500원 (02)529-0140

에 세 이

어머니의 사랑 그 깨달음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 한갑진 지음

기원효대사와 해골에 얽힌 유명한 일화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말한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다.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간의 허약함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다."

영화계의 대부로 불리는 한갑진씨(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의 이 책은 성장기부터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그린 자전 에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배경과 영화 '팔만대장경'을 완성하기까지의 고통 등 75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동아일보사, 7,500원 (02)361-0991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암악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찾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말이 지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65

기 타

마하리쉬의 자기 탐구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지음

1950년 입적하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그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에 있다. 그리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자기탐구'라고 부른 수행법을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참자아의 본성은 무엇이며, 참자아 탐구를 위한 이론과 수행방법 등을 문답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 앞에 그 장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왔다.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수준에 맞는 답변으로 '자기'를 찾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문화, 8,500원 (02)403-1207

사찰음식-현대적 관점에서 해석



■선식의 비밀/ 최진호 지음

사찰음식이 왜 건강에 좋은가를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불가의 식습관이 불교사상에서 비롯됐음을 아울러 밝혀내고 있어 부처님의 '건강과 의학'에 관한 사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사찰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왜 일일일식의 원칙을 강조해 왔는지, 그리고 차(茶)가 어떻게 선승의 수행식이 될 수 있는지, 곡차를 선사의 '해탈의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물론 각종 문헌과 경전을 토대로 승가의 식생활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살과꿈, 12,000원 (02)318-4041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따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꾸짖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곽만연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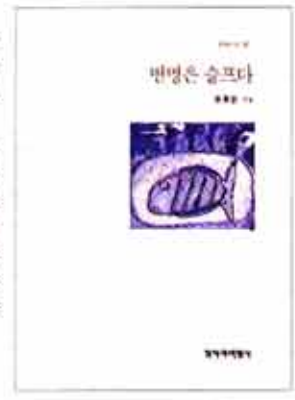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불교의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전, 사찰환경보전,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정배 오형근 박선영 연기영 전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6

詩로 만나는 자아



■변명은 슬프다/권경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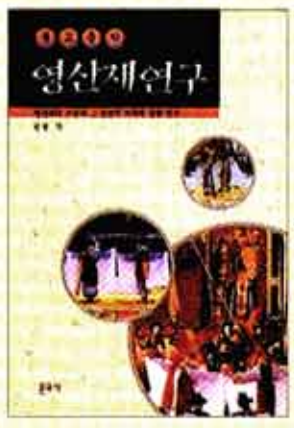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아 나선 사람. 그에게는 맑디맑은 영혼의 울림이 있고, 고통을 기쁨으로 치환하는 의지가 있다. 권경인 시인의 7년만의 시집 〈변명은 슬프다〉에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어느덧 들판에 서 있는 우리들의 허무와 맑음으로 이끌어 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한다. 그래서 그의 고독은 단절이라기보다는 친화성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함부로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물처럼 잔잔히 흘러갈 뿐이다. 그의 시집에 이런 배려이 가득 묻어난다. 죽고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새 우주를 잉태하는 불교적 윤회관과 동양적 세계관은 시마다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깨달음으로 향한다.

열림원, 7,000원 (02)733-5045

금주의 추천도서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영산재 연구/법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행은 범패(梵唄)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범패는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써,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 작법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